

#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 '88년 통계요원종합교육시 현장경험발표사례 )

1988. 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032969



## 머 리 말

이 책은 '88 통계요원 종합교육 때 발표된 현장조사 경험에 관한 28편의 우수 사례를 모아 발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통계조사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이 책에 수록된 발표문에서 보듯이 일부 응답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정확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 자료를 신속하게 생산해내야 하는 우리 통계요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통계조사 환경속에서도 통계인으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우리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단순히 통계조사요원의 고충을 기록한다거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보다 바람직스럽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집의 발간을 계기로 보다 나은 통계조사 환경이 조성되고 통계조사에 임하는 여러분에게도 흔들림없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통계요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88. 5.

조 사 관 리 과 장

## 차 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	서울동부	김 각 수 .....	3
K가구의 냉대 .....	충 남	이 혜 인 .....	8
자신감과 능률지수 .....	전 남	손 홍 식 .....	11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	인 천	김 임 순 .....	15
부서진 우산 .....	서울서부	정 관 영 .....	18
삶을 배우며 .....	충 북	원 용 숙 .....	23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	서울남부	강 현 호 .....	26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 .....	경 남	배 소 희 .....	29
물따라 산넘어 .....	충 북	박 의 돈 .....	32
통계조사 현장에서 .....	전 북	명 전 자 .....	38
푸대접 속의 보람 .....	전 북	양 청 부 .....	41
봄이 오는 소리 .....	인 천	김 순 정 .....	45
사명감 .....	서울남부	김 진 영 .....	49
모나리자의 미소 .....	경 북	박 종 명 .....	51
통계조사와 나의 과거, 미래 .....	충 남	민 재 홍 .....	56
우리의 기쁨 .....	강 원	현 경 옥 .....	60
작은 정성 .....	서울북부	김 기 현 .....	65
통계조사의 보람과 긍지 .....	경 기	유 미 영 .....	68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	부 산	김 봉 원 .....	71

나의 체험 .....	서울동부	장 정 란 .....	76
통계수집현장을 달리면서 .....	경 북	유 연 창 .....	81
용 해 .....	전 남	신 옥 례 .....	85
현 시점에서 .....	경 남	진 영 철 .....	88
후퇴 없는 전진 .....	부 산	이 정 숙 .....	91
마라톤의 출발선에서 .....	경 기	최 승 일 .....	94
자신과의 싸움 .....	서울서부	강 성 숙 .....	99
오늘도 힘차게 .....	강 원	정 해 권 .....	104
일을 사랑하는 마음 .....	서울북부	권 정 인 .....	109

##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울 동부출장소 김 각 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부여에서 뵙고 꼭 1년 만에 몸 건강한 모습으로 통계가족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통계조사요원이라는 대명사가 된 것은 1965년 2월 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그 이름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때 조사업무는 지금도 맡고있는 광공업동태조사, 생산능력조사 그리고 각종 연간통계조사 업무이었습니다. 통계자료조사를 하기엔 너무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모든 조사업무가 현재 내가 몸담고있는 조사통계국으로 1977년 1월에 완전 이관됨에 따라 저의 신상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 그해 6월 15일자로 인천출장소에 발령을 받아 조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고집스럽게도 외딴 통계조사요원으로 줄곧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조사현장에서 담당사업체를 방문하여 되풀이되는 통계자료수집에 있어 차가운 눈초리와 정다운 미소로 조사가 끝나면 매번 미흡한 감을 느껴본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날들 오늘 지금의 나! 조사의 요령이 별로 향상된 것 같지않고 통계조사에 있어서 정도 높은 자료로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자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얼굴은 볼품없는 쪼그랑 바가지가 되었고 맛이 일품이라는 갈비는 피아노 튕기는 소리가 들릴듯 생겨버렸고 세월은 흘러 “젊음이 한결같이 아름답다” 하곤 잃어버린 젊음에 안타까운 미련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무기력으로부터의 무관심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업무수행

에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광공업 동태조사를 담당 통계조사요원으로 출발할 즈음에는 다 그렇듯이 통계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였고 각 사업체에서 얻어지는 이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조차 모르고 다만 조사자료 회수에만 급급하여 조사 마감일에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의 조사를 완료하는데만 뛰어 다녔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돌듯 담당하고 있는 조사구를 똑 같은 조사업무를 몇몇해를 반복하고 지침서를 읽어 소중한 내것으로 소화 하다보니 어렵풋이나마 통계가 무엇인가를 알게되었고 중요한 자료인 것만이 틀림없다는 것은 물론 국가정책수립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육칠십년대 초에는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업체에서 마치 우리를 잡상인 취급을 하여 우리들을 슬프게 하였고 불응하는 사업체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통계가족들이 끈기있게 설득하여 이해를 주지시켰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여 산업이 첨단화됨에 따른 사회가 복잡다변화의 물결속에서 각종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요구되는 정확한 자료 활용도가 높아져 이에 힘입어 우리 통계가족들은 하루 하루 조사현장에서 맡은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여 왔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하나 하나의 조사자료가 모여서 한편의 책으로 월보가 꾸며져 나왔을 때는 피곤했던 몸도 한층 가벼워지고 보람도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해가 바뀌면서 김포, 강화, 부천지역 조사구에서 인천 도화동 조사구로 자리를 바뀌게 되어 광공업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S목재공업주식회사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목을 수입하여 제재목을 생산하고 장농을 비롯한 각종 가구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품

목중 지정품목이 아홉가지나 생산되고 있어 매월 자료가 마지막 18일 오후 두시경에 자료제출이 가능하였습니다. 회사의 규모로 보나 종업원의 규모로 보나 가구업계에서는 이름이 나 있는 큰회사입니다. 담당부서인 경리과 말단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는 매우 친절하고 통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여 적극적으로 통계자료 제출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부서에서의 자료제공이 늦어져 조사표 작성이 매월 늦어지게 되어 저로서는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조사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항상 업무도 유달리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해 한여름 무더운 7월 17일 오후 2시경 자료작성이 될 것 같으니 방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삼십여개 사업체의 조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업체만 미완료 되어있던 중이라서 약속시간에 재차 또재차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담당자가 급한 은행일로 은행에 갔다면서 좀 기다려 달라는 경리과장의 전달이었습니다. 그후 한시간여를 지나서야 담당자가 돌아왔습니다. 담당자가 나를 보더니 순간 얼굴색이 별장게 변하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서는 “오늘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 조사요원 생활에서 얻어진 경험으로 눈치 하나로 버티어가는 저로서는 “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약속합시다”하고 사무실문을 나섰습니다. 매번 18일 오후에나 제출되는 자료인데 “그러면 그렇지 17일에 될 이유가 있나”하면서 정문까지 나왔을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뵙자는 담당자의 부름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총무이사가 면담을 요구한 것입니다.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언제나 버릇이된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지요. 오랜 대화가 오고가면서 그분은 목

재업계와 가구업계의 경영관으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매월 방문 조사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알았다며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의 적은 지식으로 통계 조사의 목적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열성을 가지고 설득력있게 십 여분동안 대화를 나누어 상호 많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조사표를 작성토록 할터이니 한번만 더 방문하여 달라”며 나의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총무이사께서 작성된 자료를 봉투에 넣은채 주었습니다. 나는 조사표 내용을 잠시 검토한 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였더니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표 한장에 너무 욕심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과 이 조사표 한장으로 회사의 운영실태를 한눈으로 매월 보게되어 매우 잘 기획된 조사표 내용이라고 웃는 여유도 가졌습니다. 정부 기획부서의 짜임새 있는 업무에 관심이 간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협조에 대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는 매월 17일을 통계자료 제출의 날로 정하고 협조를 당부 하였더니 쾌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조사를 완료한 기쁨보다도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한사람에게 더 이해를 시켜 공감을 갖도록 주지 시킨것이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사업체를 삼년동안 담당하면서 1년에 하루씩 3년동안 3일을 단축 앞당겨 매월 15일에 자료 제출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어찌 이 회사뿐이겠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꽃피는 봄! 폭염속의 한여름! 결실의 계절 가을! 뽕뽕 얼어붙는 영하의 추운 겨울! 사계절을 하루같이 조사현장에서 뛰어야했고 뛰어야할 우리통계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동부사무소로 전입되어 서울의 요람지 강남구 일부 조사구를 담당하고 있음

니다. 나의 희망 나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긍지를 갖고 통계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요.

최근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KBS 2 TV에서 연예가 중계석 시간이었습니다. 재즈음악 연주자인 B모씨가 소개 되었습니다. 외길 30여년동안 재즈음악만을 연주하고 고집스럽게도 재즈음악과 같이 일생을 살아온 그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적 재즈음악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한마디가 나의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통계가족들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경제 일변도 경제통계도 중요하지만 지역간과 계층간의 통계발전도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능동적으로 다같이 노력합시다. 반면에 우리 통계조사 요원들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뛰고 뛰어봅시다. 우리경제도 작년 한해동안의 교역량도 1천억불 흑자수지도 획기적으로 연 2년동안 계속 이루고 있어 우리국민의 저력이 무한한것 같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민소득도 높아져 가계저축율도 날로 높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통계가족은 가구와 사업체의 담당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통계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이 거듭 다짐! 또 다짐! 통계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우리통계가족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 K가구의 냉대

충남 통계사무소 이혜인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통계가족 여러분 통계조사 업무에 비교적 경륜도 짧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통계조사에 대한 저의 경험을 나누게 된 것을 무척이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겪었던 현장조사에 대한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입사한지 얼마안되어 통계조사가 무엇인지 개념조차도 잘 모르고 처음 일선 현장인 천안 조사구를 담당해 K라는 가구를 방문하여 면담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K라는 가구를 방문하여, “경제기획원 충남통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이혜인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하는 순간 K가구의 응답자인 주부는 내의를 착용한채 문도 열어주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며 아무말도 없이 묵묵 부답이었던 것이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허탈함에 젖어 그 가구를 떠나는 순간 통계조사는 그 자체가 어렵고 고독한 것이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어 처음으로 통계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해야만 하겠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튿날 다시 K라는 가구를 방문하였을때 전일 응답을 해주던 주부는 부재중이고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무엇때문에 방문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여 통계조사의 목적등을 설명하며 인구동태조사 및 도시가계조사를 하기위해 방문하였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잘 모르며 집주인인 주부는 다른 곳으로 이

사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전일 응답자인 주부가 시장엘 다녀오고 있었지 뭐예요.

이에따라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며 재차 조사에 응하여 줄 것을 설득하였으나 K가구의 응답자인 주부는 저를 못믿겠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이어요. 그래서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보조조사표를 제시하여 통계조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공무원이란 것을 인식케하여 조사에 협조토록 설득을 다시 시도한 결과 “K”가구의 응답자인 주부는 지금까지 본인이 저에게 냉대하게 대하였던 것을 이해하여 줄것을 부탁하면서 적극적으로 통계조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인구동태 및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가구를 방문하였을때 보다 K가구를 방문하여 장기간 대화를 하였지만 조사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K가구의 응답불응 사유 내용은 본인들의 생활이 비정상적인 가정생활, “남자가 연하이고 여자가 연상인”이기에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가씨한테 냉대하게 된것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통계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비협조적인 언행 및 불친절은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고 여기 모이신 전 통계가족이 적어도 한번 이상은 겪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다 나은 통계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통계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인내로 응답자를 설득하여 자발적인 통계조사에 응

답토록 하는것이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 조사요원들의 임무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이용한 통계조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중앙에 계신 분들이 계획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일선현지 통계가족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고군분투만이, 보다 나은 자료수집이 되어 경제 사회발전 및 사회복지 후생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통계가족 여러분!

역사의 전환기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자기 맡은바 책무와 주어진 소명의식으로 책임감 있는 요원화를 위해서도 계속되는 자기 반성과 통계조사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위한 발전은 물론 나라와 사회발전을 이룩되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리의 통계가족이 일체감을 조성하여 조사에 임해 줄때 만이 튼튼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지나 여기 모이신 통계가족 여러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박 3일이란 짧은 기간동안 여러 선후배님들과 종합교육을 통하여 많은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배우면서 일하는 통계인이 될 것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저에 대한 사례 발표를 끝낼까 합니다.

# 자신감과 능률지수

(현장조사의 손자병법)

전남 통계사무소 손 흥 식

자신의 현실능력 및 잠재능력까지를 스스로 믿고 느끼고 생각하는 감각의 정도가 어떤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소비한 힘과 시간에 대한 효과의 비율을 능률지수라고 한다면 날로 복잡다양 해지고 고도화 되어지는 산업사회의 현장조사에서 상대에게 리드당하지 않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상대우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

그 근원이 어떤형체가 있어서 저울로 달아서 물가지수에 있어서의 쌀의 가중치 71.7과 같이 부여할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사람의체중 60kg을 기준으로 해서 그이상은 얼마 그이하는 얼마로 표현할수도 없는것이 바로 자신감이라는 기(氣)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할때에도 어떤중책을 맡았다던지 어려운일에 직면했을때 너 자신있어 하고 자신감을 가져라고 격려합니다. 몸집이야 크던작던 육신의 자신은 다있게 마련인데 이 스스로 믿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천차만별합니다. 무슨일에 있어서든지 감(感)을 잡아라 감을 잡지못하면 항시 미궁에 빠져 도레미타불식이 되고만다고 얘기합니다. 이 감이란 기운이며 용기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어떠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능력까지를 현실능력으로 100%표출 활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의 대변인이라 해야할까요? 우리 현장조사에 있어서의 대화란 상대방간의 감(感)과 기(氣)의 싸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입니다.

요즈음의 미디어 광고에 고감도란 어휘를 많이 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높은 감정의 극치를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부터 이끌어내어 느끼게하는 이성(理性) 지성에 앞서 감성에 호소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감을 잡는다는 것은 상대를 자유자재로 내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절대우위의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는 감을 잡는 센스를 프로화 시켜야 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철저한 직업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보는데 철저한 직업의식이란 또한 강한 프로정신을 갖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는 1등이지 2등은 없습니다. 바로 생명을 걸고 싸우는것이 프로정신입니다. 프로정신을 쉽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예를 든다면 1982년 11월 14일 김득구의 (24) 라스베가스에서의 맨시니 (21) 에게 도전 시합중 불의의 사고로 끝내는 숨을 멈추었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없이 프로때문이었습니다. 아마추어는 취미삼아 소일삼아 적당히 하여 넘길수도 있고 그렇다고 주위에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다릅니다.

계속성, 수익성, 보장성이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갈고 다듬어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치열한 생존경쟁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2등은 패배자입니다. 통상운동경기에서 금, 은, 동메달로 3분하지만 냉정하게 따진다면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현장조사에 있어서의 인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않아야 합니다. 세계 제1인자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프로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기가 맡은 현장조사에서 Number one 이라고 하는 정신자세를

평생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모로 보나 진정한 조사통계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칭호를 들을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기가 수행하는 모든일에 있어서 100%를 지향하는 완전근성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적당주의나 무사안일주의는 추호도 용납치 않고 어디까지나 철저성, 완전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매사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력투구하여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한결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이라도 일순간으로 그쳐버릴때 무의미한것일뿐 부단한 끈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프로정신 즉 자신감을 가질때 표본가구에서 시작하여 대규모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남녀노소 다양한 스타일에 대처하는데 조급의 부족함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감성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좋아요가 아니라 좋은것같아요 맛이좋아요가 아니라 느낌이 좋은것같아요등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력을 발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장조사는 나의 평생을 맡기는 직업의식에서 출발하여 주인정신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자아를 존중하는 것이며 자기를 실현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정신의 자신감을 우리의 가슴속에 늘 간직할때에 현장조사의 능률지수는 요즈음의 주가지수보다도 더 높은 1000%대를 상회할 수 있으리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간의 형태를 세가지로 나누어 보고싶습니다. 가나마나 달팽이란 말이 있듯이 행하는게 없으면서 촉각은 별나게 예민하여 바람 기운만 달라져도 지고다니는 달팽이집 속으로 움츠러들어 버리는 부류 소위 호신주의형 또 소처럼 느리기는 하지만 넘어질 염려없이 꾸준히 자기의 소임을 완

수하는 부류 또 말처럼 급진적으로 추진하려다 자신이 피해를 보는 부류 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수 있는것은 우리 인간은 지구라는 작은집에서 같이살아야 되는데 달팽이처럼의 무사안일주의를 배격해야 하며 소의 침착성과 말의 민첩성을 잘 조화시켜 개개인적으로는 자기실현의 매진과 가정적으로는 사랑과 화목을 가꾸며 직장에서는 성실과 책임을 다할때 우리사회는 보다 긍정적인 신뢰의 사회가 되리라 확실히 믿으면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순간순간들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정확하게 조정하는 “자신감의 능률지수”를 재고(再考)합니다.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내일의 만남을 위해 분투노력합니다.

##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인천 출장소 김 입 순

저는 통계조사요원으로 일해온지 이제 겨우 1년이라는 기간밖에 되지 않은 통계조사원 초년생입니다.

얼마되지 않은 기간동안의 경험으로 여러 선배님들에게 사례담을 말씀드린다는 것에 송구스러움을 감출수 없으며 단지 배우겠다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항상 통계 조사 업무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과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통계 자료를 수집해야 할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는 때때로 갈등을 겪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첫째로는 조사대상 가구의 방문시 응답자의 “표정”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고 보니 상대방의 표정이 일그러져 나를 대할때는 금새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표정을 감출수가 없더군요. 그러나 저는 애써 나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감추며 조사표 내용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보다도 애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불응가구는 막무가내로 저를 당황하게 하며 제발 가 달라는 표정을 지으며 쳐다도 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조사대상 가구의 방문시 응답자의 “언어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면 성실하게 조사표 내용에 응해 주시는 열  
가구보다 한가구의 불응가구를 대할때는 불응가구는 저에게 차디찬 말한마  
디로 “우리집은 오래 살지도 않을테니 다른집을 조사해요, 귀찮으니깐요”  
하는 소리에 어쩔줄 몰라하며 통계조사요원 생활에 스스로 실망을 느끼고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달에 재방문하였을 때에도 경  
제활동 인구조사는 더욱더 비협조적인 언어와 불쾌한 마음으로 저를 대할  
때는 나의 언어와 마음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상냥하며 경제활동 인구조  
사와 인구동태표본조사, 도시가계 조사의 목적과 활용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불응가구는 마지못해 조사표 내용에 응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통  
계조사요원 생활 초년생으로서 처음 기쁨과 흐뭇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러나 우리 국민들의 통계 조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의식이 계몽되지  
않는한 또다시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지역통계  
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통계조사  
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꼭 해야한다는 의무감으로 통계 자료에 적  
극 협조하여 좀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수집되고 활용되었으면 하는 소망  
입니다.

셋째로는 조사대상 가구의 방문시 응답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면 “어서와요, 차한잔 마시고 가요”하는 훈  
훈한 인정을 베푸는 분도 있지만 어떤 방문 가구는 인터폰을 누르면 안  
에서 목소리만 들릴뿐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분도 계셨읍  
니다. 그럴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면서 통계조사 수집이 이렇게 어려운 것  
인가? 하는 실망과 당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자리에서 주저 않  
을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을 총동원 하여서라도 제차 그집을

방문하여 열어주지 않은 대문을 열게하고 가구표 작성과 함께 가계부를 내 보이며 기입지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제 행동이 얼마나 안타까와 보였는지 “다음달부터 가계부 써줄게요”하는 그 답변을 듣고서야 돌아서는 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날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적어도 업무 지침서를 한번 더 숙지하게 되고 하루빨리 내가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신감을 갖게되고 더많은 노력도 하게 됩니다.

저의 얼마되지 않은 통계조사요원 생활의 어려움이 여러 선배님들이 수년간 겪어온 시련에 비하자면 특별하게 말씀드릴것도 없지만 앞으로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은 경험에 비추어 볼때 이 모든 통계조사 수집의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방법중에 하나가, 응답자의 “표정, 마음, 언어, 행동”모두가 인간과 인간사이의 대인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실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통계조사 업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로서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함과 국민경제가 날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분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직도 모든 통계조사표에 대한 인식부족과 적당한 숫자 개념으로 조사표 내용에 응해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자세와 올바른 태도로 바뀐다는 확신을 갖고 삶의 터전인 나의 조사구에 나갈때마다 나의 가슴은 항상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통계 조사원의 임무에 분투 노력할 것을 여러 선배님들에게 약속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조사원이 되겠습니다.

## 부서진 우산

서울 서부출장소 정 관 영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숨결이 흐르는듯한 이곳 유서깊은 속리산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이년전에 담당했던 이 업체는 종업원 백오십명 정도의 전형적인 중소기업체 였습니다. 전임자에게 사업체 인수를 받고 업무협조 인사차 방문하였더니 응답자가 하는말이 이제 담당자도 바뀌었으니 우리 회사는 조사 대상업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임자로부터 업체의 특성에 대한 약간의 언질은 들었지만은 초면에 이 정도로 나올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낼수도 없는 처지이고 보니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꼭 참고 담배를 전하며 과장님! 제게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제외시키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도 않고 만약 주어졌더라도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표본선정된 업체를 임의대로 바꿀수가 없으니 이해하시고 계속 협조를 당부한다며 응답자가 매우 바쁜것 같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고 문을 나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조사현장에서 흔히 있는 일인것을 너무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자며 스스로 자위하려해도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저만이 느끼는 저만의 감정이라고는 생각하지않고 현장을 뛰는 우리 모두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럭저럭 세월은, 흘러 태풍 베라호가 우리나라 전역을 장마전으로 뒤덮은 팔월중순이었습니다. 중앙기상대에서는 태풍의 진로를 수시로 예보하

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들의 업무도 장마철 한달동안 만이라도 연기 되었으면 매우 좋으려만 월간경제동향 이라는 중요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협조가 잘되는 업체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달에 몇번씩가도 비협조적인 사업체이기에 각오를 하고 오히려 비를 맞는한이 있더라도 이럴때 출장을 나가는것이 약간의 효과가 더 있을것 같아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고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으나 개이기는커녕 어두컴컴한 하늘은 좀처럼 풀릴것 같지 않을 모양으로 계속 강풍을 동반한 굵은 빗줄기를 퍼부었습니다. 출장을 나갈까 말까 마음의 갈등이 생겼으나 판생각 나기전에 나가기로 굳은 마음을 먹고 출장길을 나섰습니다. 차창을 두드리는 거센 빗줄기는 계속 되었고 어느덧 도로에는 시냇물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약 이백미터 정도 걸어들어 가야하는 이 업체 입구에는 가로수들이 양쪽옆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쓰고다니는 우산은 휴대하기 편리한 이단짜리 접는 우산이었는데 성난 비바람 앞에서는 속수무책 이였습니다. 연약한 가로수 나무가지가 우두둑하고 꺾어지는 순간 저의 우산도 홀랑 뒤집혀짐과 동시 우산살이 부러져 그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머리부분과 기록부안에 들어있는 조사표만은 적시지 말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뒤집힌 우산을 삿갓모양으로 고쳐쓰고 업체 정문까지 도착하였더니 저의 꼴이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정도로 추한 꼴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강 젖은머리와 옷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응답자에게 인사를 하였더니 “비가 오는데 웬일이냐”는 말한마디 하고나서 자기일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잠시후 과장님 저희 자료준비가 됐느냐고 물으니까 바빠서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때처럼 직업에 대한 회의와 인간의 비

애를 느껴본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쩔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가서 안되면 두번, 두번 찾아가서 안되면 세번이라도 머리숙여 가면서 자료를 얻어와야 하는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큰소리 한번 마음놓고 칠수가 없는 처지인 것을 꿰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과장님 강풍이 휘몰아치는 장마철에 비를 맞아 가면서까지 급히 나온 뜻을 그리도 이해 못합니까. 물론 저도 과장님께서 바쁜 것은 알지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쯤 상대방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해야할 일 속꺾여가며 쪼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당신 사정이지 내사정은 아니지 않느냐는 듯 한다는 말이 “글쎄 말씀은 매우 좋은데 바빠서 시간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처지이고보니 자신도 어쩔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음성의 톤이 약간 높은 것을 들었던지 칸막이 뒤에 앉아있던 전무이사가 뒤통수에 그러시냐며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히 인사를 한후 신분증을 제시해 보였더니 자기 자리로 가서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높은사람을 만났으니 뭔가가 풀리겠다는 앓팍한 기대를 갖고 십여년동안 나름대로 터득하고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차분히 통계의 중요성 및 용도에 대하여 또한 평소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월간경제동향 보고자료 스크랩한것까지 보이며 설명을 한후 협조를 구했습니다. 제말을 다 듣고난 전무 왈 “우리는 기획원뿐만 아니라 각 은행, 상공회의소, 노동부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다보면 적은 인원가지고는 우리회사 본연의 업무조차 마비될 지경이니 기획원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기로는 우리회사의 수준과 비슷한 업체가 많으니 대체를 해서 다른

곳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보니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던 저의 얕팍한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응답자보다 한술 더 뜨는 문자 그대로 설상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밀천을 다 드러낸 후라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통계법밖에는 떠오르는것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없이 기록부 뒷면에 기재된 통계법을 뒤적이며 귀사에서는 자료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으며 반면 저에게는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며 협조를 간청했으나 정그러시다면 응답불응으로 보고를 하던지 선생께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응답불응시 적용되는 오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일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은 말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기회로 벌금 오만원을 벌태니 마음대로 하라면 그나마의 응답도 아주 거절해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겠노라며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후 구월분 실사 때는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말로 설득을 시켜야 하나하고 걱정스러움이 앞섰지만 태연한 척 언제쯤 나가면 가능하겠냐고 응답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옆에 앉아있는 경리아가씨가 전화를 받고서 하는말이 과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리아가씨에게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니 퇴근길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전화위복 이다싶어 병실을 알고나서 퇴근길에 문병을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근처에서 넥타 한박스를 사가지고 병실을 찾아갔더니 저를 보는 순간 의외로 정형이 웬일이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가이 맞이하면서 옆에서 간호를 하던 자기의 약혼녀에게 마치 우리들 사이가 십년지기나 되는것처럼 저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우스웠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서 인간의 마음

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말씀하신 맹자님의 성선설을 다시한번 저는 음미하여 보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나서 퇴원후 응답자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는 그전과 완전히 바뀌었고 업무협조도 매우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갔습니다. 얼마있다가 응답자로부터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며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여보니 그 회사직원들 모두가 참석했고 통계법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던 전무이사도 나와있었습니다. 그와 수인사를 나누는 동안 전무는 나에게 찾아주셔서 고맙다며 같이가서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전무이사와의 소주한잔의 나눔은 더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응답자가 전무의 눈치를 보아가며 작성하던 조사표는 목시적으로 매월 월례 고유업무로 공인되고만 것입니다. 지금은 전화할 필요도 없이 십사일 전후해서 방문하기만 하면 조사표는 깨끗이 작성되어있고 부재중일 때에는 옆자리에 맡기고 나가는 성의를 저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동료직원 여러분 사사로운 베품이 이러한 좋은 결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할때 이는 비단 우리들의 조사업무에만 국한된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 모두의 업무에 이러한 발전된 일들이 많이 전개되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주신>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 삶을 배우며

충북 통계사무소 원 용 숙

대기는 신선한 봄기운으로 가득하고 햇살은 나날이 따뜻함을 더하여가며 생명의 신비함이 충만돼있는 이때 다시금 여러분을 뵈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일년만에 뵈는 모습들이 건강하신 모습이라 더 반갑습니다. 지난 일년동안도 통계의 최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며 어려움을 만날때마다 슬기로 헤쳐나가며 이자리에 이르셨을줄 압니다.

저 또한 양반의 고장이라는 충북에서도 충주라는 인구 십이만을 조금 넘는 작은도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내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부닥치며 겪은일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충주에서만 십여년이 넘게 통계 조사를 해오면서 지내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맨처음 통계 조사를 위해 가구를 방문해서 더듬대며 조사하고 나와보니 항목을 다 묻지못할 것이어서 다시 방문 또방문 하였던 일이며 응답거부하는 가구에선 징역, 벌금 운운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많은 조사를 하며 겪었던 일중에서도 잘 협조하며 나름대로 인간관계도 잘 유지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구의 하루아침 달라진 싸늘한 표정과 태도에는 때로 말할 수 없는 낭패와 실의를 느끼게도 되었었고 다시금 새로 면접하는 기분과 태도로써 꾸준히 설득하여야 했던일, 일시적인 그때의 감정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여 한번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잔뜩하다 슬

쩍 마루끝에 가계부 놓아두고 줄행랑 치듯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마음을 바꿔 잘 협조해 주었던 일이며 청각장애의 가구를 방문해서 청각장애인줄 모르고 혼자 실컷 묻고 뵈히 바라보고 있는 말짱한 얼굴에 당혹감과 조롱 받고 있는것 같아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가 이웃집에서 사정을 알고난 후 내쪽에서 마음다치게 하지나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필담으로 조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지요. 또한번은 정말 불쌍한 소년가장 가구가 저의 조사구에 잠시 이사를 와 살았는데 동네에서 살뜰히 보살펴 주는 모습 보고 저도 동사무소와 시청을 통해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었지요.

가슴 훈훈한 모습과 때로 야멸차고 몰인정하며 교만과 아집으로 굳게 닫힌 철문과도 같은 사람들도 대하면서 통계조사를 위해 인내하고 삭히는 많은 일들이 어느덧 저의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이해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졌음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해야 하며 흥미없는 많은 얘기들도 잘 들어주어야 하며 작은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능동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일이 우리 가구부문 담당자들의 일이기에 인간관계의 기술을 부딪히며 체험으로 습득하였다고도 할 수 있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진정한 삶의 모습, 깊은 지혜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다 진정한 삶의 모습, 삶의 가치를 저 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으며 날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불신만연의 어려움때에 이런 깨달음과 지혜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십이월 표본조사구 교체로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을 위해 신표본 조사구에 가니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도 통장님택으로 동사무실로 연락을 해

보더군요. 참으로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표본조사구의 교체는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는 작업과 같아서 땀과 수고와 슬기와 인내가 요구되어지는데 무진년 한해 무진애를 쓰며 팔팔 뛰어야 할까 봅니다.

제6 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새 경제운용계획에 발맞추어 긍지를 갖고 열심히 뛰어야 겠지요.

또 다른 삶을 만나며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저는 올해도 인내와 끈기를 지니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나갈겁니다.

이것이 통계조사의 정도를 보다 높이는 일이며 저의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가족 여러분! 이 한해 동안도 열심히 사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며 반가운 얼굴들로 다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서울 남부출장소 강 현 호

전국에서 오신 통계조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남부출장소에 근무하는 강현호입니다. 저희 남부출장소에는 통계에 관한 일가견을 가지신 분들이 기라성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례발표랍시고 이 자리에 서게되니 선배님들께 송구스럽고 후배여러분들께 부끄럽기만 합니다.

제가 통계업무를 수행한지가 어언 10여년이 넘었지만 통계조사의 어려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통계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저 자신에게 반문해 봅니다.마는 통계조사가 우리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저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합니다. 특히 요즈음 같이 광공업동태 신표본과 구표본, 도소매 신표본과 구표본의 병행조사, 그리고 각종 연간 조사업무가 쌓일때마다 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동료 여러분들도 신표본 조사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줄 압니다. 제가 통계조사를 수행해 오면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일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만 약 8년전 영세민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할 조사지역이 강남구 내곡동 소재 음성나환자촌이었습니다. 이곳은 나환자들만이 모여 살며 대단위 양계업을 해서 자립생활을 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서울 소비량의 약 10%를 능가할 정도로 양계의 규모가 컸었는데 이곳 나환자촌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신선도 때문에 얼마전인가 마스크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외부세계와는 단절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저는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나환자 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동직원은 이들과 인사 할 때는 꼭 악수를 해야 되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그들이 매우 기분나빠 하며 아무일도 못 한다는 것을 미리 귀뜸해 주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계분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것을 참으며 마을회관에서 이곳 회장이라고 하는 50대 후반의 남자한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영세민 실태조사를 하러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자 그분은 회관방송을 통해 사람들을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방송을 하여 나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수고한다고 하면서 악수를 청해 왔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은 맘이지만 동직원이 귀뜸해준 일도 있고해서 악수를 하며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얼굴이 약간 일그러진 사람, 손가락이 굵은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고 지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집에 돌아가서 내가족들에게나 나에게 이런 병이 옮겨지면 어쩌나 하고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제가 통계조사원이 아니었다면 이곳을 당장 뛰쳐나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한낱 지난일에 불과하지만 가끔 저의 뇌리를 스쳐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당시 나환자들은 불편한 몸으로도 생의 의욕을 잃지 않고 자립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사회에서 버림받다시피한 몸으로도 굳건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나이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중요한 국가시책업무의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통계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든 어떠한 고난과 수모도 감수해야만 된다는 것이 제가 10여년 동안 체험하고 남은 소중한 재산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통계국에 들어 올때는 20대 후반의 패기발랄한 청춘이었는데 지금은 40대가 갓 넘은 중년이 되어 옛날의 젊음은 간 곳이 없고 오로지 통계조사에만 전념하다보니 머리는 희끗희끗 해지고 예쁘장하던 얼굴엔 어느새 주름살이 늘어난 것을 생각할 때 지나간 옛날들이 아쉽기만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본부 간부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조국을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럼 통계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이 영원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만나는 날 더 굳센 악수를 교환 하십시오.

##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

경남 출장소 배 소 회

제가 통계 조사 요원으로 사회의 일역을 담당한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어린 저에게는 그야말로 몰라서 서러울 때도 있었고 소장님, 계장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르침에 고마워서 울먹인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추운 겨울날 비 오는날에 문 밖에서 조사대상 가구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적이 한두번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참고 슬기롭게 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일이 있다면 '87년 12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이다. 그때 난 진해시 여좌1가와 충무6가를 배정받게 되었다.

처음에 여좌1가란 말에 난 여자1가라는줄 알고 혼자 속으로 웃으면서 마산의 남성들과 자매결연이라도 맺으면... 하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여좌1가라는 조금 특이한 구역을 담당하게 되어 조사가 원만하고 또 한편으론 재미있는 사건이 생길것만 같았다. 처음 작성하는 요도를 그리면서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다.

85년 인구센서스 당시의 요도를 들여다 보면서 현지의 지역여건과 가구 규모등이 그당시 조사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지 살펴보는데만도 꼬박 하루가 걸렸다.

다음 조사실사 주간에 각 가구를 방문하였다. 마침 한창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심상이 싱숭생숭 했던가 보다. 조사원인 제가 선거운동원

으로 오해 받은적이 있었다. 사연인즉, 며칠을 찾아가도 응답자를 만나지 못 하던차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아줌마의 근무처를 확인한 후의 근무처 인 회사를 찾아가기로 작정하고 근무처를 찾아가 아줌마에게 공장까지 찾아온 무례함을 정중히 사과드리고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상세히 설명드린 뒤 조사에 임해 주십사 부탁드렸다.

아줌마는 대뜸 “아가씨가 가위와 병따개를 갖다준 사람이유?” 하시는 게 아닌가

“아! 그것말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희 통계 조사에 응하신 고마움의 사례로 드리는 겁니다”하고는

무사히 조사를 마친뒤 또다른 가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한창 열심히 입을 움직이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오토바이 소리에 난 고개를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오토바이 소리의 주인은 내려서 나에게 다가왔다.

“아니 경제기획원 아가씨 아냐?”

가만히 보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여긴 웬일이십니까?”

동직원의 말은 조금전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날 선거철을 이용하는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여 급기야 신고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닌가.

정말 기가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으면 신분을 밝히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말도 못믿는단 말인가.

다시 한번 사회의 무정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찰나 아줌마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아유 아가씨 우리가 너무한 것 같지 뭐유 우리를 이해하구라”

나는 그순간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잘못을 시인할줄 아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구나하는 생각에 미소를 머금었다.

“아니 뭘 이해 합니까? 신고정신이 투철한 아줌마들에게 오히려 공직자인 제가 사례를 하여야겠습니다”하고 웃어 넘겼지만 이와같이 조사대상 가구로 부터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받은적이 있기에 모든 조사에 임함에 있어 그자세 또는 조사 요령이 모든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정말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조사 시기였다.

우연히 나는 ‘산골소녀 옥진이’라는 시집을 선물받게 되었다. 19세의 한창 나이의 소녀이지만 뇌성마비 환자로서 바로 눕지도 못한채 항상 엎드려 지내야만 하는 옥진이 그녀가 써 내려간 시귀절은 그대로 눈물이 되었다.

‘나의 죽어가는 육신으로 세상을 밝힐수만 있다면 나는 한자루 촛불이고 싶습니다.’

병든 육신을 저주하고 원망까지 보다는 그 육신이나마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갈구하는 가엾은 소녀 옥진이 나는 후회했다.

좀 더 내 삶에 충실치 못했던 것을 단조로운 생활이기는 하나 건강한 육신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을 감사해야만 했다.

작은 일 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련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먼 훗날 지금의 나를 돌이켜 볼때 큰 공적은 없으나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련다. 감사합니다.

## 물따라 산넘어

충북 통계사무소 박 의 돈

오늘과 같은 뜻 깊은 날에 훌륭한 상사님들과 선배님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들이 함께한 영광된 이 자리에서 제가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며 저에게는 자랑스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단양군은 충청북도의 북쪽끝에 위치하며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도계로 접하고 있는 오지군입니다. 청주에서 버스로 4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고 인구는 약 5만9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도 충주댐이 완공되어 담수가 되면서 군청소재지가 10 km 북쪽으로 이전하여 계획적인 인공도시를 건설한 새로운 단양은 세계속의 단양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으로 뻗은 소백산맥과 군의 중앙을 흐르는 남한강의 물줄기로 인한 자연적인 계곡과 강변의 비경은 고대로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단양 8경 곳곳에는 선현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76년 이후 새로이 개발되어 공개되고 있는 고수, 노동, 천동의 석회암 동굴은 지하의 불가사의한 신비경으로 동굴 관광의 보배로써 방문객들의 탄성은 끊일줄 모르고 또한 지난 86년 이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된 충주~단양간 유람선 관광은 꿈의 관광지로 본 고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양은 가보고싶은 관광의 성지이지만 제가 맡고 있는 조사통계업무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형이 험하고 오지의 교통불편으로 높은산과 높은산이 만든 깊은 계곡

을 지나 산넘고 강건너 조사하기를 16년 이제 통계조사업무처리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았을때는 24세의 혈기 왕성한 청년으로서 힘이 든다고 느끼지 못할때였습니다. 그 당시 단양에는 포장길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비포장 도로였으며 국도 5호선외에는 차량들이 서로 자유로이 교행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때는 72년 8월 19일 유사이래 처음있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폭우가 쏟아져 군내 전체가 물바다를 이루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변의 도로는 모두가 끊겨 교통이 두절되었고 계곡마다 물은 넘쳐 농경지는 침수되었고 강 한가운데 섬마을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그 곳 주민들은 10여m 높이의 인공 물탱크위에 올라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통계조사의 초년생인 저는 인구동태실사를 해야하므로 조사 대상마을인 대강면 기촌리와 수촌리를 가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이 두 마을은 군청 소재지에서 부터 24km이상 떨어진 소백산속에 산재한 산촌입니다. 이 마을로 가는 정기 버스노선도 없을 뿐만아니라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비가 그치기를 학수고대 하였으나 좀처럼 그치지를 아니하여 그 날은 초조히 가슴을 조이며 보냈습니다.

알곳은 비는 그 이튿날에야 그쳤습니다. 군 소재지에서는 고지대로 피난갔던 주민들이 쓰러진 자기집을 수리하고 방을 말리는 등 수마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집은 고지대에 위치해서 홍수의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비가 그치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수촌리를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4km정도 왔을 지점인 하현천에서 길이 유실되어 하는 수없이 자전거를 끌고 들고하여 유실된 길을 지나 다시 10km를 왔으나 더 이상은 자전거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포읍 상진리에는 남

한강을 가로질러 대교가 놓였는데 이 대교가 유실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상진리에서 영춘, 영월로 이어지는 도로가 고수리까지 유실되어 도로는 찾아 볼 수 없이 절벽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자전거는 상진리 고지대 민가에 보관하여 놓고 운동화 끈을 다시금 단단히 조이고 서류 봉투는 허리춤에 매어달아 산악도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마친후 산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곳은 원체 악산이라 가파르기가 여간 아니었고 물뿜은 산은 매우 미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군데 군데 이어진 길을 지나 10여 *km* 거리에 있는 조사구에 도착하여 보니 온몸이 땀에 젖어있고 옷은 흠투성이가 되어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천 제방을 쌓고 있었는데 저를 본 이장님은

“아이구! 박 선생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소? 도로가 전부 끊겨 차도 없을 터인데……”

“말도 마시오 아주 죽을 고생을 했지요”하며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친절히 맞이하여주는 이장님이 무척이나 고마웠으며 늦은 점심이나 이날의 점심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몸이나 조사를 해야하는 저로서는 이장님께 ‘오늘 점심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단양에 오시면 한턱 내지요’하며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예정된 코스로 금곡리 담당 부락을 조사하고 다시 물따라 산길로 올라가 수촌리를 조사했으며 또 다시 미륵동까지 조사를 완료한 저는 오늘처럼 조사구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소임을 완료한 후 다시금 땅거미를 밟으며 오던길을 되돌아 상진리까지 오니 어두운 밤이라 도로 보수 및 가교를 놓던 군인, 주민들은 횃불을 들고 야간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전주가 넘어지고 전선이 끊겨 정전이 되었던 전날과는 달리 응급 복구가 되었는듯 민

가의 전기 불빛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자전거를 타고 어둠속을 질주하여 집에 도착했을때는 거의 밤 12시가 되었던터라 가족들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여 기간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룩한 책임감 이러한 것이 모든 피로를 가시게 하였으며 늦으면 자고 오라는 아내의 말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아내의 애교있는 책망은 행복감에도 젖게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교통이 불편하고 자연 재해가 있는때의 조사 활동은 그 어려움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 한번은 여느때와 같이 광공업 조사의 실례입니다. 이 업체는 소재지에서 12 km정도 떨어진 곳에 석회석을 생산하는 백광 광업소였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영세 광업의 사무실은 채광장에서 작은 막사를 지어 놓고 2~3명이 업무를 처리하여 수시로 업주가 바뀌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조사하는 백광 광업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번 조사하는 광업소라 별 염려없이 사무실을 노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저를 맞이하는 미스김과 예나 다름없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어 의아해하며 전무님실의 문을 열어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사무실 집기는 하나도 없고 사무직원도 한 사람도 없어

“미스 김, 어떻게 된거야?”하고 물으니

“박 선생님, 모르셨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분이 인수했어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이 대강면 노동리라는 미스 김의 말을 귓가에 흘리고 황급히 나오면서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큰 일이었습니다. 연락 때문에 남아 있는 미스 김의 말대로라면 기간내 조사의 어려움이 불을 보듯 흰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찾은 새로운 사무실은 현장에 임시 막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복장을 단정히하여 새로운 부장에게 신분을 밝힌후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새로운 부장은 대외적으로 모든 자료의 방출은 서울 본사에서 일괄 집계하기 때문에 이곳 사무실에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자료가 나올려면은 임금 결산이 끝나고 15일이 넘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해서 설득과 이해를 구하려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허사가 되어 그 날은 하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은 다른 지역을 조사하고 이튿날 다시 백광 사무실을 찾아가서 자료협조를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네였다. 그 날 저녁때 현장에서 부장님택을 알았기에 숙소로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찾아가 “부장님 계십니까?”하고 들어가니 문을 열고 내다보며 ‘박 선생이 웬일이요?’하며 인사치레를 한다. ‘아니, 뭐 제가 여기에 오면 안되는 일이 있습니까?’하고 농담삼아 건내니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각지 않았던 일이기 에 하는 소리지요.’하며 들어오라고 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사전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 부장님이 이 고생이 웬일이십니까?’하니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나요’하며 ‘결결’웃는다. 부장은 기왕에 오셨으니 술이나 한 잔 합시다 하며 내가 가져간 과일을 안주삼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술에 얼큰이 취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여기에 온 취지를 잊지않았다. 은근히 말꼬리를 잡아 ‘낮에는 제가 소견이 좁았습니다. 오늘일은 사과 드리지요’하니 부장님이 “그게 웬 말이요 나도 너무 했나보오 우리는 의견을 접근시켜 돌파구가 생겼지요.” 그래서 다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자료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본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요? 그러니 저희들은 늦어도 12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먼저 쓰고 다시 조사표가 본사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방법으로까지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양 이틀간에 걸친 입씨름을 해결하고 오랜만에 기분 좋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날 이후 더욱더 수월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업무를 수행 할 때는 집에다 아예 쓸개를 빼어 놓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례를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통계조사 현장에서

전북 통계사무소 명 전 자

멀리만 느껴지던 우리의 만남은 감추인 봄바람에 성큼 다가와 오직 이 기회가 아니면 안되는 현실속에서 전국의 통계가족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보니 무슨 말을 해야할지 반가움속에 감회가 깊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장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속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국장님, 과장님 및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통계조사의 베테랑인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사례발표를 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통계조사 업무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고도의 지식과 무한정한 지혜 및 인내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재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이 닳도록 다니며, 목이 쉬도록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협조하여 주지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상하지만 더욱 안타까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계 조사지역 연동교체로 새로운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였을때의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사구는 서해안 시대의 총아인 항구도시 군산시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영세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달동네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가구는 아저씨께서는 관철염으로 집에 누워계시고 아주머니께서는 리어카로 과일행상 하시며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가계부 배부차 직행버스를 탔습니다. 때

는 5월이라 마침 전국에서 벚꽃 관광인파가 모여드는 계절이라서 번영로라 부르는 전주에서 군산까지의 양옆 도로변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차창밖에서 풍겨오는 벚꽃 향내음속에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며 앉아 있노라니 직업에 대해 긍지를 느끼며 뿌듯한 감정이 우러나왔습니다.

직행버스로 한시간이상 달려 어느덧 나의 발걸음은 조사구에 와 있습니다. 가구번호 순서대로 맨처음 그 가구를 방문하여보니 아주머니께서는 행상 나가시고 안계셔서 아저씨께 가게부 작성을 부탁드렸더니 아저씨께서는 “내몸이 아파서 귀찮은 판국에 우리같이 못하는 사람 잘살 수 있겠나 해주지 맞지도 않는 통계는 작성해서 뭐하나, 전에는 간단한 인구조사만 하기에 답변을 했지만 가게부 만큼은 작성할 수 없으니 다른데가서 하라”고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사례품을 드려도 이런 것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올때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들쭉던 감정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나 자신이 처량해지고 왜 통계 공무원이 되었는지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더 큰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꼭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되돌아 왔습니다. 며칠 후 그 가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아주머니께서 계시더군요. 아주머니께 매달리다 시피하여 제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듣게 설명도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심한 좌절감과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발을 더 뛰기 위하여 한발을 물러선다는 전략아닌 각오로 재 다짐을하며 다음날 또 찾아가리라 생각하면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고민속에 하루 해가 어김없이 밝아왔습니다. 다음날 또 찾아갔더니 아저씨께서는 웃으시면서

“사회는 아가씨같이 맡은일에 충실한 사람이 필요해 가계부를 두고가! 한번 써 볼게” 하시며 전에는 미안했다면서 결혼할 때는 꼭 연락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아저씨의 인사를 받으며 돌아서는 나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조사 환경하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더욱더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응답자와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통계조사의 정확성은 물론 자기 완성을위한 과정도 될 것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로 현대와같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편리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것을 다짐해 봅니다.

## 푸대접 속의 보람

전북 통계사무소 양 청 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부여에서 만나뵈신 후 벌써 1년이 지나 모 두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곳 명산 속리산에서 만나 뵈게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전북통계사무소 이리 주재원으로 1972년 9월에 발령을 받고 광공업동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처음 시작한지 어느덧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강산이 한번하고도 또 받은 변한 셈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여 왔습니다. 국민총생산(GNP)이 1972년에 4조2백8십억원 이던것이 1986년에는 83조8천3백억원으로 20배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국민1인당GNP도 1972년에 454 \$ 이던것이 1986년에는 2296 \$로 5배가 되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율은 1972년에는 28.3% 이던것이 1987년에는 36.7%로 증가되었고 공식적으로 작성이 승인된 통계조사의 종류도 1972년에는 170여종이던것이 1987년에는 350여종으로 증가되어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통계도 엄청나게 발전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통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한번은 제가 모주정제조업체에 광공업동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방문했는데 마침 담당자가 있어서 간단히 인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오니까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오늘은 세무서에서 왔으니 내일 다시 한번 오라고 하면서 세무서 공무원과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기분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체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공서만은 신경을 써서 접대를 하면서도 우리와 같은 통계공무원에 대한 대접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이것은 직접적인 이득도 없이 귀찮기만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소비자 물가조사를 담당한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돌아온 셈이군요. 물가조사 초년생이라고나 할까요 처음에 조사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인수 받으면서 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고 조사방법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가조사 대상처는 장사를 하는 업체라서 아침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며 대상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11시쯤이나 되어서 부teria 방문하여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어느순기에 조사시기가 되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던중 한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격을 물으니 응답자가 말도 하지않고 인상만 쓰고 있기에 할 수없이 보조대상처를 이용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순기에 그 대상처에 다시 찾아가니 그 가게 주인이 전번에는 대단히 미안했다고 사과하기에 그때는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물건을 사러온 손님하고 말다툼을 하고난 바로 뒤에 찾아와서 화가 풀리지 않아 그랬다고 하면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응답을 하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같이 그때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조사 내용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기분까지도 헤아려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여 작성된 통계가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1987년말의 물가가 전년말에 대비하여 5.8% 상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전주 모다방에서 점잖으신 신사분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하는 말이

“통계는 엉터리야 지금 물가가 얼마나 뛰어오르고 있는데 겨우 5.8%밖에 안올라 그러니 어떻게 정부를 믿어 이렇게 만들어 발표하는 X들이 미친 X들이지”하며 통계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듣고보니 미친 X는 바로 옆에 있는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나서지 않을 수 없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우리소비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411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품목별로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적게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단순히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충분히 이해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87년 1월에 주요 채소류 가격이 1관당 배추 200 원, 무우 200 원, 파는 600 원 이었는데 '88년 1월에는 배추가 1470 원으로 635% 상승, 무우가 950 원으로 375% 상승, 파가 4,000 원으로 566% 상승, 이렇게 엄청나게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으니 채소류 가격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 운용에 있어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밖에는 나올 수 없듯이(GIGO) 우리가 통계조사를 할 때도 엉터리도 응답해 주는 사람이 「통계는 엉터리다」라고 말할 때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맛이 씹쓸한 일도 많지만 우리는 통계인으로써 가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날 오후 어떤 분이 찾아와 물가 담당자를 찾는다기에 제가 나가 정중히 맞으니 그분은 모종합병원 기획실 차장 ○○○이라고 하면서 “우리 병원 '88년 예산을 편성 하는데 87년도 물가지수를 참고로 하여 반영 하

고자 왔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기에 저는 물가속보, 통계월보를 찾아보니 통계월보에 주요 품목별 지수가 수록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보여주시 여기저기 보고나서 이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 책이 꼭 필요하니 팔 수 없느냐고 묻기에 마침 잔부가 있어서 1부 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나니 아! 바로 우리가 생산한 통계가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구나 생각하니 자부심과 긍지를 한층 더 느끼게 되었고 더욱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열심히 조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조그만 일에서도 국가나 기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바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재인식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내지 않고, 굴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자고 나 자신에게 타이르며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모든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 해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 봄이 오는 소리

인천 출장소 김 순 정

꽃은 남쪽에서부터 피고 낙엽은 북쪽에서부터 진다고 하였는데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전국의 통계가족 모두가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나간 '87년은 무척 어려웠던 한 해 였던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숙제였던 민주화의 길과 대통령 직선제를 위하여 온 국민이 피·땀을 흘려야 했고,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과정의 진통으로 노사분규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국가존망의 성패가 풍전등화 같을 때도 국가를 보위한 조상의 슬기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어려운 '87년을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겨울을 넘긴 나무가 탐스러운 꽃을 피우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가 주시하는 탐스러운 꽃나무로 자라나 며칠전 제6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얀 복숭아 꽃이 우리에게 주는 향기와 미래에의 탐스러운 열매가 보는 이의 가슴에 소망을 주듯이 노사분규와 민주화의 진통을 넘긴 우리에게겐 세계가 부러워하는 '88 올림픽과 선진대열의 참가라는 소담스러운 소망의 열매가 싱그럽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탐스러운 열매가 있기 까지에는 파종을 하고 고깔을 씌워주고 병충해의 공격에서 꽃나무를 보호하는 햇살에 그을린 농부의 피와 땀이 있어야 하듯이 선진이라는 민족의 소망 앞엔 참으로 어려운 역경이 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파고를 넘어 후손에게 선진의 열매를 맺

어쨌든 역사적 사명감이 주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 개막이라는 정치 승리와 함께, 미국의 끊임없는 시장개방 압력과 특혜관세 철폐 등의 국제 시장의 악조건 및 원화 절상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발전을 거듭하여 사상 초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때로는 노사분규의 현장에서 위협적인 각목세례를 감수하면서 경제정책에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들과 저의 피와 땀이 서려있고, 이와같은 선진이라는 빌딩의 초석은 바로 우리들의 피와 땀의 응집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나라의 통계는 끊임없는 발전을 지속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지난 한 해동안 지역통계 개발 및 사회통계 개발을 위해 본부와 지방사무소가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이제 우리의 통계도 선진대열에 입문할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해동안 겪으신 노고의 한 부분이겠지만 스스로 보람을 느낀 일이며 본부와 사무소 소장님과 조사담당자인 제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만들어낸 아름다운 통계 작품이기에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지난 여름에 노사분규가 한창이었을 때에 제가 담당하는 S사업체에서도 임금인상 및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스트라이크로 인하여 조사주간이 끝나갈 때까지 조사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두 사업체도 아니고 여러업체가 분규 중이었지만 유독 이 사업체는 회사 정문에 두터운 바리케이트를 치고 각목과 돌맹이로 무장한 폭도로 변한 노동

자의 합성이 외부인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임무도 막중 하였지만 회사 담장에 쓰인 검은색 페인트의 글씨들이 어두운 사회 현실을 대변하는 내용이었기에 조사임무의 수행과 노사분규의 종식이라는 개인과 국가의 문제에서 저 또한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18 일 18 시는 우리의 조사가 마무리지어 져야 하고 배회하는 노동자의 질서 없는 행동처럼 저의 조급한 마음도 깨진 유리조각들과 불탄 회사버스가 아무렇게나 나뿜구는 그 회사 주변을 맴도는 정도로 그쳐야 했습니다.

조사요원 2년생인 제 용기로는 감히 그 위기의 험악스런 정문을 통과할 수 없었고 전화도 불통이어서 담당자를 만난다는 것은 흐린 하늘에서 별을 찾는 것 보다도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마감날이 내일로 박두하였을 때 소장님께서 팔을 걷고 나셨습니다. 소장님께서서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조사가 끝나지 못한 6개 사업체의 담당자들과 함께 사무실 미니버스에 타시고는 분규업체를 직접 방문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참으로 진정한 용기를 보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하나 둘 이체는 노신사의 대열에 들어서신 소장님께서 각목이 난 무하는 분규 사업체의 정문을 당당히 방문하셔서 그들의 분노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어렵게 담당자를 만나서 조사 만기시간 전까지 자료를 보고해 주겠다는 담당자의 확답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6개업체를 모두 돌고 나서 만족한 성과를 올린 우리는 “아빠

꼭 승리하고 돌아오세요.”라고 페인트로 쓰인 사업체의 담을 지나 나오며 참으로 수고한 자만이 웃을수 있는 웃음을 웃을 수 있었고 때늦은 점심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 이 무더운 여름날의 땀이 한국 통계지수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한 이 나라 경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그것은 봄이오는 소리 처럼 은은한 기쁨이었으며 방황하던 저에게 직업의 사명감을 갖게 하여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서 이나라 경제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초석이 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사 명 감

서울 남부출장소 김 진 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일하게된지 겨우 5개월 정도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사례를 발표한다는 것이 쑥스러운 일인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례보다는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느낀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국에 여러해 근무하면서 피상적으로나마 조사업무가 어렵다는것은 알고있으나 막상 실전에 뛰어들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그럴수록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나오면 안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타이르며,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뛰어보는 것입니다.

조사는 우선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부터 시작되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자의 의도대로 응답자가 조사의 목적을 잘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인정이 메말라가고 의심만 들어가면서 거의가 귀찮고, 바쁘고, 짜증내며, 자신의 화풀이까지 몰아서 퍼붓고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문밖에서 몰아낼때, 들어서야할 문은 열리지도 않고 대꾸조차 하지않으려할때 우리들은 그래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못다이룬 일은 내일 그리고 모래, 계속하여 두드려보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때까지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생김이 각기 다르듯이 그들의 생각과 성격 또한 각양각색으

로 우리에게 부딪쳐올때 우리는 그들을 다양하게 대응하여 조사목적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답고 부드러운 어조로, 미소로서, 우선 상대방을 안심시키면서 설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며 우선 신뢰감을 갖도록 하면서 꾸준한 설득과 성의를 다하다보면 십중팔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상황속에서 조사원 각자가 홍보 역할도 겸해 조사목적, 방법, 내용등을 무리없이 전하면서 응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는 그런대로 인식이 잘되어 있고 협조가 되는 반면, 표본으로하는 도시가계, 경제, 사회조사등은 생소하고 안할려고 하는 거부감이 심합니다. 매 스킴을 통해 통계발표를 관심있게 들었거나 과거 통계조사에 응했던 사람은 처음 부딪쳐 보는 경우보다 협조가 좋은 경우를 보더라도 홍보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가 정확한 통계결과를 원할때 무엇보다 개개인의 정확한 통계조사 답변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사회전반적인 여건조성과 발전적인 통계조사 인식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만 줄입니다.

## 모나리자의 미소

경북 통계사무소 박 종 명

무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늦으나마 인사 드립니다.

저는 경북통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박 종명입니다.

먼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만나 뵈게되어 반갑습니다.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원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제가 느낀 보람을 여러분께 소개 하고자 합니다.

'78년 꿈 많던 단발머리 소녀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에 부딪혀 왔지만 이제는 지난날의 일들을 보람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흐뭇한 마음!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을것 같군요.

저는 '78년도 경북통계사무소에 발령 받아 사무실 내근을 4년쯤 하다가 지금의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통과 눈물이 뒤따른 날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경험들은 우리 조사요원이라면 누구나 겪어본 사실이기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준 묘한 인연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조사구가 대학가 주변이어서 하숙가구가 많았는데 그 학생들과 사무소 동료 직원들과의 극적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 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한 아가씨가 눈이 아파 못나가게 되어 동료직원의 성화에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제 앞 자리에 앉은 학생이 마주보는 사

람끼리 파트너를 정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앞에 앉은 학생의 얼굴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꼭 숙인채 차 한잔을 한후 헤어졌습니다.

그날의 인연을 계기로 그 파트너가 오늘의 평생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때 제가 아주 순박하고 수수한 모습이 그의 뇌리에 찍 인상 깊었다더군요.

저의 직장생활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지요?

이제 세월이 흘러 88년 올해에는 저도 어엿한 학부형이 된답니다. 또한 87년도 인구동태 특별조사 조사원 채용시 조사구의 아주머니를 추천해 주었더니 직접 조사를 하여 보고는 추천해준 저의 체면을 봐서 잘못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씌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홍보활동까지 겸하여 경상 조사업무에 보탬이 되게 하였습니다.

조사업무중에 유산경력까지 질문하여 불용가구가 몇가구 있었는데 같이 그 가구에 가서 설득에 협조를 해주어 저로 하여금 주민들과의 담을 허물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사원 생활이 전부 힘든 일만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조사가 추가되면서 칠성동에 있는 새동네 아파트 조사구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아파트의 특성은 시장부근이라 상업하는 가구가 많아 가구원 부재중인 가구가 대다수여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은 개인 사생활이 침해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외판원들의 성화에 시달려 온터라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소극적이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모든일이 자기 뜻한바대로 되는것이 아니듯이 자신만만하고 잘 할

수 있다는 굳은 마음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현관문을 채 열지도 않은 채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지만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설득을 하다보니 거의 조사가 가능케 되었는데 특히 심하게 불응하는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수차 벨을 누르고 기다려도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계속 벨을 눌렀더니 안에서 “누구세요”하였습니다.

“저 경제기획원에서 왔습니다.”하니

“지금 바빠요 바빠.”하더군요.

저는 “아주머니 잠깐이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벨을 한번 더 눌렀더니 조금전에 들려오던 목소리의 주인공 아주머니가 나오더군요.

“이제 됐구나.”하는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갑자기 떡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떡살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호흡을 가다듬고 그사람의 손을 떼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례품으로 양말이 나와 “아줌마, 양말 전해드릴려고요.”하면서 양말을 내밀었더니 “필요 없어요.”하고는 “바쁜데 별개 다와서 야단이야.”하더군요.

여러분 만약 이 일이 업무중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라면 전 그자리에서 한마디의 말로 쏘아부치고 그자리를 돌아서 나와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어디 저 개인의 일입니까? 조사원의 일이요 나아가 국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한것과 같이 조사원의 자신감, 보람, 그것들이 언젠가 저를 찾아 지금의 어려운 댓가가 분명 나에게 오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것을 참을수가 있었습니다.

사례품을 받느니 안받느니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아랫층 윗층에서 아주머니들께서 나오시더군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니 부끄럽고 비참하여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군요.

아랫층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 차한잔을 끓여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와는 다른 따뜻한 인정에 눈물을 거둘수 있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시며 섭섭하고 분한마음을 달래고 조사표 가방을 메고 나오면서 “짹하고 해뜰날 돌아오겠지”하는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며 그가구의 구성원을 보니까 할머니 되시는분이 박 차규 씨였습니다.

관할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할머니의 호적을 보니까 본관이 저와 같았습니다. “아! 되었구나!!” 생각을 하며 그 불응가구를 재방문 하였습니다.

마침 할머니께서 대문을 열어주셔서 할머니와 몇마디 이야기 끝에 할머니의 본관이 어디냐고 여쭙었더니 순천 박가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본관이 같군요 하니 할머니께서 “아이구 일가이구나.”하시면서 제가 하는 조사업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심한 불응은 친척으로써 완전히 해결되어 아주머니와도 친해져 하루는 가니 좋은 영양제라며 꿀과 인삼, 화분을 한통 주시면서 가져가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먹어서 좋은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친해짐과 동시에 나의 자신감과 보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88년도 표본교체라는 중요한 업무앞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적, 내적성장을 도모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사원이 하는일이 어려운 일인만큼 그 보람 또한 큰것이라 생각하기에 어떠한 어려움 앞에도 좌절일랑 하지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의 일들이 국가발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조사원의 고통은 어찌보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올때의 고통’과도 비유할 수 있는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책임있는 행동양식을 갖는데는 많은 진통과 고통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

일단 던진몸 흘러가는 세월은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이 길이 나의 길이라면 나를 이기는 길이 나의 발전이 되고 나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 된다는 것은 상기시키면서 나의 조국 경제발전에 밀거름이 되리라는 굳은 신념으로 오늘도 이길을 보람으로 믿고 묵묵히 가렵니다.

항상 모나리자의 미소를 상기시키면서……

## 통계조사와 나의과거, 미래

충남 통계사무소 민 재 흥

88년 새봄을 맞이하는 삼월의 문턱에서 통계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 충남사무소에서 근무한지도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통계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시작된 사회생활의 시초가 통계였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통계조사에 임해왔지만 4년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지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통계조사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조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생각하며 지난 시간의 통계조사에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계조사 담당자 자신이 통계에 대한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처에서 새로운 소재가 다양하게 개발되는 시대이므로 조사대상처에서 응답한 자료가 통계조사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요구될때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자료가 주어진다해도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계조사가 국가의 경제정책에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국민이나 사업체에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통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사업체에서 통계에 대한 자료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계의 역할이 대단한 한 몫

을 차지하면서 사업체나 국민에게 어떻게 통계가 작성되고 어떻게 이용 되어지는가를 홍보하고, 통계는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국가 및 국민 또한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의 통계라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셋째, 통계조사원은 통계조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과 달리 왜곡되지 않았을까? 하는 국민 또는 다수의 사업체들로부터 통계가 불신받는것을 느끼면 조사원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통계가 왜 불신받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과 함께 그동안 열심히 뛰어온 지난 시간들이 후회스럽기도, 통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사한 통계가 국민 또는 다수의 사업체들로부터 불신받는 통계가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과 통계조사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국민 또는 다수의 사업체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통계, 신뢰받는 통계가 되리라 믿읍니다.

지금 현재의 이시간에서 지난날 저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통계조사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 했었는가? 통계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성을 발휘하였는가? 지난 4년동안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였던가? 지금 이시간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일이 없읍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통계조사를 위해 내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만 국민과, 사업체로 부터 믿을 수 있는 통계, 신뢰받는 통계

가 될 것인가를 반성과 다짐하면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가 있는 날이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각 가구를 방문하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 방문가구는 조사지역에서 외딴곳에 떨어진 가구였고 가구주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방문했던 그날도 음주를 하셨습니다. 전에도 제시했던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안녕하세요? 경제기획원에서 매월 인구조사하는 사람입니다.”하고 말씀드렸더니 “경제기획원요? 왜 우리집만 인구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 전체에 대하여 인구조사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누구기에 여기까지 와서 조사 합니까?” 하셨습니다. 저는 조사하는 가구의 가구주 성함을 말씀드리고 인구조사는 표본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경인요도를 펴보이면서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계시던 아저씨는 “당신 아무래도 수상한 사람이니 파출소로 갑시다.”하시면서 제 팔을잡고 파출소로 가자는 것입니다. 통계조사를 하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불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저씨, 인구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수상한 사람이냐구요? 매월 몇 차례씩 방문하면서 인구조사하는 사람에게 수상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하면서 팔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저씨는 막무가내로 “쓸데없는 말은 하지말고 일단 파출소로 갑시다”하시면서 팔을 잡고 파출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제자신이 생각해보아도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아저씨와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제 신분을 확인시켜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파출소에서 신분증을 내 보이고 제가 조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야 경찰관 아저씨의 덕분으로 제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를 이해시킨 뒤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를 마치고

옵니다만, 그래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제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지않았나 생각하면서, 도시 보다는 농촌 지역에 통계조사의 중요성과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것을 다짐하면서 발걸음을 들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으로 볼때 더많은 홍보활동과 조사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통계조사에 있어서 저뿐만이 아닌 여러분께서도 저보다도 더한 큰 경험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미래에는 통계조사에 성실한 마음으로 사회와 국민을 위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국민의 마음으로 알고 통계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의 기쁨

강원 통계사무소 현 경 옥

남(南)으로부터 개나리 봄소식이 전해오는 새봄의 문턱에서 잠시 뒤 돌아보는 금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포근하고 청명한 날들이 많아 가구를 방문하는 저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겨울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만 9년 동안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생활해온 강원 통계사무소의 현 경옥이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처음 입사할 당시 내성적이고 활달하지 못한 성격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대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이르면 내 성격상 지탱할 수 있을 것이며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에 쌓였고 생활영역에 부딪치는 환경의 변화란 죽을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 이것을 타개하는데는 뼈를 깎는 인내의 자기싸움 또한 타인과의 접촉보다 백배 천배 감내하기가 어려웠으며 오랫동안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제 자신을 바라볼 때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변신한 제 모습은 아마도 시간의 징이 다듬은 보람된 제 자신의 자랑스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배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와 있고 실지조사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 모두는 누구보다도 통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국민의 통계에 대한 인식은 정부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와 별반 달라짐이 없음을 느낄때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복잡 다원해지고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희가 조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인간관계를 요구할 뿐만아니라 또한 단순한 사고력 만으로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통계업무 인지라 이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가구를 방문했을때나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대상가구의 특성과 응답 가구원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일 처리능력의 지혜가 극도로 필요한, 그야말로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을 재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면 또다른 면에서는 이 자리가 최소한의 국가를 위한 유익하고 필요한 밑거름의 일부이나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통계인의 길을 걷게된 제 자신에게도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때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간이 짧은 길든 직급이 높은 낮은 우리 누구나가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을 체험 하였을 것입니다.

통계국에 근무 하기전에는 저도 사실 경제기획원이 주관이되어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한다는 것도 전혀 잘 몰랐었으며 사실 지금 이 시각에도 경제기획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통계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때마다 조사를 하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옛말에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통계를 이해하려는 국민들 마음가지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될때 통계에 대한 적극적인 흥

보의 부족함과 아울러 통계에대한 국민적 계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통계자료수집에 열심히 일해온 저희들로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낄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반성도 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집해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통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무장도 탄탄히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9년동안 실사현장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사례 한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동태 변동조사를 위해 구멍가게와 하숙을 함께 하는 가구를 방문했을때의 일입니다. 인구동태조사의 취지와 용도등을 소상히 설명한후 본조사에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입해온 하숙생의 인적사항을 차근차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숙집 아주머니께서는 대담대신 “왜 자꾸 다니며 귀찮게 구느냐? 한번 해 주었으면 됐지 남의 식구 비밀과 가정사정을 물어 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꾸 이런 조사를 하러 나오면 하숙하는 사람들이 하숙을 옮긴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리 본조사의 목적과 비밀유지에 대한 통계법을 설명하고 설득하여도 벽이 구별없이 문이었고 먹고사는 것이 너무나 벽차다는 이유로 자기와 조사용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핑계삼아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주머니가 너무 답답하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침 하숙생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질의 응답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젊었고 배운사람 같다는 느낌에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

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또다시 본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열심히 설명한 후 아주머니를 설득해 달라는 무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를 더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전엔 공무원이었는데 그런거 뭐가 그리 중요해서 대충 해가면 되지 무엇하러 싫다는데 좋은 소리 못들어 가며 고생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동정아닌 동정으로 그 사람은 일언지하에 말문을 막아 버렸고 안간힘을 썼던 저는 싸울래야 싸울힘이 없어졌고 닭 쫓던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꼭 하고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돌아서서는 않된다는 마음의 소리가 저 밑바닥에서 부터 솟구쳐, 아저씨! “공무원이셨던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주머니가 조사안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탓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세금으로 많은 인력을 쓰는 나라에서 대충 일 하라고 조사하는 우리를 두었겠느냐”고 말입니다. 사회란 복잡한 각양각색의 개성이 모인 집단이라 그러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선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오히려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것을 묵도하고 보면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차원의 대책이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길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의 재방문은 정말로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또다른 가구에서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열심히 대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있다. 되돌아 오기도 하고 웃으며 “또 왔어요”를 몇번씩 되풀이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퇴근길 이었습니다. 뜻밖의 아줌마는 “참 대단한 아가씨유 내가

졌수”하는것이 아닙니까. 무언가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환호의 소리가 컷가에 아득히 들려온 것입니다. 순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 귀절이 닫힌 가슴을 활짝 열리도록 마음을 쫓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일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든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개인의 영달과 이해에 얽힌 그런 조직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나라전체의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다면 얼마간 굴욕적인 언행과 인격적인 모독에도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대승적 견지로 생각한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하늘에 먹구름이 끼여도 그 뒤엔 무한히 빛을 발하는 태양이 있는것처럼 말입니다. 구름을 뚫고 새어나오는 한줄기 빛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와 우리가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료가 수집될때 그 얼마나 큰 우리의 기쁨이겠습니까? 기쁨과 보람이란 멀리있지 않는 자기가 많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그 근본뜻이 전달되어 굳게 닫혔던 이해의 벽도 허물어져 반사의 빛이 우리의 가슴으로 비칠때 삶의 보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더 큰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작 은 정 성

서울 북부출장소 김 기 현

매섭게 눈보라치던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컷가를 스치는 바람이 제법 싱그럽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정녕 봄은 멀지 않았나 생각되는군요.

일년전 고도 부여에서 전국 통계가족을 만나본후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일년은 어느때 보다도 사회적인 변화가 심했던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학원소요, 호헌과 개헌의 공방, 6.29 선언, 노사분규, 대통령 직선, KAL기 폭파 등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밀어닥쳐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였읍니다만 사회가 혼란하더라도 한시라도 중단될 수 없는것이 우리의 일이라 전국의 통계인 여러분들이 어느때 보다도 어렵게 일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민주화된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속에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려면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체험한 사례 한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 지금까지 협조가 잘 이루어지던 S합섬을 방문하니 공장의 생산직 종업원만 일을 할뿐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사무직원은 어디 갔느냐고 물어도 무조건 모른다고만 대답할 뿐이어서 재방문을 하기로 하고 다음날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생산직마저 없이 텅비어 있었습니다. 인근에 물어 보아도 어디로 이사했는데 이사간 곳을 모른다는 대답만 듣고 동사무

소의 담당자에게 사장집 전화번호를 알아서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도 공장이 경기도 양주군으로 이사간 것은 알아도 주소나 전화번호는 사장  
님이 돌아와야만 안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사장님이 오시냐니까 언제 집에  
들릴지도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해 달라고 번호를 알려  
줬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 의정부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  
인해 보니 며칠전 날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엔 주  
소만 있을뿐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S  
합섬을 찾아 나섰습니다. 초행길이라 네시간을 헤맨 끝에 공장사무실을 찾아  
들어서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장도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올  
수도 없어서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니 한시간여 지나서 담당과의 부장이 들  
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힘들게 찾아왔으니 바로 조사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부장은 사장의 허락이 떨어  
지지 전에는 자료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하던 조사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냐고 물어도 좌우간 사장에게 모든것을 밀기만 하  
며 응답을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은 사무실 귀청시간 때문에 허탕을 치고 오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장결재가 나자마자 또 그회사로 직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사장은 부  
재중이었습니다. 행선지를 물으니 “서울에 가셨는데 저녁때나 돌아오신다”  
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째 방문에서 간신히 사장을 만날수 있었습니다. 사장  
은 다짜고짜로 왜 이 먼데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이나 힘들여 찾아온 사람에게 대하는게 꽤 씹힌 생각이 들어 나도 모  
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언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장은 남의 회사에 와서  
시끄럽게 굴지말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가면 이 회사는 앞

으로 무슨 조사를 해도 애를 먹일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가리라 마음먹고 감정을 가다듬고 대화를 유도 했습니다. 사장의 말을 들으니 회사의 사정상 사장의 감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서울의 공장이 공해업소로 철거명령을 받았는데 주변에 다른 업체는 봄까지 철거를 연장해 주면서 그 회사는 바로 철거를 하라고하여 서울근교를 다니며 공장을 어렵게 물색하여 관공서에 찾아가서 설립신고를 하려고하면 몇번이나 트집을 잡아서 설립인가를 미루는 바람에 이전이 늦어지고 물건납품에 지장을 많이 받아서 관공서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달라니 같은 관공서라고 직원들에게 응답을 못해주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차분하게 기획원자료의 작성과정과 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였더니 결국은 승락을 받았습니다. 승락을 하며 사장이 하는말이 경제기획원 사람들은 단정하고 매너가 깨끗하여 대답해주는거지 다른기관 같으면 앞으로도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조사상 가끔은 일어날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 높아가는 시민의 민주화 의식속에서 우리도 통계 자료를 수집하려면 우리의 의식수준도 관청에서 하는 일이니 무조건적인 의무감 때문에 조사표를 작성해준다는 방법보다는 회사 담당자와 우리의 관계가 보다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어 조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려면 우리도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대화기법도 세련된 언어구사에 힘써야 하며 통계의 기초지식 정도는 담당자에게 설명을 할줄 알아야 하며 작은일에서 부터 성심성의껏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 통계조사의 보람과 긍지

경기 통계사무소 유 미 영

조사구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가구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응하는 가구의 유형을 보면 통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통계자료를 불신하며 사생활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응하는 가구에서 하는 질문은 ‘왜 이런 조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통계자료가 무슨 쓸모가 있으며 과연 이 통계수치가 맞느냐, 그리고 국가에서 나에게 뭘 해 주었느냐’는 등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때면 저는 최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게 먼저 우리 통계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왜 응답자의 의견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며 응답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응답자의 현실 생활은 물론 우리 사회현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으며 통계조사 결과가 국민의 생활개선과 사회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케네디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 얼굴이 무색할 정도로 불응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통계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조사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입니다. 한 가구에서 “아가씨 여기는 우리 집이야, 대문 안에 발도 들여 놓지마. 차라리 거지라면 동전이나 쥐서 돌려 보냈으면 좋겠어”라는 말

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수치, 모욕감에 눈앞이 캄캄하고 걸을수도 없더군요. 거지라면 동전이나 주다니요. 수원 사람 ‘별거벗고 삼십리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독한 깡쟁이란 뜻입니다. 저도 수원에서 나서 자랐지만 이렇게 지독하고 몰상식한 사람 처음 보았습니다. 그 사람 너무 했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만 했으며, 나는 왜 그런 말을 들어야만 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 모욕, 수모, 수줍음 잘 타고 무지한 저에게 유능한 조사원이 되라는 채찍의 말이라 생각하며 지금도 조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석수동 도시가계조사 지역에 한 가구가 이사왔습니다. 그 가구는 아들과 어머니, 두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게부를 쓸 수 없었고 아들을 만나 가게부 기입을 부탁해야 하는데 제가 퇴근 후에 그 집을 방문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의 직장을 찾아가서 가게부 기입을 부탁 하던터니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가게부 놓고 가세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지더군요.

며칠후 잘 쓰고 있나 확인을 나갔더니 그의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게부를 직장에 가지고 가서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다음 달에 가게부 회수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 날 제가 받은 가게부는 빈 가게부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직장을 찾아가졌습니다. 몇 차례 찾아가지만 저를 피하고 만나주질 않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남자가 무슨 가게부를 써요. 미안해요.”하면서 번번이 끊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생활신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인데 이런다고 포기합니까?

이번에는 하는 수 없이 눈코뜰새 없이 바쁘신 우리 남자직원에게 남자 : 남자로 설득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효과가 나타나더군요. “남자분과 아가씨 끈기에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 집 가계부는 현금잔고까지 일치하는 정확한 가계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계부 받아 볼때면 정말 기분 뿌듯합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통계자료가 각계 각층에서 신뢰받고 널리 이용되며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때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끝으로 통계조사를 맡고 있는 우리 조사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소신껏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부산 통계사무소 김 봉 원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예향의 본고장 충청도하고도 속리산 기슭에 자리잡은 법주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통계 동지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전국 명성지 중에서도 국립공원 관광지로서 더욱 알려진 이곳에 종합교육을 유치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조사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 400 여 통계동지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고 어려웠던 한해를 조용히 보내고 용이 응비하듯 희망찬 대망의 무진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보통 사람들의 시대”인 제6공화국이 장엄하고 웅대하게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세계의 여론과 국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다가올 2000 년대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의 주도국으로서 발돋움할 기틀을 다지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써 출발 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우리의 정신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이번 교육이 무척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동지여러분!

작년 우리의 경제는 전세계의 여론과 정치·경제강대국들이 두려운 눈

으로 주시할만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수출 472억불, 경상수지흑자 98억불, 1인당 GNP 2,850\$, 경제성장을 12%등의 경이적인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꼭 광공업사업체의 생산근로자만의 힘, 탁월한 경영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발전지향적이고,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최일선 Field에서 각 통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정리한 우리동지 여러분의 노고도 또한 대단한 기여를 하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계동지 여러분!

Field에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한 두번씩 겪어보지 못한 분이 있겠습니까? 경력이나 능력면에서 장장하신 선배님들 앞에서 경험담이나 조사방법을 얘기 한다는게 쑥스럽습니다만 그간 소직이 조사현장에서 경험한 체험담 중의 한예를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바닷가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신규 사업체 H회사인데 관리직원 3~4명, 생산직원 40여명되는 중소기업체였습니다. 가공어패류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85년 부터 소급조사”실사였지요. 기존조사업체들도 소급조사라면 인상이 험악해지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처음 방문하여 사장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공문과 조사표를 내놓았습니다. 한 50세되어 보이는 사장님이신데 처음 대하는 순간 외적으로 풍기는 감정이 좀 짜졌구나, 조사를 하는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더욱더 자세를 가다듬고 본조사의 취지 목적과 그리고

경제·통계의 상식등을 한참 열심히 설명하고 나니 한마디로 잘라, 아니나 다를까

“이거 뭐할라꼬 하요 ”

“이거 해준다고 돈(용자)을 주요, 밥을 주요, 무슨 혜택이 있소”. “시간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요”.

“미끈하게 생긴 젊은이가 참 할일 없는가 보다” 등등 인간이하의 모욕에 재삼 기억조차도 싫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욕에 하도 분해서 마음속으로 울먹이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조용히 돌려 바로앞 푸른 파도가 말없이 넘실거리는 방파제에 올라 앉아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한참동안 파도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내가 세무서 직원으로서, 아니 시청 식품위생과 직원으로서 갔다면... 이런 모욕은.....

정말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못난 자식, 억울하고 분하면 출세해라. 아니야 현재 처해진 현실이다. 그래 좋다.

저 사장과 이 업무로 싸워서 이기면 통계밥을 먹고, 여기서 좌절하면 끝장이다하고 입술을 다시 깨물고 새로운 다짐을 하였지요.

그 다음날 통계법을 들고 갔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그냥 외출을 가버리더군요. 직원께 말씀드렸더니 사장님만 알고있다고 하면서 마치 의논이나 한것같이 일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통계법이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이후로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갔지만 사장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여섯째 가던날 칠전팔

기라 오늘은 무슨 결판을 내자하고 퇴근 하자마자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모퉁이 구멍가게에서 맥주 2 병을 사가지고 갔지요. 최후의 카드였지요. 썩어가는 고기 비린내가 물씬거리고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처리장을 지나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갔더니 마침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사장님! 경제기획원 직원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잠시 시간좀 내어 주십시오. “또 통계요”, “예, 세무조사가 아니라 통계조사입니다”. “얘기할게 없소” 하시면서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또 자초지종 통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실득을 하였지요. “사장님! 인간적으로 제가 사장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어 보십시오” 잠시 있으니 사장님께서 “내가 없는 사이 몇번 왔다간 모양이더군.” “예! 시간이 없어서……”.

“젊은친구 정신자세가 좋소.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내가 통계를 모르는게 아니요.” 이때 사갔던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못된 공무원 때문에 회사가 타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니 세상에 믿을 사람없다는등 푸념을 털어놓으시더니 차분한 어조로 “현재 사무실에 ‘85년부터 자료가 없으니 내일 회계사무소에 직원을 보내 준비해 들테니 한번 더 들려주세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경리아가씨를 부르더니 “제품창고에 가서 제품포장 잘해서 김주사 줘요.” 아무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각종 통계조사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없고 강력한 구속력이 없음을 알고 어떤 못된 담당자 사업주께서는 이를 역이용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다는 사례도 지나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각계각층의 올바른 통계의 인식,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통계조사란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불어도 주어진 업무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전천후 사나이들이 바로 통계동지 여러분이 아닙니까?

어떤 선배 한분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 주더군요.

봐라 친구야!

자네나 나나 대재벌의 총수처럼 세상에 돈으로서 명성을 떨치기도 틀렸고 유명한 정치가나 저명인사처럼 선택된 인물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틀렸지 않느냐. 그럼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자꾸나.

존경하는 선배님, 동지여러분!

공무원으로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군으로서 오직 인내와 패기를 가지고 묵묵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빛이 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끝으로 통계동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 나의 체험

서울 동부출장소 장 정 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장 정란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이하 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험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앞으로의 저의 조사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도 역시 조사업무를 시작할지 올해로서 꼭 십년이 되었나봅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동안 우리의 처우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우리의 업무도 많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나름대로 몇번씩 체험하신 일들이지만 그중 저로서 가장 잊을수 없었던일 몇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조사원으로 발령 받은지 몇개월만인 78년초에 시작했던 국부통계조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담당했던 용산구 효창동은 부촌으로 불용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가운데 다이아반지 몇부짜리인가에서 부터 손가락이 몇개인가에 이르는 국부통계 조사는 조사하는 저와 응답자를 질리게 했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수차례에 걸친 재방문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 한가구는 아주 속을 썩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은 동사무소와 연락없이는 발을 붙일 수도 없는 곳이었고 다행히 동사무소의 통담당은 많은 경력과 오랜경험으로 매우 협조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는 아주 그분에게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날도 동사무소를 찾아 그분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한 후 그분이 약속해 놓은 시간에 다시 찾아간 시간은 오후 8시가 지

나서였고 어렵게 가정부의 안내로 거실에 안내된 저는 그 집안의 분위기에 놀려 앉지도 서지도 못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친구는 저와 조사원 동기생으로 어려운 조사에 서로 힘이 되어주었던 지금은 서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신 복임입니다. 한참을 기다려 나타난 마나님은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얼굴엔 콜드크림으로 번질번질하게 맞사지한 모습의 불상 사나운 모습이었으나 이렇게라도 조사에 응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으로 어렵게 어렵게 한참을 조사하고 있을 때 친구도 아마 그 집안의 분위기에 한껏 위축이 되어 있었는지 손가락이 몇개인가 묻는 나의 물음에 화가나서 갑자기 소리지르며 일어나는 마나님과 함께 같이 소리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십이 갖님은 어리고 여린 마음에 잔뜩 주눅까지 들어 있는데 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해 3 월은 겨울못지 않게 몸도 마음도 추웠습니다.

어서 3 월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다면 조사원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 집을 나서서 우리는 이미 갇갇해진 어둠속에서 하얀이를 드러내고 소리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지르며 키득거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조사원 생활 십여년이 지난 지금은 꼭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계부 하느라고 며칠 출장 못나가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쭈시고 근질 근질하지요? 적성에 잘 맞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요즈음은 강남구 역삼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3 층짜리 연립주택으로써 1 동이 열두가구로 6 구역 2 동이 또한 열두가구로 7 구역입니다. 그중 7 구역의 한가구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택은 처음 분양받은 가구로 그 연립주택의 터주대감이며 가구주 처는 반장일을 보고 있고 가구주

는 개인회사 회사원이며 딸과 아들을 두고 있는 사십대 후반의 중년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인구조사 조차도 불응합니다. 불응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유가 많은데 이 아주머니는 꼬치 꼬치 캐물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아무튼 벨을 눌러 제 목소리가 확인되면 문도 열어주지 않을뿐 아니라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그 가구에 오는 손님, 물론 손님은 친정 여동생이나 남동생 친정어머니 정도인데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혼란을 잘 시켜놓았는지 경제기획원에서 인구조사 왔습니다”라는 소리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느날 수위 아저씨 말썽이 반상회를 했다며 저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장 아주머니가 화가 몹시 났다는 거지요. 이유는 202호 아주머니네 이름이 적힌 종이를 제가 찢어서 계단에 뿌려 놓았다는 거지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역삼동에 취업시간표를 배부했었고 202호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깐 꼭 좀 써달라는 인사말과 함께 그집 우편함에 넣어 두었던 취업시간표를 동네아이들이 찢고 장난질을 친것입니다. 저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배부한 조사표를 제가 찢어서 계단에 뿌려놓았다며 반상회에서 반장으로써 저의 출입을 제제하는 그 가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걸음에 202호로 달려가서 벨을 눌러 경제기획원에서 인구조사 하는 저임을 밝혔으나 대답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조사는 그만두고 아주머니를 꼭좀 만나서 할 말이 있으며 아주머니도 제게 할 말이 있을게 아니냐고 문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제게 할 말이 있었던지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생각같아선 내가 취업시간표 찢어버린걸 봤느냐! 증거를 대라! 왜 알지도 못하고 반상회에서까지 헛소리를 하느냐! 도대체 당신 뭐하는 여자

나!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인구조사에 한번이라도 성의있는 대답은 커녕 문이라도 열어준 적 있느냐며 신경질을 부리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는데는 우리 조사원들은 이력이 나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응으로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한번보고 안볼 사람이라도 나중을 봐서 그러지 못하는 법인데 싫어도 내일 또 봐야할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두들겨도 꼭 잠겼던 현관이 활짝 열린김에 잘 하지 못하는 언변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한애기를 또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협조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배부중이던 온도계를 드렸습니다. 답례품 덕분인지 그 아주머니에게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겹언쩍어하며 도장을 건네주던 202호 반장 아주머니! 지금은 조사구의 쌀집에서 만나도 먼저 인사를 건네오고 가깝게 지내던 연립주택의 몇몇가구에서 하시는 말씀이 202호 반장 아주머니가 요즘은 제가 하는 통계조사에 협조를 부탁하기까지 한다고 하는걸 보면 마음도 활짝 열렸지만 답례품도 축진제의 역할을 단단히 한몫 한것이 아닐런지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해 제게도 정겨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만 불교신자인 어떤 아주머니는 집에오는 손님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며 꼭 무엇이든지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는가 하면 또 어떤 아주머니는 제가 둘째딸을 낳은 후 방문했더니 애기 낳은사람 그냥 보내면 지붕에서 까치가 운다며 한사코 사양하는 제게 고마운 대접을 베푸시곤 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몇개월 지나지 않아 조사구가 전면 교체되니 그동안 정들었던 분들과 헤어지게 되어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사구에서 보다 새롭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에 임할 때 마다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을 하지만 응답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불응 앞에서 우리의 결심은 산산조각이 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란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조사자와 응답자 사이에 두터운 신뢰로 거짓없는 응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라고 싶은것은 보다 좋은 통계를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진정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통계요원 모두 각자 맡은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더욱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통계 수집현장을 달리면서

경북 통계사무소 유 연 창

오늘 이자리에서 국장님을 위시하여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통계조사요원들이 1년에 한번이지만 이렇게 시설이 좋은 여건속에서 종합교육이라는 자리를 같이 하게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경험이라할까 소감을 발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973년 11월 1일자로 조사통계국과 인연을 맺어 경북 청송에서 조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임시직으로 일정한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근무하면서 1개월에 2회 정도 도청사무소에 조사표를 제출하면 업무가 끝났습니다만, 1979년 부터는 복무위탁이 되어 명실상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통계란 실상보다 허상이 많은게 사실이었던것 같습니다. 통계생산의 현장을 달리는 본인이나 행정당국 통계담당자들의 인식이 힘이 없는 자리, 잠시 머무는 자리, 과중된 업무에 비해 인기없는 자리가 통계업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통계를 계승발전 시키기는 커녕 그 자리를 떠나려는 심정들뿐인 과중에서 어떠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시지역은 남자직원들께서 경제활동 인구 동태조사를 많이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주재지역 군부에 계시는 동료들께서는 거의다 경제활동, 인구동태조사를 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경제활동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표본이 경북 북부지역의  $\frac{1}{3}$ 에 해당하는 많은 가구가 선정이 되어 출생, 사망, 전출입, 가임여성포착등 변동상태를 파악하

기란 말할 수 없는 고충이 따랐지만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구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었고 진실과 성실로 열의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고 어떤때에는 상담자가 되어주고 생활의 설계자도 되어 대화를 하면 우리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광공업동태조사도 지방에는 광산들이 첩첩산골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편은 1일 1회 밖에 운행하지 않고 심지어는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 대상처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언젠가 예비실사 대상사업체가 청송군 부남면 이현동에 위치한 고령토광산으로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체가 위치한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부남면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부남면에서 16 km되는데, 교통편이 불편하여 하루한번 운행하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일찍 차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각오를 하고 걸어서 현장을 답사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남면에 버스로 도착하여 따가운 가을빛을 받으며 초행인 오솔길을 따라 걷기를 5시간, 오후 2시경 작업현장에 다달았습니다. 그곳은 비탈진 산계곡 암벽이 튀어나온 깊은 골짜기 였습니다. 거기에는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현장책임자 1명과 인부 3사람이 작업에 임하고 있었는데 나의 시야에 들어온 그 작업은 진실된 삶의 모습들로 가득찬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발파작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바위에 구멍을 뚫는데 정을 권 현장책임자의 얼굴에는 햄머로 내려쳐지는 충격으로 인한 돌파편으로 뿔방울로 얼룩져 있었고 정을 쥐고있는 찢어진 장갑속의 손아귀는 뼈알간 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그토록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광맥을 꼭 찾고야 말겠다는 한 인간의

굳은 의지가 이제까지 안일한 삶으로만 져어있던 저의 뇌리에 영원히 잊혀질래야 잊을 수 없는 숭고한 생의 현장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길을 어떻게 걸어서 오셨느냐는 인사와 함께 사양하는 저를 앞세워 임시로 마련한 움집에서의 인정어린 국수 한 사발은 이제까지의 피로와 시장끼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진리와 보람을 찾기위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신념어린 현장책임자의 눈빛속에 참된 삶이란 정녕 쉽게만 이루어질수 없다는 강한 철학을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적을 설명하고 쾌히 응답해준 그 책임자의 배웅을 뒤로하고 산길을 내려오던 그날의 늦은 오후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조사에 어려움이 따를때마다 꼭 성취하고자 말겠다는 집념에 가득찬 현장책임자의 강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1980년 9월 1일 경북 포항시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한국 굴지의 철강산업이 주종을 이루고있는 이곳에서 철강이란 철자도 모르던 제가 부딪친 일은 생면부지의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통계조사원 팔년째 다시 신입직원과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부, 군부의 업무는 편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당시 맡은 업무는 광공업동태조사, 재고, 물가조사, 생산능력, 거의 생소한 것 뿐이었습니다. 동료직원들의 협조도 많았고 스스로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 모든일이 그렇듯이 열성과 성실로 이를 극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조사하고 있는 포항종합제철은 우리나라가 제철업국의 숙원이었던 것이며 현재 한울타리안에 36개 공장 38개 설비, 조강년 생산능력이 910만톤 원료 사용량 년 2464만톤 제품생산량이 년 789만톤의 막강한 강제를 생산공급 하여 국민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철강산업의 지표가 이 한 업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막

중한 임무를 수행함을 가슴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복무위탁이지만, 저희가 근무하는 사무실 또한 직원 6명에 최첨단을 달리는 온라인 시스템컴퓨터의 전산처리기능과 팩시밀러의 설치가 완비된 사무실로서 타기관의 부러움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통계의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에 대한 창조성을 발휘하고, 배전노력하는 자주성을 살려 운영을 하고 맡은바 역할을 다하여 자기개발과 상호개발에 의하여 능력을 신장하고, 이로써 활력있고 명량한 직장을 창조하여 충실한 인생을 꾸미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요원도 좀더 많은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고 상도 확대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보다 내실있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직장이라고 잡은것이 삶에 얽매이고 직장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일한 만큼 댓가를 바라는것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인 동시에 바램입니다. 사명감과 긍지로 이를 승화시키기엔 너무나 벽찬 일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계속 흐르듯이 이 교육이 끝나면 저마다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계수집생산 현장으로 갈것입니다. 많은 업무의 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광공업, 물가, 도소매, 가구표, 언제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신경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이래서 생산현장은 활기가 돌고 그리고 또 흐르는 물이 언젠가는 바다에 와닿듯이 우리 또한, 보람의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다함께 매진합시다.

## 용 해

전남 통계사무소 신 옥 례

제가 공직에 몸담은지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모가 난 부분이 닳고 닳아서 이제는 어지간히 큰 충격이 아니고서야 그것쯤이야 하는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인지 경험담을 원고로 작성해 불려고 하니 감격적이고 극적인 감정의 순간들이 아득하여 원고작성이 압담하였습니다. 우리 업무의 외적인 여건만 보여지는 타 부처에서는 자유롭고 편안한 직장이라고 보기도 한 모양입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언제 어떻게 부딪칠지 모르는 천태만상의 가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재료에 따라 요리방법이 다르듯이 상태에 따라 그 맥의 주어진 모든 여건에 따라 대화 방법이 달라야만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요원이 아닌 타 부처에서 한가지 일에 10여년을 종사했다면 우리는 전문인으로서 지금쯤 다른 사람들로 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전문인으로 인정받기 보다는 통계 전문요원이 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외적인 요인에서도 데모때문에 우리는 최루탄 가스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며 남자 직원은 사업체의 노사분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통계를 천직으로 알고 밤낮을 가리지않고 뛰었습니다. 그뒤에 국에서 질책이 아닌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에 그 고생도 살얼음 녹듯 하였던 일이 기억납니다. 천직은 처음부터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된게 아니라 몸담고 큰

무하다 보면 신념과 긍지가 생기게 되고 아! 이직업이 나에게 천직이려니 하고 느껴지더군요. 저 역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상가구 중에서 꽤나 괜찮은 층에 속하는 젊은 부부 중심 가구로서 남편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박사 코스를 밟는 중이었고 부인은 국민학교 교사로 가구표를 작성할때는 제 앞에서 남편이 우쭐대는 기분으로 대답해주시더니 가계부 얘기를 하려고 하니 부인에게 얘기하라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젊은사람답지 않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않고 불일이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역시 밖에 나가 어느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 다닐수도 없고 자기집에서도 모른체 하는데 낮 모르는 집에까지 따라다니며 설득시킨다는것도 어불성설이고 하여튼 화가 치밀더군요.

얘기를 해봐야만 요리를 해보겠는데 막무가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그날도 허탈감에 젖어 돌아왔습니다. 그뒤 토요일 오후 퇴근길에 다시 들렀더니 그 부인의 동생이라는 분이 와있었습니다. 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조사구에서 가까운 병원인지라 그길로 바로 위로의 병문안을 가보았습니다. 부인은 저를 보는순간 의외라는 듯이 아주 놀랜 표정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몸이 어떠냐는등의 얼른 위로의 말을 꺼내면서 이런 저런 주위의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맛벌이 부부의 애로점등을 얘기하는도중 하소연도 들어주고 맛장구도 쳐주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보니 밖은 벌써 어둑해졌습니다. 그날 그 부인을 뒤로하고 병원의 문을 나오면서 내 마음은 한 마리의 새로 날고픈 심정이었습니다. 그후 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계시니 방문 할때마다 만날수 있고 가계부도 지금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듯이 그 부인 역시 제

가 친언니라도 된듯이 반가워하며 차도 마시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간접 정보제공도 받아 일거양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층의 상대방을 만나든지 신뢰받을 수 있는 자세로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또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을때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것을 모두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분명한것은 통계조사에 협조를 잘해주지 않은 분들이 통계를 불신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뻔들거리는 젊은층을 대할때마다 “통계는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낼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상대방에게 주시키고 설득을 하면 십중팔구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세일즈맨(외판)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설득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까지는 무척이나 힘이든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는 물건을 돈을내고 사라는것도 아니요 신분상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원만 만날수 있다면 부딪쳐서 못할게 없다는 신념을 갖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때 통계의 생명인 신속,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 여건하에서 불평 불만 보다는 모든것을 수용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앞장설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식과 교양의 폭을 넓혀 자신감이 넘치는 통계 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현 시점에서

경남 출장소 진 영 철

숫자라고 한다면 1 2 3 4 라고 말할 것이나, 숫자라는 말을 차원 높게 보면 이 우주만상 만물이 숫자로 형성 되었고 숫자로 살아가고 숫자로 주고 받으며 끝없는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속적인 변화속에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유형과 무형의 진리를 탐구하고 다듬고 가꾸며 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이용도에 따라 숫자를 다스려 모은 것이 통계라고 본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의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마음의 자세는 이러한 사실등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문제는 통계조사에 임하는 우리들이 먼저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성인의 말에 숫자는 살아있는 철학이요 진리라는 말이 생각난다. 진정 인간과 떠날수 없는 숫자는 진리요 철학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도 숫자 부터요, 하나의 돌과 한날의 흙으로 부터 뭉쳐진 것이 태산이다. 이렇게 볼때 진정 숫자 아니고서는 성립되는게 없다.

이 모든 유형적인 좋은 결과치의 숫자는 그냥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해 지적 물적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무형적 숫자를 정립해야 된다. 가령 내가 “무엇을 해 보겠다”고 했을때 이것은 무형의 숫자를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정확도가 있는나가 문제다. 계산없는 환상과 상징적 목적을 위해 노력했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마음과 지혜에 있다고 보겠는데 이곳이 가장 중요한 숫자를 캐내고 생산하

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혼탁해 있을때는 무서운 결과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인데 가을이 온다고 계산했다면 모든일이 수포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통계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한가지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았을때 우리가 다루는 숫자상을 잘못 다스리면 아주 불행을 초래하고 잘만 다스리면 인간의 삶이 한층 편리하고 행복해질수 있다라고 보았을때 우리들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가를 가히 알 수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었던 한토막의 얘기를 소개 하고저 한다.

어느날 두형제가 집에 있던 말을 시장에 내다 팔고 노새를 한마리 구입했다. 그런데 이 노새가 말이 있던 마굿간에 들어가질 않을 양으로 앞발을 딱 버티고 아무리 당기고 밀어도 들어가질 않는다. 코를 벌름거리며 힘을 과시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식모가 왜 저 노새가 마굿간에 들어가질 않을까 하고 계산해 보았다. 그 노새는 필시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겠지 하고는 싱싱한 풀을 베어서 입 앞에 놓았다.

그랬더니 이 노새는 풀을 먹으려는 눈치이다. 이 순간 풀을 마굿간으로 가져가 노새로 하여금 스스로 걸어들어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것은 두 형제는 무작정 완력으로 그 노새를 마굿간으로 들여보내려 하고 그 집의 식모는 지혜로 그 노새로 하여금 스스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모든 사물에 순리성을 계산하면서 남의 소원도 풀어주고 나의 소원도 이루는 이 노새의 이야기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모두 맑은 지혜 밝은 지각으로 가정이나 직장 사회의 어디서나 뜻을 쓰기를 흐르는

물과 같이 하여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는 철학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어 우  
리가 처한 현 시점에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즉각 대처해 나가는 값진 숫자를 써 나갑시다.

## 후퇴 없는 전진

부산 통계사무소 이 정 숙

진주 조개가 수 많은 눈물의 결정체로 한알의 영롱한 진주알을 만들어 내듯이 “세계는 서울로, 한국은 세계로”라는 기적을 창조하는데 초석이 되는 국가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를, 사연 많은 조사 현장에서 수 많은 인고와 노력으로 산출하며 제공해 오신 우리 통계가족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무척 가슴 뿌듯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장님과 조사관리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성공한 미국 실업가가 사람만나는 일 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아마 우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껴왔을 겁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사구중에 한 조사 지역을 보면 처음 제가 이 조사구를 담당할 당시에는 조그마한 언덕들을 사이 사이에 두고 20여 가구 밖에 되지 않았고 비록 넉넉하지 못한 가게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한 잔의 보리차로 훈훈한 인정을 나누며 통계조사 업무에 적극 호응하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논과 밭이었던 자리에 판자집 대신 신축 양옥집들이 들어서면서 부터 가구수가 50여 가구로 늘어 났습니다.

신축 전입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게부 회수율은 저조해 가고 이런식으로 나가다간 큰일이다 싶더군요. 사무실 퇴근후 조사구 출근이 시작되는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통계조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진실한 대화 협조 아래에서 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판자집의 훈훈한 인간미 대신 싸늘한 양옥집 인심이 많아짐에 따라 조사하기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그 중 한 가구는 몇번을 방문 하였으나 싸늘한 인터폰을 타고 흘러 나오는 도도한 음성에 흔히 말하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곤 하였읍니다. 하는 수 없이 저녁 퇴근후 조사구내 통장 아저씨를 모시고 그집을 다시 방문 하였을때 굳게 잠겼던 대문은 열려졌고 마침 퇴근하여 집에 계신 가구주께 저의 신분을 밝히고 앞으로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렸더니 그분 역시 국가 모기관 고위 간부이시고 자신의 말단 시절을 얘기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고 부인에게도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당부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부인 역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임을 알았답니다. 이렇게 하여 차츰 무겁게 닫혔던 대문이 열려지고 돌아서는 저의 마음은 가진자 일수록,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조사 업무에도 거부 반응이 심하다는 상식적인 사실에 기쁨 보다 서글픔이 앞서더군요. 그러기를 몇달 지난 지금은 가계부 회수율도 상당히 좋아졌고 거부 불응하던 가구들도 이제는 차가운 겨울 날씨에 방문을 하면 따뜻한 커피 한잔을 권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통계자료가 현대 사회의 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날로 더해가면 갈수록 통계 담당하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의 고충은 더욱 늘어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통계 업무는 저희 조사원들의 인사성 밝고 훈훈한 대화로서만이 아니라 통계 및 경제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할 정도로 여러 다방면에서도 두루 실력을 갖춘 조사원이 되어야 갈수록 고학력자가 많아지고 사회의 이기적인 냉담도 통계의 필요성과 함께 비례해가는 현상이고 보면 각박한 현실속에서 메말라가는 국민들의 마음으로 부터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고 또한 정확하고 성의 있는 정보를 발표할 수 있

는 몇몇한 경제기획원의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물론 이거니와 국민들의 의무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때 일선에서 뛰는 저희 조사요원들의 밝은 미소와 함께 더욱 성의있는 자료를 제공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족한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통계인, 계속 발전하는 통계국이 되길 빌며 이만 끝맺고자 합니다.

## 마라톤의 출발선에서

경기 통계사무소 최 승 일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건방지고 엉뚱해서 몇 번을 망설이고 다시 쓰고 하다보니 구겨놓은 종이만 쓰레기통에 가득한데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우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해야 하는가 만을 거듭 생각하다가 결국은 ‘길가에 버려진 못생긴 돌맹이에도 뜻이 있다’ 했거늘 조사요원 생활 365일은 누가 그냥 덤으로 준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정리 못한 한해를 여기를 빌어 정리할까 합니다.

넘치는 의욕과 자신감으로, 뛰는 가슴을 다독거리며 많은 선수들과 함께 출발선을 박차며 뛰어나가던, 학창시절의 마라톤 경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반환점을 돌면서 더위와 갈증이 문제가 아닌, 시원한 그늘에 길게 눕고만 싶은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며 이를 악물고 풀려버린 다리를 한발한발 옮기면서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몽롱한 상태로 허우적거릴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아닌 끝까지 가야 한다는 오기와 투지만이 참뜻의 승리였음을 경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얼마가 지난 사회 생활 속에서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나는 완주했다는 자부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겐 비록 까마득히 등수밖의 경기였지만 자신에 대한 승리의 소산으로써 큰 교훈이 되어 생활의 밑거름이 되는것도 이즈음 느끼는 또 다른 새로운 승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뛰며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자신의 흔들리는 나약

함에서 벗어나고자 더 극성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은 결눈질 할 만큼도 못되는 이제 막 첫 뉘백이 신참이라서 그렇게 열심이라고 하시겠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제가 가야하는 머나먼 길에 첫 걸음이 된 큰 의미의 일보가 노력하는 한 해였다면 출발선의 선수의 마음가짐으로서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많은 선배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신참 시절에는 저보다 더 새로운 각오와 투지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셨고 또 오늘을 인내와 자부심으로 생활하심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때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야만했던 통계조사요원들의 울고 웃던 흔적들을 제가 또 느끼면서 오늘의 제가 되기까지도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한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것은 저는 이미 출발선을 밀쳐냈고 이왕에 뛰어든 이상 남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어렵게 뛰고싶지는 않습니다. 신참이고 처음이고를 떠나서 정말 타성에 젖기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사업체 담당자의 비양거린 말처럼 “공무원들은 창의성이 없고 매사가 두리몽실 일변도”라는 말에 ‘개 눈에는 무엇이 제일 잘 보이더냐’고 일축하기도 했지만 혹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하여 늘 마음을 씁니다.

물론 선배님들 말씀이 아니시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계라는 업무 자체의 인식부족과 서로의 견해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으로 본연의 위치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에는 현장 조사요원들이라면 더욱 더 뼈아프게 느껴야하는 우리들의 서글프고 속터지는 현실임을 생각할때 무엇이 궁지이고 무엇이 사명감을 잇은 채 허탈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릴때도 몇번인가를 보아야했

고 또 느껴야 했습니다. 한달이면 여러날을 12시가 다되어야 풀린 솜처럼 너털대며 집을 찾아야 했고 온 종일 화난모습을 감추어 두느라고 생긴 울화를 풀곳이 없어 마실 줄도 모르는 소주에 자주 발길이 갑니다.

가을이 한창일 때 인가요. 종업원이 20여 명되는 가구공장이 광공업 조사 대상 사업체로 선정이되어 서너 차례 방문을 했는데도 사장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소급조사 마감일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속타는게 이런거구나 싶은게 퇴근을 해도 도무지 편치가 않았습니다. 사업장까지 교통편이 하루 세 번 뿐이라서 전 날도 결국 일당을 고스란히 택시에 주고도 조사는 한줄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예 피하고 만나주질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사표 제출 마감일이 임박해서 이번에도 안 되면 아예 사장님집에라도 가서 자고 올 마음을 먹고 다른곳을 다돌고 해거름에 도착해보니 사장은 광주에 내려갔고 3일 후에나 온다고 나가달라는 겁니다. 어찌면 사무실안에 대여섯명 가운데 사장님이 있을 것 같기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막무가내 사장님욕을 했습니다. 저도 욕먹다가 화가나면 무슨 말이 있겠지하고요. 급기야는 공장직원하고 대판 샅대질을 하다보니 해는 완전히 졌고 산속의 어두움은 순식간 이었습니다. 재워달라고 할 마음도 없고해서 '내일아침에 다시오겠다'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는데 후두둑하더니 점점 세찬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인적도 없고 양 옆에는 공원묘지인데 어디 쉴 만한곳은 없고 산세가 험한 비포장길이니 달릴 수도 없고, 옛날에는 산돼지가 많이 출몰했었다는 돼지고개를 40여 분 걸려 넘어오니 저 만큼 보이는 시내 불빛이 왜 그렇게 반가운지요. 춥고 배고픈 몸으로 내쳐 수원까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별도 안되는 뿌연 시야로 집에 돌아와보니 이건 흙탕물에 만신창이가 되어 사람꼴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불

어서 타올 없어도 때가 술술 벗겨지는걸 보면서 계속 투덜댔습니다. “통계법 만든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어쩌면 쓸개가 반 쪽 뿐인지도 몰라. 하여간 내일부터 출근하면 사람도 아니다. “결국 내일은 어김없이 화창하게 밝아 찾아왔고 저는 사람도 아닌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여느때와 같이 출근을 하는 저 자신을 보고 그만 실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닌가 봅니다. 우리 업무를 하다보면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할 때가 더러는 많은가 봅니다. 수준 이하의 대접을 초연하게 대처해야 할 줄도 알아야하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극배우들보다 더 능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란 말인가요? 그것이 바로 제가 보고 듣고 느껴온 통계인이란 것을 겨우 365일 조사표를 들고 뛰어온 오늘에 아주 조금쯤은 느낄 수 있는 통계인의 초연한 모습이요 정말 사명과 신념과 의지 없이는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루에 세 번 만 크게 웃을수 있는 생활이라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도 합니다. 웃겠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 등에 발표되는 저의 분신의 자랑스런 모습을 대견히 보고 웃을 일이며 내 조국의 영광된 내일의 초석이 되어 든든하게 느껴지는 마음으로 또 웃을 일입니다.

이즈음에는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봉급을 타면 절반이상은 출장비에 쓰다보니 집에서 가끔 오해도 많았습니다. 두집 살림을 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걸 봐서는 과중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쇠는 달구어 두두려야 좋은 쇠가 되고 선수는 피나는 훈련으로써 훌륭한 선수가 된다” 고요

하기는 어느 정도가 많은 업무량인지는 몰라도 웬만하면 그대로 하다가도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겠습니다. 꽃게가 껍질을 벗는 아픔도 성장의 댓가로 치루듯이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통계 발전에 저의 끊임없는 노력이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함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집에서는 첫 뚝이 되면 수수팔단지에 흐드러지게 뚝상을 받는 우리네 풍습은 차치 하고라도 어제는 제 뚝 상위에 광공업 착오내용 한 건이 올라앉아 한바탕 식은땀을 흘린 날이었습니다. 식은땀에 욱 버무린 광공업 사건을 뚝 떡으로 알고 ‘이것이 내 천직이다’ 믿으며 추후도 후회됨이 없는 제 인생으로 만들까 합니다.

먼 들 녘엔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데 봄은 멀었는가? 좀 더 실질적인 조사 환경개선에 감히 운을 떼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통계인 가족 모든 분에게 행복과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오며 내내 건강 하시기를 빕니다.

## 자신과의 싸움

서울 서부출장소 감 성 숙

아직은 조금 이른 아침이다. 그러나 오늘은 일찌기 출장에 나서야겠다. 아침 시간에 늦장을 부리다보면 조사구에서 조사 조차도 채 끝나지 못한채 출장 시간에 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때이면 으례히 보완해야 할 몇군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출장명령부 기입을 끝내고 책상을 정리한후 요란한 소음을 헤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나는 습관적으로 조사구 가가호호의 특성을 살피곤한다. 변화하는 사회속에서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직업의 변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른 주부들의 부재 현상이 왕왕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는 가구까지 생각하면 순간 착잡함이 일기는 하나 제외하더라도 벌써 조사원 6개월의 생활에 다져진 조그마한 기반은 스스로에게 위로를 준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변화된 6개월의 시간들, 그동안 본부의 오랜 생활속에서도 조사원에 대해서는 그리 달가와 하지 않았던 내가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려니 쉬운일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87년 12월에 있었던 88년 사전 표본교체 작업은 가구명부와 요도작성등 과중한 업무증가와 함께 경상조사까지 겹쳐 그야말로 하루의 일과는 “힘든일” 그 자체였다.

12월의 날씨는 냉랭하고 대통령 선거일까지 겹쳐 조사기간 동안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나는 이런 어려움속에서 스스로의 인내와 지혜를 찾아야만 했으며 겪어온 몇개월간의 생활에서 얻은 마음의 자세를 울곧게 세워야만 했다. 어느덧 버스는 도회의 인파와 차량 홍수속을 질주하며 나를

조사구에 하차시켰고, 여너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벨소리와 함께 상냥한 말씨와 미소로써 경찰 취업시간표를 배부하였다. 끝난뒤 가게지역을 둘러가게부 설득과 기입 방법을 지도하고 또 다른 조사구 1가구를 방문하기 위해 바빠 서둘러야 했다. 전날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이 덕만은 자신이 꼭 전해주는 습관이 있다. 조사를 위해서, 신표본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만나뵙고 자유스런 대화를 통해 정확한 파악을 하기위한 나의 조그만 잔꾀이며 요령이었다. 이 가구는 유난히도 피라미 조사원인 나에게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조사구를 처음으로 인수인계 받던 날이었다. 나는 동료직원과 함께 문제의 이 가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 가구는 전월 경찰조사가 끝난 다음 전입해온 가구이어서 동료직원도 처음으로 대하는 터이었다. 이곳 조사구의 형편은 보통 하위권층으로써 계절 실업자는 물론 주부들의 힘겨운 부업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생활 자체의 불안정은 물론 여타한 사람들이 개인생활에 침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은 생활자체에 크나큰 환멸과 고통을 수반하기에 통계조사라는 개념조차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우리는 문제가구의 대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인기척은 없고 사납게 짓어대는 개소리만이 요란하였다.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며 “실례합니다 안에 아무도 안계세요?” 잠깐 침묵이 흐른뒤에 길가로 난 먼지끼인 조그만 창을 확 열어재키는 소리가 났다. “누구쇼” 발악적인 거친음성이다. “실례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경제기획원에서 왔는데요” “뭐라구요? 경제기획원이구 뭐구 난 그런 거 모르니 다른집에나 가보시오 귀찮게 하지말란 말이오!” 우리는 조용히 잠자는 사자의 옷털을 건드린 셈이었다.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덮칠 기세로, 문전 걸식으로 떨고 있는듯 하는 우리를 아연질색케 하여 골

목쪽으로 몇걸음 뒷걸음질치게 하였다. 한동안 멍하였던 우리는 다시 그 집앞으로 갔다. 다시 문을 두드리며 “아저씨, 다름이 아니오라 잠깐만 저와 말씀좀 나누었으면 고맙겠는데요, 잠깐이면 되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웬 잔소리가 이리도 많단말이오, 나는 그런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기도 귀찮아 싫다는데 왜 그리 시끄럽게 야단이란 말이오” 금방이라도 무슨 벼락이 떨어질것 같다. 집안에서의 사나운 개까지 계속 함세하여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당당한 기세다. 정말 큰일이였다. 조사원 생활에 처음 겪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정말 도리가 없었다. 막연히 다음에 다시 방문할 생각을하니 그저 아찔할 뿐이다. 하는수 없이 들이는 터벅터벅 날개쪽지 빠진 장담처럼 힘없이 연탄냄새와 가죽붙이기를 하는 부인의 부업으로 인하여 온통 집안이 악취로 베어있는 다음 가구를 방문하였다. 자신의 생활을 소신껏 키워나가며 밝은 마음을 소유한 그런 아주머니였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안절부절이다. 어떻게 하든 그들속에 잠재되어 있는 경직된 마음의 족쇄를 끊어 버려야했다. 그리하여 그들로 부터 강요보다는 스스로의 답변을 얻어내어 정확한 통계에 좀더 오차를 줄이고 싶은 착잡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무실로 돌아와야만 했다. 동행하였던 동료는 “미쓰강 너무 상심하지마, 조사원 생활이란 것이 다이런거야,때로는 개에도 물리고 gas 폭발에 심한 부상자도 있었어” 나에게 위로를 준다. 나는 아무것도 들리질 않는다. 다만 촛점없는 시선으로 그저 묵묵하기만 하다. 어떠한 경우 일지라도 자신의 조사구에서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산재해 있음을 실감한다. 시종일관 침체속에 나는 다시 일어나야했다. 그리고는 하루 걸른후 다음날 조사구를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되도록이면 마음을 편히 하기로 하였다.

다시 결심한 날이 되었고 조사구와 가까워지는 내마음은 또 방망이질이다. 용기를 내어야했다. 마침 문이 조금 열려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사나운 개는 여전히 쾅쾅거린다. 놀라서 문을 쿵 닫고 나왔다. 그리고는 다시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잠간후 “누구십니까”하며 밖으로 나오는 소리이다. 먼저와는 다른 목소리인걸 보니 아마 아들인 모양이었다. 의도적으로 상냥한 말씨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인사를 한후에, 조사지역 설정에 따른 내용과 목적을 간단히 이해 시킨뒤 아들로부터 가구표 작성을 하였다. 보완할 곳이 너무많아 걱정이었다. 그러나 아저씨가 마침 나오시어 인사를 드렸다. 필요하면 하루에 몇백번이라도 인사를 해야할 우리의 의무이다. 역시 귀찮은 표정과 화를내며 또 언성이 높아진다. “그런 조사가 우리에게 밥을 준답디까, 집을 준답디까? 무엇때문에 귀찮게 나왔단 말이요? 분명히 전번의 강한 저기압권 보다는 조금 벗어나는 듯 싶다. 그러나 나는 다시 “아저씨 제가 아저씨께 약속을 드리죠 지금부터 2분간만 아저씨께 여쭙고 시간이 지나면 조사가 다 못되어도 돌아갈게요 정말 약속해요” “도대체 뭔데 그러시오?” 재빨리 표정을 슬슬 훑치면서 체크된 몇가지를 지루하지 않도록 질문을 드렸다. 무뚝뚝 하지만 시원스런 답변은 나에게 작은 아부를 불러 일으켜 아저씨의 기분을 조금은 전환할수 있을것 같았으며 약속한 2분은 거의 5분이 지난듯 싶었다. 마치 현대판 “천일의 앤”을 연출하는것 같은 느낌이다. 내심 쾌재를 부르며 아저씨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아직은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아저씨 표정이 그리쉽게 누그러뜨릴 기세는 아니다. 갑자기 강한 저기압권으로 바뀔수는 얼마든지 있다. 대문을 나서며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인사를 드린후 취업시간표를 전했다. 아무런 대

답이 없다. 그러나 대문닫는 소리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정말 이러다가는 심리학 박사라도 될 것 같다. 긴 골목을 단숨에 빠져나왔다. 콧노래도 동승한다. 그렇다 이렇게 서서히 일을 꾸려야 했다. 더구나 이 아저씨덕은 실업자, 취업자가 함께 있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친숙해야만 했다. 그 다음주 경찰실사일이 되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일찌기 출발했다. 아직 훌가분한 마음은 아니지만 뭔가 이뤄낼 수 있을것 같은 기분으로 조사구에 다르니 골목 반대쪽에서 아저씨가 긴 장화를 신고 오신다 너무 반가워서 “어머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고 오시나봐요. 모래 많이 팔으셨어요? 아저씨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사시는군요.” 무척 어색해 하며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신다. 그리고는 저번주에 나눠드린 취업시간표를 가져다 주신다.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이어서 현지에서의 조사표작성은 불가능하여 취업시간표를 정확히 확인한 뒤, 아저씨께 한 말씀드렸다. “아저씨 저하고 종씨이신데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저씨께서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 무서운 사자같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웠소? 피곤해서 낮잠자는데 깨우니 그렇지.”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는 아저씨의 말씀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독듯이 녹아버린다. 정오가 가까와 오면서 제법 시장기가 든다. 안도의 한숨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겪어야 할 많은 시련들이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안으로 서서히 용해되고 있음을 느낀다.

## 오늘도 힘차게

강원 통계사무소 정 해 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산 치악산 기슭에 자리잡은 중부 내륙의 교통중심지인 원주에 근무하는 정해권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1년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빌어 사례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가 현장조사를 통해 겪었던 어려움이야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통계가족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폭풍이 몰아치든 바다가 한없이 고요하든 비슷한 위기감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주어진 길을 향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국에 신규발령을 받은 지도 어언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엇그제 같은 일이지만 경제기획원이란 타이틀의 매력과 경제의 운용방향을 계획, 통합, 조정한다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발을 들여 놓고 외부의 부러움도 많이 받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생활하다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듯이, 통계가족의 구성원이 되면서 저에게 전개된 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교육을 받고 현지에 나가 실사를 해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이 말해주듯이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계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잃지 않고 대처해 나가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드릴 예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빈도 높은 일 중의 하나이겠습니다. 이는 이런 경험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질 높은 통계수집, 더 나아가 명랑한 사회생활의 선도에도 일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전의 일이었습니다. 조미료 도매업체인 M회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협조를 잘해주던 업체였는데 지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사를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이 지점장에게 인사를 시키길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도소매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하는 말이 10년 동안 지점생활을 했지만 이러한 조사에 응답해 준 바가 없으며 이런 조사는 나하고 관련이 없으니 본사에서 직접 파악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짜증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담당직원이 “전에도 계속 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 자네가 우리 지점 매출액이 타업체(경쟁업체)에 들어가면 책임질거야?”하며 담당직원에게 역정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조사를 꼭 하려면 공문을 보내서 본사의 결재를 받아야 응답을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점장에게 협조공문은 이미 처음 방문했을 때 보내드렸으며 타사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책임을 지고 비밀이 절대보장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으니 꼭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지점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뜰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점장에게 저도 공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의 공문을 본부

에 연락해서 갖다 드려야 하니 어차피 귀사의 조사표는 늦어질 것이니 지점장님께서 회사사정과 지연사유를 비고란에 써 주시고 싸인을 직접 부탁한다고 했더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날 본사에 연락을 해서 응답해 줄 테니 조사표를 놔 두고 4일후에 다시 오라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할 수 없이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방문해도 괜찮겠느냐?”고 했더니 오늘은 판촉사원의 교육이 있다길래 밖으로 불러잡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현지점장님은 성격이 꼬쟁이같다느니, 조그만 일도 참견하는 잔소리꾼이라며 저에게 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업무는 빈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저에게 정 바쁘시면 내일 오전에 짐계를 내서 세무서 가는 길에 알려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당직원의 말 한마디는 정말로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는 통계법이 있는데 대상처의 대표자가 모르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한두달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방문해야 하므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지점장을 설득해 떳떳하게 조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란 타고난 환경과 자라온 여건, 사회 각 분야의 활동영역에 따라 인격형성과 사물을 보는 가치판단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경험해 본 바입니다만, 우리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담한 반응형,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불신형,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비판형등 다양각색의 형태에 대하여 우리는 나름대로의 복안을 짜내어 통계자료수집에 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장에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

가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궁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표자에게 정부가 주관하는 통계에 협조를 구하여 자기직원으로 하여금 꾸중과 충고를 받아내어 조사에 임하게 하는 방법.

둘째, 내 능력이 부족함을 상관에게 말씀드려 협력을 구하게 하는 방법.

셋째, 짧은 기분을 이용한 한판 힘의 승부를 걸어 누우치게 하는 방법.

넷째, 자존심은 상하지만 여러번 방문해서 성가시게 하여 역으로 나보기가 싫으니 밑의 직원에게 빨리 협조케 하는 방법.

다섯째, 지점장이 객지생활에 느끼는 외로움과 고적감을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게끔 하는, 자기집 근처의 처량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공감을 불러 일으켜 같은 생각으로 동화시키는 감정적인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섯번째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지점장의 숙소와 퇴근시간등을 파악한 후 지점장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약 30분정도 기다리다 보니 지점장이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서류봉투를 옆에 낀 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니, 지점장님 아니신가요? 안녕하십니까?” 하며 다가섰습니다. 지점장은 난색을 하며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일이십니까?” “예, 대상사업체가 이 근처에 있어 조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점장님은 어떤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집이 이 근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점장에게 바쁘시지 않으면 차나 한잔 하자고 했더니 의외의 응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을 추켜 세우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지점장이 먼저 어제 사무실에서 있었던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경제기획원에서 어렵게 조사를 하는 줄은 몰랐다면 내일 출근해서 본사에 전화연락을 하고 조사표를 작성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

말 기뻐합니다. 저는 신바람이 나서 “지점장님께서도 가족과 헤어져 생활 하시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며 위로했더니 그때부터 지점장은 자기 사정에 관한 얘기를 부담없이 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종종 만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느 다른 사업체보다도 협조를 충실히 잘 해주거 의 방문을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료가 우리 국가발전에 기본자료가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요원들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생산해 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로서 어떠한 어려운 일에 봉착하더라도 슬기와 지혜로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혹 조사표에 조그만 착오나 잘못이 생기면 “책상조사가 아니냐?” 또는 “매월 사업체를 방문하느냐?” 하는 등의 말씀들은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입니다. 조그만 잘못을 두고 벌칙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저희 통계요원들은 좀더 의욕을 갖고 활기찬 마음으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통계가족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해 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요원, 국가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통계요원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발과 노력이 있어야만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라는 자산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국가경제발전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생산해 나간다는 자부심과 보람으로서 오늘도 힘차게, 힘차게 매진해갈 것입니다.

## 일을 사랑하는 마음

서울 북부출장소 권 정 인

우리는 하루 하루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삽니다. 일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과 가사일, 무보수로 남을 즐겁게 하는 일 등 여러가지 예를 들자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전에 저는 텔레비전 프로를 잠깐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하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무감에서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더러 하는 일이 지루하고 짐스러우며 피로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지난해 가게 조사 신표본 교체로 마음 한구석 걱정거리가 있었지요. 쉬는날!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저의 성격탓인지는 몰라도 별로 편한 마음으로 쉬는날이 드물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이나 후배들도 한번쯤은 비슷하게 경험이 있을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쉬운일 같지만 애로사항이 여간 많은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연 사연은 지난번 사례집 발표에서 익히 알고 계시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게조사의 회수율과 질적인 면에서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듯이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해서 방법을 구상하여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어떠한 일단 출장기간은 물론이고 그

외 기간이라 하더라도 가족한테는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당분간 양해를 구하고 퇴근후 조사지역에 출근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흥분하여 지더군요.

가계조사는 저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적격가구에서 주부, 가구주는 물론이고 기타 가구원등 온가족이 합심해서 협조하여 기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인내심과 설득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격가구 한집 한집 다니며 그 날의 수입과 지출을 기입하며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가구등을 성의있고 진지한 마음으로 설명하였더니 웬만한 주부들은 반드시 협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체불능 가구도 몇 가구씩 발생하지만 정상적인 가구는 협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사에 임할때 우리는 보다 보람있고 몇몇한 통계조사 요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표본교체나 전입가구가 해당될 경우 무조건 1일부터 10일 가까이 대상가구가 스스로 협조해 줄때까지 계속 조사지역에 출근 하였습니다. 그 덕에 새로운 점을 발견하였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사표 회수율이 첫달부터 높았습니다. 꾸준한 노력끝에 4개월째 되는달에는 2개 조사구역에서 회수율 100%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마 다른 직원보다 유리한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젠 우리도 가계조사에 있어서 양보다 질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봐서 양은 기본이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자기발전을 위해서죠. 우리가 조사표를 회수할때 다행히 주부가 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부재중일때는 조사표가 분실될까봐 일단 회수하고 다시 재방문하여 미비사항이나 의문점을

보완하죠. 저나 여러분께서도 조사표를 회수하여 검토하다 보면 정말 어느 가구는 정성을 나하여 기입해 주지요. 공중전화료 20 원도 기입할 정도이니깐요. 이러한 가구는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저의 경우 한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종로구 가회동 어느 가구의 이야기 입니다. 가구주는 가축 의사이며 나이는 53 세이고 주부는 직업이 없이 주로 집에만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계획을 하신것 같은데 4 남매를 두었습니다. 대학생 2 명, 고교생 1 명, 중학생 1 명등 다양했어요. 생활정도가 괜찮은지라 한 달 용돈을 월말이 되면 자녀들한테 하루 날짜를 정해 놓고 용돈을 줍니다.

막연히 지출관에 품목은 용돈이라고 기입하고 7 만원 6 만원 4 만원 3 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기입합니다. 제가 상세히 기입해 달라고 협조를 요했으나 자녀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할 수 없다고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묘안을 생각했지요. 첫달부터는 어렵고 일단 친숙해진 다음에 실행해야 되므로 학생들의 태도, 성격등 여러모로 관심있게 살펴 보았습니다. 유별나게 모나지 않는 학생들 같아서 통계조사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설득했지요. 각각 메모지나 현 노트에 지출품목 하나 하나 기입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고맷게 협조해서 저는 다시 학생들이 자세히 기입해준 내용을 가계부에 이기 하였습니다. 학생들도 워낙 하루 일과가 바쁘지라 어려웠었지요. 저도 바빴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퇴근후 조사지역을 다녀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계조사의 질적인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생각되기에 미숙하나마 예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은 언제부터인가 퇴근후 조사지역에 출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조사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가구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저녁에 적합한 응답자를 만나기 위해 늦게까지 조사에 임해야 됨이 몹시 불편하지만 먼 훗날 저희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관계되시는 모든분께서 인정해 주실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저희 모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맡은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것을 볼때에 우리의 통계발전은 더욱 빛날것으로 생각합니다.

## 통계 조사의 현장에서

---

---

1988년 5월 28일 인쇄

1988년 5월 30일 발행

---

발행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편집 : 조사관리과

인쇄 : 삼익인쇄

---

---

#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 '88년 통계요원종합교육시 현장경험발표사례 )

1988. 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032969



## 머 리 말

이 책은 '88 통계요원 종합교육 때 발표된 현장조사 경험에 관한 28편의 우수 사례를 모아 발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통계조사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이 책에 수록된 발표문에서 보듯이 일부 응답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정확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 자료를 신속하게 생산해내야 하는 우리 통계요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통계조사 환경속에서도 통계인으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우리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단순히 통계조사요원의 고충을 기록한다거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보다 바람직스럽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집의 발간을 계기로 보다 나은 통계조사 환경이 조성되고 통계조사에 임하는 여러분에게도 흔들림없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통계요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88. 5.

조 사 관 리 과 장

## 차 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	서울동부	김 각 수 .....	3
K가구의 냉대 .....	충 남	이 혜 인 .....	8
자신감과 능률지수 .....	전 남	손 홍 식 .....	11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	인 천	김 임 순 .....	15
부서진 우산 .....	서울서부	정 관 영 .....	18
삶을 배우며 .....	충 북	원 용 숙 .....	23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	서울남부	강 현 호 .....	26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 .....	경 남	배 소 희 .....	29
물따라 산넘어 .....	충 북	박 의 돈 .....	32
통계조사 현장에서 .....	전 북	명 전 자 .....	38
푸대접 속의 보람 .....	전 북	양 청 부 .....	41
봄이 오는 소리 .....	인 천	김 순 정 .....	45
사명감 .....	서울남부	김 진 영 .....	49
모나리자의 미소 .....	경 북	박 종 명 .....	51
통계조사와 나의 과거, 미래 .....	충 남	민 재 홍 .....	56
우리의 기쁨 .....	강 원	현 경 옥 .....	60
작은 정성 .....	서울북부	김 기 현 .....	65
통계조사의 보람과 긍지 .....	경 기	유 미 영 .....	68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	부 산	김 봉 원 .....	71

나의 체험 .....	서울동부	장 정 란 .....	76
통계수집현장을 달리면서 .....	경 북	유 연 창 .....	81
용 해 .....	전 남	신 옥 례 .....	85
현 시점에서 .....	경 남	진 영 철 .....	88
후퇴 없는 전진 .....	부 산	이 정 숙 .....	91
마라톤의 출발선에서 .....	경 기	최 승 일 .....	94
자신과의 싸움 .....	서울서부	강 성 숙 .....	99
오늘도 힘차게 .....	강 원	정 해 권 .....	104
일을 사랑하는 마음 .....	서울북부	권 정 인 .....	109

##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울 동부출장소 김 각 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부여에서 뵙고 꼭 1년 만에 몸 건강한 모습으로 통계가족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통계조사요원이라는 대명사가 된 것은 1965년 2월 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그 이름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때 조사업무는 지금도 맡고있는 광공업동태조사, 생산능력조사 그리고 각종 연간통계조사 업무이었습니다. 통계자료조사를 하기엔 너무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모든 조사업무가 현재 내가 몸담고있는 조사통계국으로 1977년 1월에 완전 이관됨에 따라 저의 신상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 그해 6월 15일자로 인천출장소에 발령을 받아 조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고집스럽게도 외딴 통계조사요원으로 줄곧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조사현장에서 담당사업체를 방문하여 되풀이되는 통계자료수집에 있어 차가운 눈초리와 정다운 미소로 조사가 끝나면 매번 미흡한 감을 느껴본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날들 오늘 지금의 나! 조사의 요령이 별로 향상된 것 같지않고 통계조사에 있어서 정도 높은 자료로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자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얼굴은 볼품없는 쪼그랑 바가지가 되었고 맛이 일품이라는 갈비는 피아노 튕기는 소리가 들릴듯 생겨버렸고 세월은 흘러 “젊음이 한결같이 아름답다” 하곤 잃어버린 젊음에 안타까운 미련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무기력으로부터의 무관심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업무수행

에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광공업 동태조사를 담당 통계조사요원으로 출발할 즈음에는 다 그렇듯이 통계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였고 각 사업체에서 얻어지는 이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조차 모르고 다만 조사자료 회수에만 급급하여 조사 마감일에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의 조사를 완료하는데만 뛰어 다녔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돌듯 담당하고 있는 조사구를 똑 같은 조사업무를 몇몇해를 반복하고 지침서를 읽어 소중한 내것으로 소화 하다보니 어렵풋이나마 통계가 무엇인가를 알게되었고 중요한 자료인 것만이 틀림없다는 것은 물론 국가정책수립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육칠십년대 초에는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업체에서 마치 우리를 잡상인 취급을 하여 우리들을 슬프게 하였고 불응하는 사업체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통계가족들이 끈기있게 설득하여 이해를 주지시켰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여 산업이 첨단화됨에 따른 사회가 복잡다변화의 물결속에서 각종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요구되는 정확한 자료 활용도가 높아져 이에 힘입어 우리 통계가족들은 하루 하루 조사현장에서 맡은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여 왔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하나 하나의 조사자료가 모여서 한편의 책으로 월보가 꾸며져 나왔을 때는 피곤했던 몸도 한층 가벼워지고 보람도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해가 바뀌면서 김포, 강화, 부천지역 조사구에서 인천 도화동 조사구로 자리를 바뀌게 되어 광공업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S목재공업주식회사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목을 수입하여 제재목을 생산하고 장농을 비롯한 각종 가구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품

목중 지정품목이 아홉가지나 생산되고 있어 매월 자료가 마지막 18일 오후 두시경에 자료제출이 가능하였습니다. 회사의 규모로 보나 종업원의 규모로 보나 가구업계에서는 이름이 나 있는 큰회사입니다. 담당부서인 경리과 말단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는 매우 친절하고 통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여 적극적으로 통계자료 제출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부서에서의 자료제공이 늦어져 조사표 작성이 매월 늦어지게 되어 저로서는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조사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항상 업무도 유달리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해 한여름 무더운 7월 17일 오후 2시경 자료작성이 될 것 같으니 방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삼십여개 사업체의 조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업체만 미완료 되어있던 중이라서 약속시간에 재차 또재차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담당자가 급한 은행일로 은행에 갔다면서 좀 기다려 달라는 경리과장의 전달이었습니다. 그후 한시간여를 지나서야 담당자가 돌아왔습니다. 담당자가 나를 보더니 순간 얼굴색이 별장게 변하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서는 “오늘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 조사요원 생활에서 얻어진 경험으로 눈치 하나로 버티어가는 저로서는 “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약속합시다”하고 사무실문을 나섰습니다. 매번 18일 오후에나 제출되는 자료인데 “그러면 그렇지 17일에 될 이유가 있나”하면서 정문까지 나왔을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뵙자는 담당자의 부름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총무이사가 면담을 요구한 것입니다.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언제나 버릇이된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지요. 오랜 대화가 오고가면서 그분은 목

재업계와 가구업계의 경영관으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매월 방문 조사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알았다며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의 적은 지식으로 통계 조사의 목적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열성을 가지고 설득력있게 십 여분동안 대화를 나누어 상호 많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조사표를 작성토록 할터이니 한번만 더 방문하여 달라”며 나의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총 무이사께서 작성된 자료를 봉투에 넣은채 주었습니다. 나는 조사표 내용을 잠시 검토한 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였더니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표 한장에 너무 욕심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과 이 조사표 한장으로 회사의 운영실태를 한눈으로 매월 보게되어 매우 잘 기획된 조사표 내용이라고 웃는 여유도 가졌습니다. 정부 기획부서의 짜임새 있는 업무에 관심이 간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협조에 대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는 매월 17일을 통계자료 제출의 날로 정하고 협조를 당부 하였더니 쾌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조사를 완료한 기쁨보다도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한사람에게 더 이해를 시켜 공감을 갖도록 주지 시킨것이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사업체를 삼년동안 담당하면서 1년에 하루씩 3년동안 3일을 단축 앞당겨 매월 15일에 자료 제출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어찌 이 회사뿐이겠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꽃피는 봄! 폭염속의 한여름! 결실의 계절 가을! 뽕뽕 얼어붙는 영하의 추운 겨울! 사계절을 하루같이 조사현장에서 뛰어야했고 뛰어야할 우리통계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동부사무소로 전입되어 서울의 요람지 강남구 일부 조사구를 담당하고 있음

니다. 나의 희망 나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긍지를 갖고 통계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요.

최근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KBS 2 TV에서 연예가 중계석 시간이었습니다. 재즈음악 연주자인 B모씨가 소개 되었습니다. 외길 30여년동안 재즈음악만을 연주하고 고집스럽게도 재즈음악과 같이 일생을 살아온 그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적 재즈음악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한마디가 나의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통계가족들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경제 일변도 경제통계도 중요하지만 지역간과 계층간의 통계발전도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능동적으로 다같이 노력합시다. 반면에 우리 통계조사 요원들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뛰고 뛰어봅시다. 우리경제도 작년 한해동안의 교역량도 1천억불 흑자수지도 획기적으로 연 2년동안 계속 이루고 있어 우리국민의 저력이 무한한것 같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민소득도 높아져 가계저축율도 날로 높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통계가족은 가구와 사업체의 담당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통계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이 거듭 다짐! 또 다짐! 통계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우리통계가족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 K가구의 냉대

충남 통계사무소 이혜인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통계가족 여러분 통계조사 업무에 비교적 경륜도 짧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통계조사에 대한 저의 경험을 나누게 된 것을 무척이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겪었던 현장조사에 대한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입사한지 얼마안되어 통계조사가 무엇인지 개념조차도 잘 모르고 처음 일선 현장인 천안 조사구를 담당해 K라는 가구를 방문하여 면담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K라는 가구를 방문하여, “경제기획원 충남통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이혜인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하는 순간 K가구의 응답자인 주부는 내의를 착용한채 문도 열어주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며 아무말도 없이 묵묵 부답이었던 것이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허탈감에 젖어 그 가구를 떠나는 순간 통계조사는 그 자체가 어렵고 고독한 것이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어 처음으로 통계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해야만 하겠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튿날 다시 K라는 가구를 방문하였을때 전일 응답을 해주던 주부는 부재중이고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무엇때문에 방문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여 통계조사의 목적등을 설명하며 인구동태조사 및 도시가계조사를 하기위해 방문하였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잘 모르며 집주인인 주부는 다른 곳으로 이

사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전일 응답자인 주부가 시장엘 다녀오고 있었지 뭐예요.

이에따라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며 재차 조사에 응하여 줄 것을 설득하였으나 K가구의 응답자인 주부는 저를 못믿겠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이어요. 그래서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보조조사표를 제시하여 통계조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공무원이란 것을 인식케하여 조사에 협조토록 설득을 다시 시도한 결과 “K”가구의 응답자인 주부는 지금까지 본인이 저에게 냉대하게 대하였던 것을 이해하여 줄것을 부탁하면서 적극적으로 통계조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인구동태 및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가구를 방문하였을때 보다 K가구를 방문하여 장기간 대화를 하였지만 조사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K가구의 응답불응 사유 내용은 본인들의 생활이 비정상적인 가정생활, “남자가 연하이고 여자가 연상인”이기에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가씨한테 냉대하게 된것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통계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비협조적인 언행 및 불친절은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고 여기 모이신 전 통계가족이 적어도 한번 이상은 겪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다 나은 통계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통계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인내로 응답자를 설득하여 자발적인 통계조사에 응

답토록 하는것이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 조사요원들의 임무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이용한 통계조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중앙에 계신 분들이 계획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일선현지 통계가족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고군분투만이, 보다 나은 자료수집이 되어 경제 사회발전 및 사회복지 후생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통계가족 여러분!

역사의 전환기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자기 맡은바 책무와 주어진 소명의식으로 책임감 있는 요원화를 위해서도 계속되는 자기 반성과 통계조사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위한 발전은 물론 나라와 사회발전을 이룩되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리의 통계가족이 일체감을 조성하여 조사에 임해 줄때 만이 튼튼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지나 여기 모이신 통계가족 여러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박 3일이란 짧은 기간동안 여러 선후배님들과 종합교육을 통하여 많은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배우면서 일하는 통계인이 될 것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저에 대한 사례 발표를 끝낼까 합니다.

# 자신감과 능률지수

(현장조사의 손자병법)

전남 통계사무소 손 흥 식

자신의 현실능력 및 잠재능력까지를 스스로 믿고 느끼고 생각하는 감각의 정도가 어떤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소비한 힘과 시간에 대한 효과의 비율을 능률지수라고 한다면 날로 복잡다양 해지고 고도화 되어지는 산업사회의 현장조사에서 상대에게 리드당하지 않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상대우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

그 근원이 어떤형체가 있어서 저울로 달아서 물가지수에 있어서의 쌀의 가중치 71.7과 같이 부여할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사람의체중 60kg을 기준으로 해서 그이상은 얼마 그이하는 얼마로 표현할수도 없는것이 바로 자신감이라는 기(氣)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할때에도 어떤중책을 맡았다던지 어려운일에 직면했을때 너 자신있어 하고 자신감을 가져라고 격려합니다. 몸집이야 크던작던 육신의 자신은 다있게 마련인데 이 스스로 믿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천차만별합니다. 무슨일에 있어서든지 감(感)을 잡아라 감을 잡지못하면 항시 미궁에 빠져 도레미타불식이 되고만다고 얘기합니다. 이 감이란 기운이며 용기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어떠한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능력까지를 현실능력으로 100%표출 활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의 대변인이라 해야할까요? 우리 현장조사에 있어서의 대화란 상대방간의 감(感)과 기(氣)의 싸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입니다.

요즈음의 미디어 광고에 고감도란 어휘를 많이 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높은 감정의 극치를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부터 이끌어내어 느끼게하는 이성(理性) 지성에 앞서 감성에 호소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감을 잡는다는 것은 상대를 자유자재로 내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절대우위의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는 감을 잡는 센스를 프로화 시켜야 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철저한 직업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보는데 철저한 직업의식이란 또한 강한 프로정신을 갖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는 1등이지 2등은 없습니다. 바로 생명을 걸고 싸우는것이 프로정신입니다. 프로정신을 쉽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예를 든다면 1982년 11월 14일 김득구의 (24) 라스베가스에서의 맨시니 (21) 에게 도전 시합중 불의의 사고로 끝내는 숨을 멈추었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없이 프로때문이었습니다. 아마추어는 취미삼아 소일삼아 적당히 하여 넘길수도 있고 그렇다고 주위에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다릅니다.

계속성, 수익성, 보장성이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갈고 다듬어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치열한 생존경쟁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2등은 패배자입니다. 통상운동경기에서 금, 은, 동메달로 3분하지만 냉정하게 따진다면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현장조사에 있어서의 인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않아야 합니다. 세계 제1인자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프로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기가 맡은 현장조사에서 Number one 이라고 하는 정신자세를

평생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모로 보나 진정한 조사통계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칭호를 들을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기가 수행하는 모든일에 있어서 100%를 지향하는 완전근성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적당주의나 무사안일주의는 추호도 용납치 않고 어디까지나 철저성, 완전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매사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력투구하여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한결같이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이라도 일순간으로 그쳐버릴때 무의미한것일뿐 부단한 끈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프로정신 즉 자신감을 가질때 표본가구에서 시작하여 대규모사업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남녀노소 다양한 스타일에 대처하는데 조급의 부족함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감성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좋아요가 아니라 좋은것같아요 맛이좋아요가 아니라 느낌이 좋은것같아요등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력을 발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장조사는 나의 평생을 맡기는 직업의식에서 출발하여 주인정신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자아를 존중하는 것이며 자기를 실현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정신의 자신감을 우리의 가슴속에 늘 간직할때에 현장조사의 능률지수는 요즈음의 주가지수보다도 더 높은 1000%대를 상회할 수 있으리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간의 형태를 세가지로 나누어 보고싶습니다. 가나마나 달팽이란 말이 있듯이 행하는게 없으면서 촉각은 별나게 예민하여 바람 기운만 달라져도 지고다니는 달팽이집 속으로 움츠러들어 버리는 부류 소위 호신주의형 또 소처럼 느리기는 하지만 넘어질 염려없이 꾸준히 자기의 소임을 완

수하는 부류 또 말처럼 급진적으로 추진하려다 자신이 피해를 보는 부류 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수 있는것은 우리 인간은 지구라는 작은집에서 같이살아야 되는데 달팽이처럼의 무사안일주의를 배격해야 하며 소의 침착성과 말의 민첩성을 잘 조화시켜 개개인적으로는 자기실현의 매진과 가정적으로는 사랑과 화목을 가꾸며 직장에서는 성실과 책임을 다할때 우리사회는 보다 긍정적인 신뢰의 사회가 되리라 확실히 믿으면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순간순간들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정확하게 조정하는 “자신감의 능률지수”를 재고(再考)합시다.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내일의 만남을 위해 분투노력합시다.

##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인천 출장소 김 입 순

저는 통계조사요원으로 일해온지 이제 겨우 1년이라는 기간밖에 되지 않은 통계조사원 초년생입니다.

얼마되지 않은 기간동안의 경험으로 여러 선배님들에게 사례담을 말씀드린다는 것에 송구스러움을 감출수 없으며 단지 배우겠다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항상 통계 조사 업무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과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통계 자료를 수집해야 할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는 때때로 갈등을 겪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첫째로는 조사대상 가구의 방문시 응답자의 “표정”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고 보니 상대방의 표정이 일그러져 나를 대할때는 금새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표정을 감출수가 없더군요. 그러나 저는 애써 나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감추며 조사표 내용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보다도 애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불응가구는 막무가내로 저를 당황하게 하며 제발 가 달라는 표정을 지으며 쳐다도 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조사대상 가구의 방문시 응답자의 “언어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면 성실하게 조사표 내용에 응해 주시는 열  
가구보다 한가구의 불응가구를 대할때는 불응가구는 저에게 차디찬 말한마  
디로 “우리집은 오래 살지도 않을테니 다른집을 조사해요, 귀찮으니깐요”  
하는 소리에 어쩔줄 몰라하며 통계조사요원 생활에 스스로 실망을 느끼고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달에 재방문하였을 때에도 경  
제활동 인구조사는 더욱더 비협조적인 언어와 불쾌한 마음으로 저를 대할  
때는 나의 언어와 마음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상냥하며 경제활동 인구조  
사와 인구동태표본조사, 도시가계 조사의 목적과 활용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불응가구는 마지못해 조사표 내용에 응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통  
계조사요원 생활 초년생으로서 처음 기쁨과 흐뭇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러나 우리 국민들의 통계 조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의식이 계몽되지  
않는한 또다시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지역통계  
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통계조사  
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꼭 해야한다는 의무감으로 통계 자료에 적  
극 협조하여 좀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수집되고 활용되었으면 하는 소망  
입니다.

셋째로는, 조사대상 가구의 방문시 응답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면 “어서와요, 차한잔 마시고 가요”하는 훈  
훈한 인정을 베푸는 분도 있지만 어떤 방문 가구는 인터폰을 누르면 안  
에서 목소리만 들릴뿐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분도 계셨읍  
니다. 그럴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면서 통계조사 수집이 이렇게 어려운 것  
인가? 하는 실망과 당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자리에서 주저 않  
을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을 총동원 하여서라도 제차 그집을

방문하여 열어주지 않은 대문을 열게하고 가구표 작성과 함께 가계부를 내 보이며 기입지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제 행동이 얼마나 안타까와 보였는지 “다음달부터 가계부 써줄게요”하는 그 답변을 듣고서야 돌아서는 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날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적어도 업무 지침서를 한번 더 숙지하게 되고 하루빨리 내가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신감을 갖게되고 더많은 노력도 하게 됩니다.

저의 얼마되지 않은 통계조사요원 생활의 어려움이 여러 선배님들이 수년간 겪어온 시련에 비하자면 특별하게 말씀드릴것도 없지만 앞으로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은 경험에 비추어 볼때 이 모든 통계조사 수집의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방법중에 하나가, 응답자의 “표정, 마음, 언어, 행동”모두가 인간과 인간사이의 대인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실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통계조사 업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로서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함과 국민경제가 날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분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직도 모든 통계조사표에 대한 인식부족과 적당한 숫자 개념으로 조사표 내용에 응해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자세와 올바른 태도로 바뀐다는 확신을 갖고 삶의 터전인 나의 조사구에 나갈때마다 나의 가슴은 항상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통계 조사원의 임무에 분투 노력할 것을 여러 선배님들에게 약속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조사원이 되겠습니다.

## 부서진 우산

서울 서부출장소 정 관 영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숨결이 흐르는듯한 이곳 유서깊은 속리산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이년전에 담당했던 이 업체는 종업원 백오십명 정도의 전형적인 중소기업체 였습니다. 전임자에게 사업체 인수를 받고 업무협조 인사차 방문하였더니 응답자가 하는말이 이제 담당자도 바뀌었으니 우리 회사는 조사 대상업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임자로부터 업체의 특성에 대한 약간의 언질은 들었지만은 초면에 이 정도로 나올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낼수도 없는 처지이고 보니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꼭 참고 담배를 전하며 과장님! 제게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제외시키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도 않고 만약 주어졌더라도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표본선정된 업체를 임의대로 바꿀수가 없으니 이해하시고 계속 협조를 당부한다며 응답자가 매우 바쁜것 같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고 문을 나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조사현장에서 흔히 있는 일인것을 너무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자며 스스로 자위하려해도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저만이 느끼는 저만의 감정이라고는 생각하지않고 현장을 뛰는 우리 모두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럭저럭 세월은, 흘러 태풍 베라호가 우리나라 전역을 장마전으로 뒤덮은 팔월중순이었습니다. 중앙기상대에서는 태풍의 진로를 수시로 예보하

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들의 업무도 장마철 한달동안 만이라도 연기 되었으면 매우 좋으려만 월간경제동향 이라는 중요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협조가 잘되는 업체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달에 몇번씩가도 비협조적인 사업체이기에 각오를 하고 오히려 비를 맞는한이 있더라도 이럴때 출장을 나가는것이 약간의 효과가 더 있을것 같아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고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으나 개이기는커녕 어두컴컴한 하늘은 좀처럼 풀릴것 같지 않을 모양으로 계속 강풍을 동반한 굵은 빗줄기를 퍼부었습니다. 출장을 나갈까 말까 마음의 갈등이 생겼으나 판생각 나기전에 나가기로 굳은 마음을 먹고 출장길을 나섰습니다. 차창을 두드리는 거센 빗줄기는 계속 되었고 어느덧 도로에는 시냇물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약 이백미터 정도 걸어들어 가야하는 이 업체 입구에는 가로수들이 양쪽옆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쓰고다니는 우산은 휴대하기 편리한 이단짜리 접는 우산이었는데 성난 비바람 앞에서는 속수무책 이였습니다. 연약한 가로수 나무가지가 우두둑하고 꺾어지는 순간 저의 우산도 홀랑 뒤집혀짐과 동시 우산살이 부러져 그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머리부분과 기록부안에 들어있는 조사표만은 적시지 말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뒤집힌 우산을 삿갓모양으로 고쳐쓰고 업체 정문까지 도착하였더니 저의 풀이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정도로 추한 꼴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강 젖은머리와 옷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응답자에게 인사를 하였더니 “비가 오는데 웬일이냐”는 말한마디 하고나서 자기일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잠시후 과장님 저희 자료준비가 됐느냐고 물으니까 바빠서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때처럼 직업에 대한 회의와 인간의 비

애를 느껴본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쩔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가서 안되면 두번, 두번 찾아가서 안되면 세번이라도 머리숙여 가면서 자료를 얻어와야 하는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큰소리 한번 마음놓고 칠수가 없는 처지인 것을 꿰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과장님 강풍이 휘몰아치는 장마철에 비를 맞아 가면서까지 급히 나온 뜻을 그리도 이해 못합니까. 물론 저도 과장님께서 바쁜 것은 알지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쯤 상대방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해야할 일 속꺾어가며 쪼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당신 사정이지 내사정은 아니지 않느냐는 듯 한다는 말이 “글쎄 말씀은 매우 좋은데 바빠서 시간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처지이고보니 자신도 어쩔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음성의 톤이 약간 높은 것을 들었던지 칸막이 뒤에 앉아있던 전무이사가 뒤통수에 그러시냐며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히 인사를 한후 신분증을 제시해 보였더니 자기 자리로 가서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높은사람을 만났으니 뭔가가 풀리겠다는 앓팍한 기대를 갖고 십여년동안 나름대로 터득하고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차분히 통계의 중요성 및 용도에 대하여 또한 평소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월간경제동향 보고자료 스크랩한것까지 보이며 설명을 한후 협조를 구했습니다. 제말을 다 듣고난 전무 왈 “우리는 기획원뿐만 아니라 각 은행, 상공회의소, 노동부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다보면 적은 인원가지고는 우리회사 본연의 업무조차 마비될 지경이니 기획원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기로는 우리회사의 수준과 비슷한 업체가 많으니 대체를 해서 다른

곳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보니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던 저의 얕팍한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응답자보다 한술 더 뜨는 문자 그대로 설상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밀천을 다 드러낸 후라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통계법밖에는 떠오르는것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없이 기록부 뒷면에 기재된 통계법을 뒤적이며 귀사에서는 자료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으며 반면 저에게는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며 협조를 간청했으나 정그러시다면 응답불응으로 보고를 하던지 선생께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응답불응시 적용되는 오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일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은 말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기회로 벌금 오만원을 벌태니 마음대로 하라면 그나마의 응답도 아주 거절해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겠노라며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후 구월분 실사 때는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말로 설득을 시켜야 하나하고 걱정스러움이 앞섰지만 태연한 척 언제쯤 나가면 가능하겠냐고 응답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옆에 앉아있는 경리아가씨가 전화를 받고서 하는말이 과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리아가씨에게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보니 퇴근길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전화위복 이다싶어 병실을 알고나서 퇴근길에 문병을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근처에서 넥타 한박스를 사가지고 병실을 찾아갔더니 저를 보는 순간 의외로 정형이 웬일이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가이 맞이하면서 옆에서 간호를 하던 자기의 약혼녀에게 마치 우리들 사이가 십년지기나 되는것처럼 저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우스웠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서 인간의 마음

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말씀하신 맹자님의 성선설을 다시한번 저는 음미하여 보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나서 퇴원후 응답자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는 그전과 완전히 바뀌었고 업무협조도 매우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갔습니다. 얼마있다가 응답자로부터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며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여보니 그 회사직원들 모두가 참석했고 통계법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던 전무이사도 나와있었습니다. 그와 수인사를 나누는 동안 전무는 나에게 찾아주셔서 고맙다며 같이가서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전무이사와의 소주한잔의 나눔은 더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응답자가 전무의 눈치를 보아가며 작성하던 조사표는 목시적으로 매월 월례 고유업무로 공인되고만 것입니다. 지금은 전화할 필요도 없이 십사일 전후해서 방문하기만 하면 조사표는 깨끗이 작성되어있고 부재중일 때에는 옆자리에 맡기고 나가는 성의를 저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동료직원 여러분 사사로운 베품이 이러한 좋은 결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할때 이는 비단 우리들의 조사업무에만 국한된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 모두의 업무에 이러한 발전된 일들이 많이 전개되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주신>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 삶을 배우며

충북 통계사무소 원 용 숙

대기는 신선한 봄기운으로 가득하고 햇살은 나날이 따뜻함을 더하여가며 생명의 신비함이 충만돼있는 이때 다시금 여러분을 뵈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일년만에 뵈는 모습들이 건강하신 모습이라 더 반갑습니다. 지난 일년동안도 통계의 최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며 어려움을 만날때마다 슬기로 헤쳐나가며 이자리에 이르셨을줄 압니다.

저 또한 양반의 고장이라는 충북에서도 충주라는 인구 십이만을 조금 넘는 작은도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내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부닥치며 겪은일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충주에서만 십여년이 넘게 통계 조사를 해오면서 지내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맨처음 통계 조사를 위해 가구를 방문해서 더듬대며 조사하고 나와보니 항목을 다 묻지못할 것이어서 다시 방문 또방문 하였던 일이며 응답거부하는 가구에선 징역, 벌금 운운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많은 조사를 하며 겪었던 일중에서도 잘 협조하며 나름대로 인간관계도 잘 유지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구의 하루아침 달라진 싸늘한 표정과 태도에는 때로 말할 수 없는 낭패와 실의를 느끼게도 되었었고 다시금 새로 면접하는 기분과 태도로써 꾸준히 설득하여야 했던일, 일시적인 그때의 감정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여 한번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잔뜩하다 슬

쩍 마루끝에 가계부 놓아두고 줄행랑 치듯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마음을 바꿔 잘 협조해 주었던 일이며 청각장애의 가구를 방문해서 청각장애인줄 모르고 혼자 실컷 묻고 뵈히 바라보고 있는 말짱한 얼굴에 당혹감과 조롱 받고 있는것 같아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가 이웃집에서 사정을 알고난 후 내쪽에서 마음다치게 하지나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필담으로 조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지요. 또한번은 정말 불쌍한 소년가장 가구가 저의 조사구에 잠시 이사를 와 살았는데 동네에서 살뜰히 보살펴 주는 모습 보고 저도 동사무소와 시청을 통해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었지요.

가슴 훈훈한 모습과 때로 야멸차고 몰인정하며 교만과 아집으로 굳게 닫힌 철문과도 같은 사람들도 대하면서 통계조사를 위해 인내하고 삭히는 많은 일들이 어느덧 저의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이해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졌음을 느낍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해야 하며 흥미없는 많은 얘기들도 잘 들어주어야 하며 작은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능동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일이 우리 가구부문 담당자들의 일이기에 인간관계의 기술을 부딪히며 체험으로 습득하였다고도 할 수 있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진정한 삶의 모습, 깊은 지혜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다 진정한 삶의 모습, 삶의 가치를 저 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으며 날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불신만연의 어려움때에 이런 깨달음과 지혜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십이월 표본조사구 교체로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을 위해 신표본 조사구에 가니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도 통장님택으로 동사무실로 연락을 해

보더군요. 참으로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표본조사구의 교체는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는 작업과 같아서 땀과 수고와 슬기와 인내가 요구되어지는데 무진년 한해 무진애를 쓰며 팔팔 뛰어야 할까 봅니다.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새 경제운용계획에 발맞추어 긍지를 갖고 열심히 뛰어야 겠지요.

또 다른 삶을 만나며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저는 올해도 인내와 끈기를 지니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나갈겁니다.

이것이 통계조사의 정도를 보다 높이는 일이며 저의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가족 여러분! 이 한해 동안도 열심히 사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며 반가운 얼굴들로 다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서울 남부출장소 강 현 호

전국에서 오신 통계조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남부출장소에 근무하는 강현호입니다. 저희 남부출장소에는 통계에 관한 일가견을 가지신 분들이 기라성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례발표랍시고 이 자리에 서게되니 선배님들께 송구스럽고 후배여러분들께 부끄럽기만 합니다.

제가 통계업무를 수행한지가 어언 10여년이 넘었지만 통계조사의 어려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통계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저 자신에게 반문해 봅니다.마는 통계조사가 우리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저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합니다. 특히 요즈음 같이 광공업동태 신표본과 구표본, 도소매 신표본과 구표본의 병행조사, 그리고 각종 연간 조사업무가 쌓일때마다 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동료 여러분들도 신표본 조사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줄 압니다. 제가 통계조사를 수행해 오면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일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만 약 8년전 영세민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할 조사지역이 강남구 내곡동 소재 음성나환자촌이었습니다. 이곳은 나환자들만이 모여 살며 대단위 양계업을 해서 자립생활을 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서울 소비량의 약 10%를 능가할 정도로 양계의 규모가 컸었는데 이곳 나환자촌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신선도 때문에 얼마전인가 마스크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외부세계와는 단절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저는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나환자 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동직원은 이들과 인사 할 때는 꼭 악수를 해야 되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그들이 매우 기분나빠 하며 아무일도 못 한다는 것을 미리 귀뜸해 주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계분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것을 참으며 마을회관에서 이곳 회장이라고 하는 50대 후반의 남자한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영세민 실태조사를 하러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자 그분은 회관방송을 통해 사람들을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방송을 하여 나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수고한다고 하면서 악수를 청해 왔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은 맘이지만 동직원이 귀뜸해준 일도 있고해서 악수를 하며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얼굴이 약간 일그러진 사람, 손가락이 굵은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고 지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집에 돌아가서 내가족들에게나 나에게 이런 병이 옮겨지면 어쩌나 하고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제가 통계조사원이 아니었다면 이곳을 당장 뛰쳐나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한낱 지난일에 불과하지만 가끔 저의 뇌리를 스쳐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당시 나환자들은 불편한 몸으로도 생의 의욕을 잃지 않고 자립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사회에서 버림받다시피한 몸으로도 굳건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나이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중요한 국가시책업무의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통계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든 어떠한 고난과 수모도 감수해야만 된다는 것이 제가 10여년 동안 체험하고 남은 소중한 재산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통계국에 들어 올때는 20대 후반의 패기발랄한 청춘이었는데 지금은 40대가 갓 넘은 중년이 되어 옛날의 젊음은 간곳이 없고 오로지 통계조사에만 전념하다보니 머리는 희끗희끗 해지고 예쁘장하던 얼굴엔 어느새 주름살이 늘어난 것을 생각할 때 지나간 옛날들이 아쉽기만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본부 간부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조국을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럼 통계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이 영원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만나는 날 더 굳센 악수를 교환 하십시오.

##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

경남 출장소 배 소 회

제가 통계 조사 요원으로 사회의 일역을 담당한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어린 저에게는 그야말로 몰라서 서러울 때도 있었고 소장님, 계장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르침에 고마워서 울먹인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추운 겨울날 비 오는날에 문 밖에서 조사대상 가구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적이 한두번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참고 슬기롭게 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일이 있다면 '87년 12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이다. 그때 난 진해시 여좌1가와 충무6가를 배정받게 되었다.

처음에 여좌1가란 말에 난 여자1가라는줄 알고 혼자 속으로 웃으면서 마산의 남성들과 자매결연이라도 맺으면... 하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여좌1가라는 조금 특이한 구역을 담당하게 되어 조사가 원만하고 또 한편으론 재미있는 사건이 생길것만 같았다. 처음 작성하는 요도를 그리면서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다.

85년 인구센서스 당시의 요도를 들여다 보면서 현지의 지역여건과 가구 규모등이 그당시 조사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지 살펴보는데만도 꼬박 하루가 걸렸다.

다음 조사실사 주간에 각 가구를 방문하였다. 마침 한창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심상이 싱숭생숭 했던가 보다. 조사원인 제가 선거운동원

으로 오해 받은적이 있었다. 사연인즉, 며칠을 찾아가도 응답자를 만나지 못 하던차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아줌마의 근무처를 확인한 후의 근무처 인 회사를 찾아가기로 작정하고 근무처를 찾아가 아줌마에게 공장까지 찾아온 무례함을 정중히 사과드리고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상세히 설명드린 뒤 조사에 임해 주십사 부탁드렸다.

아줌마는 대뜸 “아가씨가 가위와 병따개를 갖다준 사람이유?” 하시는 게 아닌가

“아! 그것말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희 통계 조사에 응하신 고마움의 사례로 드리는 겁니다”하고는

무사히 조사를 마친뒤 또다른 가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한창 열심히 입을 움직이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오토바이 소리에 난 고개를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오토바이 소리의 주인은 내려서 나에게 다가왔다.

“아니 경제기획원 아가씨 아냐?”

가만히 보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여긴 웬일이십니까?”

동직원의 말은 조금전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날 선거철을 이용하는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여 급기야 신고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닌가.

정말 기가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으면 신분을 밝히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말도 못믿는단 말인가.

다시 한번 사회의 무정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찰나 아줌마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아유 아가씨 우리가 너무한 것 같지 뭐유 우리를 이해하구라”

나는 그순간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잘못을 시인할줄 아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구나하는 생각에 미소를 머금었다.

“아니 뭘 이해 합니까? 신고정신이 투철한 아줌마들에게 오히려 공직자인 제가 사례를 하여야겠습니다”하고 웃어 넘겼지만 이와같이 조사대상 가구로 부터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받은적이 있기에 모든 조사에 임함에 있어 그자세 또는 조사 요령이 모든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정말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조사 시기였다.

우연히 나는 ‘산골소녀 옥진이’라는 시집을 선물받게 되었다. 19세의 한창 나이의 소녀이지만 뇌성마비 환자로서 바로 눕지도 못한채 항상 엎드려 지내야만 하는 옥진이 그녀가 써 내려간 시귀절은 그대로 눈물이 되었다.

‘나의 죽어가는 옥신으로 세상을 밝힐수만 있다면 나는 한자루 촛불이고 싶습니다.’

병든 옥신을 저주하고 원망까지 보다는 그 옥신이나마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갈구하는 가엾은 소녀 옥진이 나는 후회했다.

좀 더 내 삶에 충실치 못했던 것을 단조로운 생활이기는 하나 건강한 옥신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을 감사해야만 했다.

작은 일 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련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먼 훗날 지금의 나를 돌이켜 볼때 큰 공적은 없으나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련다. 감사합니다.

## 물따라 산넘어

충북 통계사무소 박 의 돈

오늘과 같은 뜻 깊은 날에 훌륭한 상사님들과 선배님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들이 함께한 영광된 이 자리에서 제가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며 저에게는 자랑스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단양군은 충청북도의 북쪽끝에 위치하며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도계로 접하고 있는 오지군입니다. 청주에서 버스로 4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고 인구는 약 5만9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도 충주댐이 완공되어 담수가 되면서 군청소재지가 10 km 북쪽으로 이전하여 계획적인 인공도시를 건설한 새로운 단양은 세계속의 단양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으로 뻗은 소백산맥과 군의 중앙을 흐르는 남한강의 물줄기로 인한 자연적인 계곡과 강변의 비경은 고대로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단양 8경 곳곳에는 선현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76년 이후 새로이 개발되어 공개되고 있는 고수, 노동, 천동의 석회암 동굴은 지하의 불가사의한 신비경으로 동굴 관광의 보배로써 방문객들의 탄성은 끊일줄 모르고 또한 지난 86년 이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된 충주~단양간 유람선 관광은 꿈의 관광지로 본 고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양은 가보고싶은 관광의 성지이지만 제가 맡고 있는 조사통계업무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형이 험하고 오지의 교통불편으로 높은산과 높은산이 만든 깊은 계곡

을 지나 산넘고 강건너 조사하기를 16년 이제 통계조사업무처리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았을때는 24세의 혈기 왕성한 청년으로서 힘이 든다고 느끼지 못할때였습니다. 그 당시 단양에는 포장길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비포장 도로였으며 국도 5호선외에는 차량들이 서로 자유로이 교행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때는 72년 8월 19일 유사이래 처음있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폭우가 쏟아져 군내 전체가 물바다를 이루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변의 도로는 모두가 끊겨 교통이 두절되었고 계곡마다 물은 넘쳐 농경지는 침수되었고 강 한가운데 섬마을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그 곳 주민들은 10여m 높이의 인공 물탱크위에 올라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통계조사의 초년생인 저는 인구동태실사를 해야하므로 조사 대상마을인 대강면 기촌리와 수촌리를 가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이 두 마을은 군청 소재지에서 부터 24km이상 떨어진 소백산속에 산재한 산촌입니다. 이 마을로 가는 정기 버스노선도 없을 뿐만아니라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비가 그치기를 학수고대 하였으나 좀처럼 그치지를 아니하여 그 날은 초조히 가슴을 조이며 보냈습니다.

알곳은 비는 그 이튿날에야 그쳤습니다. 군 소재지에서는 고지대로 피난갔던 주민들이 쓰러진 자기집을 수리하고 방을 말리는 등 수마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집은 고지대에 위치해서 홍수의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비가 그치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수촌리를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4km정도 왔을 지점인 하현천에서 길이 유실되어 하는 수없이 자전거를 끌고 들고하여 유실된 길을 지나 다시 10km를 왔으나 더 이상은 자전거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포읍 상진리에는 남

한강을 가로질러 대교가 놓였는데 이 대교가 유실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상진리에서 영춘, 영월로 이어지는 도로가 고수리까지 유실되어 도로는 찾아 볼 수 없이 절벽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자전거는 상진리 고지대 민가에 보관하여 놓고 운동화 끈을 다시금 단단히 조이고 서류 봉투는 허리춤에 매어달아 산악도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마친후 산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곳은 원체 악산이라 가파르기가 여간 아니었고 물뭍은 산은 매우 미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군데 군데 이어진 길을 지나 10여km 거리에 있는 조사구에 도착하여 보니 온몸이 땀에 젖어있고 옷은 흠투성이가 되어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천 제방을 쌓고 있었는데 저를 본 이장님은

“아이구! 박 선생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소? 도로가 전부 끊겨 차도 없을 터인데……”

“말도 마시오 아주 죽을 고생을 했지요”하며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친절히 맞이하여주는 이장님이 무척이나 고마웠으며 늦은 점심이나 이날의 점심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몸이나 조사를 해야하는 저로서는 이장님께 ‘오늘 점심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단양에 오시면 한턱 내지요’하며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예정된 코스로 금곡리 담당 부락을 조사하고 다시 물따라 산길로 올라가 수촌리를 조사했으며 또 다시 미륵동까지 조사를 완료한 저는 오늘처럼 조사구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소임을 완료한 후 다시금 땅거미를 밟으며 오던길을 되돌아 상진리까지 오니 어두운 밤이라 도로 보수 및 가교를 놓던 군인, 주민들은 횃불을 들고 야간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전주가 넘어지고 전선이 끊겨 정전이 되었던 전날과는 달리 응급 복구가 되었는듯 민

가의 전기 불빛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자전거를 타고 어둠속을 질주하여 집에 도착했을때는 거의 밤 12시가 되었던터라 가족들의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여 기간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룩한 책임감 이러한 것이 모든 피로를 가시게 하였으며 늦으면 자고 오라는 아내의 말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아내의 애교있는 책망은 행복감에도 젖게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교통이 불편하고 자연 재해가 있는때의 조사 활동은 그 어려움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 한번은 여느때와 같이 광공업 조사의 실례입니다. 이 업체는 소재지에서 12 km정도 떨어진 곳에 석회석을 생산하는 백광 광업소였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영세 광업의 사무실은 채광장에서 작은 막사를 지어 놓고 2~3명이 업무를 처리하여 수시로 업주가 바뀌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조사하는 백광 광업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번 조사하는 광업소라 별 염려없이 사무실을 노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저를 맞이하는 미스김과 예나 다름없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어 의아해하며 전무님실의 문을 열어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사무실 집기는 하나도 없고 사무직원도 한 사람도 없어

“미스 김, 어떻게 된거야?”하고 물으니

“박 선생님, 모르셨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분이 인수했어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이 대강면 노동리라는 미스 김의 말을 귓가에 흘리고 황급히 나오면서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큰 일이었습니다. 연락 때문에 남아 있는 미스 김의 말대로라면 기간내 조사의 어려움이 불을 보듯 흰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찾은 새로운 사무실은 현장에 임시 막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복장을 단정히하여 새로운 부장에게 신분을 밝힌후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새로운 부장은 대외적으로 모든 자료의 방출은 서울 본사에서 일괄 집계하기 때문에 이곳 사무실에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자료가 나올려면은 임금 결산이 끝나고 15일이 넘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해서 설득과 이해를 구하려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허사가 되어 그 날은 하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은 다른 지역을 조사하고 이튿날 다시 백광 사무실을 찾아가서 자료협조를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네였다. 그 날 저녁때 현장에서 부장님택을 알았기에 숙소로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찾아가 “부장님 계십니까?”하고 들어가니 문을 열고 내다보며 ‘박 선생이 웬일이요?’하며 인사치레를 한다. ‘아니, 뭐 제가 여기에 오면 안되는 일이 있습니까?’하고 농담삼아 건내니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각지 않았던 일이기 에 하는 소리지요.’하며 들어오라고 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사전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 부장님이 이 고생이 웬일이십니까?’하니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나요’하며 ‘결결’웃는다. 부장은 기왕에 오셨으니 술이나 한 잔 합시다 하며 내가 가져간 과일을 안주삼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술에 얼큰이 취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여기에 온 취지를 잊지않았다. 은근히 말꼬리를 잡아 ‘낮에는 제가 소견이 좁았습니다. 오늘일은 사과 드리지요’하니 부장님이 “그게 웬 말이요 나도 너무 했나보오 우리는 의견을 접근시켜 돌파구가 생겼지요.” 그래서 다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자료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본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요? 그러니 저희들은 늦어도 12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먼저 쓰고 다시 조사표가 본사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방법으로까지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양 이틀간에 걸친 입씨름을 해결하고 오랜만에 기분 좋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날 이후 더욱더 수월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업무를 수행 할 때는 집에다 아예 쓸개를 빼어 놓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례를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통계조사 현장에서

전북 통계사무소 명 전 자

멀리만 느껴지던 우리의 만남은 감추인 봄바람에 성큼 다가와 오직 이 기회가 아니면 안되는 현실속에서 전국의 통계가족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보니 무슨 말을 해야할지 반가움속에 감회가 깊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장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속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국장님, 과장님 및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통계조사의 베테랑인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사례발표를 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통계조사 업무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고도의 지식과 무한정한 지혜 및 인내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재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이 닳도록 다니며, 목이 쉬도록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고 협조하여 주지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상하지만 더욱 안타까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계 조사지역 연동교체로 새로운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였을때의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사구는 서해안 시대의 총아인 항구도시 군산시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영세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달동네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가구는 아저씨께서는 관철염으로 집에 누워계시고 아주머니께서는 리어카로 과일행상 하시며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가계부 배부차 직행버스를 탔습니다. 때

는 5월이라 마침 전국에서 벚꽃 관광인파가 모여드는 계절이라서 번영로라 부르는 전주에서 군산까지의 양옆 도로변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차창밖에서 풍겨오는 벚꽃 향내음속에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며 앉아 있노라니 직업에 대해 긍지를 느끼며 뿌듯한 감정이 우러나왔습니다.

직행버스로 한시간이상 달려 어느덧 나의 발걸음은 조사구에 와 있습니다. 가구번호 순서대로 맨처음 그 가구를 방문하여보니 아주머니께서는 행상 나가시고 안계셔서 아저씨께 가게부 작성을 부탁드렸더니 아저씨께서는 “내몸이 아파서 귀찮은 판국에 우리같이 못하는 사람 잘살 수 있겠나 해주지 맞지도 않는 통계는 작성해서 뭐하나, 전에는 간단한 인구조사만 하기에 답변을 했지만 가게부 만큼은 작성할 수 없으니 다른데가서 하라”고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사례품을 드려도 이런 것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올때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들쭉던 감정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나 자신이 처량해지고 왜 통계 공무원이 되었는지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더 큰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꼭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되돌아 왔습니다. 며칠 후 그 가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아주머니께서 계시더군요. 아주머니께 매달리다 시피하여 제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듣게 설명도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심한 좌절감과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발을 더 뛰기 위하여 한발을 물러선다는 전략아닌 각오로 재 다짐을하며 다음날 또 찾아가리라 생각하면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고민속에 하루 해가 어김없이 밝아왔습니다. 다음날 또 찾아갔더니 아저씨께서는 웃으시면서

“사회는 아가씨같이 맡은일에 충실한 사람이 필요해 가계부를 두고가! 한번 써 볼게” 하시며 전에는 미안했다면서 결혼할 때는 꼭 연락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아저씨의 인사를 받으며 돌아서는 나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조사 환경하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더욱더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응답자와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통계조사의 정확성은 물론 자기 완성을위한 과정도 될 것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로 현대와같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편리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것을 다짐해 봅니다.

## 푸대접 속의 보람

전북 통계사무소 양 청 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부여에서 만나뵈신 후 벌써 1년이 지나 모 두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곳 명산 속리산에서 만나 뵈게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전북통계사무소 이리 주재원으로 1972년 9월에 발령을 받고 광공업동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처음 시작한지 어느덧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강산이 한번하고도 또 받은 변한 셈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여 왔습니다. 국민총생산(GNP)이 1972년에 4조2백8십억원 이던것이 1986년에는 83조8천3백억원으로 20배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국민1인당GNP도 1972년에 454 \$ 이던것이 1986년에는 2296 \$로 5배가 되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율은 1972년에는 28.3% 이던것이 1987년에는 36.7%로 증가되었고 공식적으로 작성이 승인된 통계조사의 종류도 1972년에는 170여종이던것이 1987년에는 350여종으로 증가되어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통계도 엄청나게 발전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통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한번은 제가 모주정제조업체에 광공업동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방문했는데 마침 담당자가 있어서 간단히 인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오니까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오늘은 세무서에서 왔으니 내일 다시 한번 오라고 하면서 세무서 공무원과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기분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체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공서만은 신경을 써서 접대를 하면서도 우리와 같은 통계공무원에 대한 대접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이것은 직접적인 이득도 없이 귀찮기만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소비자 물가조사를 담당한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돌아온 셈이군요. 물가조사 초년생이라고나 할까요 처음에 조사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인수 받으면서 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고 조사방법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가조사 대상처는 장사를 하는 업체라서 아침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며 대상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11시쯤이나 되어서 부터야 방문하여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어느순기에 조사시기가 되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던중 한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격을 물으니 응답자가 말도 하지않고 인상만 쓰고 있기에 할 수없이 보조대상처를 이용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순기에 그 대상처에 다시 찾아가니 그 가게 주인이 전번에는 대단히 미안했다고 사과하기에 그때는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물건을 사러온 손님하고 말다툼을 하고난 바로 뒤에 찾아와서 화가 풀리지 않아 그랬다고 하면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응답을 하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같이 그때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조사 내용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기분까지도 헤아려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여 작성된 통계가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1987년말의 물가가 전년말에 대비하여 5.8% 상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전주 모다방에서 점잖으신 신사분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하는 말이

“통계는 엉터리야 지금 물가가 얼마나 뛰어오르고 있는데 겨우 5.8%밖에 안올라 그러니 어떻게 정부를 믿어 이렇게 만들어 발표하는 X들이 미친 X들이지”하며 통계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듣고보니 미친 X는 바로 옆에 있는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나서지 않을 수 없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우리소비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411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품목별로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적게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단순히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충분히 이해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87년 1월에 주요 채소류 가격이 1관당 배추 200 원, 무우 200 원, 파는 600 원 이었는데 '88년 1월에는 배추가 1470 원으로 635% 상승, 무우가 950 원으로 375% 상승, 파가 4,000 원으로 566% 상승, 이렇게 엄청나게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으니 채소류 가격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 운용에 있어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밖에는 나올 수 없듯이(GIGO) 우리가 통계조사를 할 때도 엉터리도 응답해 주는 사람이 「통계는 엉터리다」라고 말할 때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맛이 씹쓸한 일도 많지만 우리는 통계인으로써 가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날 오후 어떤 분이 찾아와 물가 담당자를 찾는다기에 제가 나가 정중히 맞으니 그분은 모종합병원 기획실 차장 ○○○이라고 하면서 “우리 병원 '88년 예산을 편성 하는데 87년도 물가지수를 참고로 하여 반영 하

고자 왔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기에 저는 물가속보, 통계월보를 찾아보니 통계월보에 주요 품목별 지수가 수록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보여주시 여기저기 보고나서 이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 책이 꼭 필요하니 팔 수 없느냐고 묻기에 마침 잔부가 있어서 1부 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나니 아! 바로 우리가 생산한 통계가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구나 생각하니 자부심과 긍지를 한층 더 느끼게 되었고 더욱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열심히 조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조그만 일에서도 국가나 기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바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재인식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내지 않고, 굴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자고 나 자신에게 타이르며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모든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 해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 봄이 오는 소리

인천 출장소 김 순 정

꽃은 남쪽에서부터 피고 낙엽은 북쪽에서부터 진다고 하였는데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전국의 통계가족 모두가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나간 '87년은 무척 어려웠던 한 해 였던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숙제였던 민주화의 길과 대통령 직선제를 위하여 온 국민이 피·땀을 흘려야 했고,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과정의 진통으로 노사분규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국가존망의 성패가 풍전등화 같을 때도 국가를 보위한 조상의 슬기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어려운 '87년을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겨울을 넘긴 나무가 탐스러운 꽃을 피우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가 주시하는 탐스러운 꽃나무로 자라나 며칠전 제6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얀 복숭아 꽃이 우리에게 주는 향기와 미래에의 탐스러운 열매가 보는 이의 가슴에 소망을 주듯이 노사분규와 민주화의 진통을 넘긴 우리에게겐 세계가 부러워하는 '88 올림픽과 선진대열의 참가라는 소담스러운 소망의 열매가 싱그럽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탐스러운 열매가 있기 까지에는 파종을 하고 고깔을 씌워주고 병충해의 공격에서 꽃나무를 보호하는 햇살에 그을린 농부의 피와 땀이 있어야 하듯이 선진이라는 민족의 소망 앞엔 참으로 어려운 역경이 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파고를 넘어 후손에게 선진의 열매를 맺

어쨌든 역사적 사명감이 주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 개막이라는 정치 승리와 함께, 미국의 끊임없는 시장개방 압력과 특혜관세 철폐 등의 국제 시장의 악조건 및 원화 절상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발전을 거듭하여 사상 초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때로는 노사분규의 현장에서 위협적인 각목세례를 감수하면서 경제정책에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들과 저의 피와 땀이 서려있고, 이와같은 선진이라는 빌딩의 초석은 바로 우리들의 피와 땀의 응집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나라의 통계는 끊임없는 발전을 지속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지난 한 해동안 지역통계 개발 및 사회통계 개발을 위해 본부와 지방사무소가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이제 우리의 통계도 선진대열에 입문할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해동안 겪으신 노고의 한 부분이겠지만 스스로 보람을 느낀 일이며 본부와 사무소 소장님과 조사담당자인 제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만들어낸 아름다운 통계 작품이기에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지난 여름에 노사분규가 한창이었을 때에 제가 담당하는 S사업체에서도 임금인상 및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스트라이크로 인하여 조사주간이 끝나갈 때까지 조사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두 사업체도 아니고 여러업체가 분규 중이었지만 유독 이 사업체는 회사 정문에 두터운 바리케이트를 치고 각목과 돌맹이로 무장한 폭도로 변한 노동

자의 합성이 외부인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임무도 막중 하였지만 회사 담장에 쓰인 검은색 페인트의 글씨들이 어두운 사회 현실을 대변하는 내용이었기에 조사임무의 수행과 노사분규의 종식이라는 개인과 국가의 문제에서 저 또한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18일 18시는 우리의 조사가 마무리지어 져야 하고 배회하는 노동자의 질서 없는 행동처럼 저의 조급한 마음도 깨진 유리조각들과 불탄 회사버스가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그 회사 주변을 맴도는 정도로 그쳐야 했습니다.

조사요원 2년생인 제 용기로는 감히 그 위기의 험악스런 정문을 통과할 수 없었고 전화도 불통이어서 담당자를 만난다는 것은 흐린 하늘에서 별을 찾는 것 보다도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마감날이 내일로 박두하였을 때 소장님께서 팔을 걷고 나셨습니다. 소장님께서서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조사가 끝나지 못한 6개 사업체의 담당자들과 함께 사무실 미니버스에 타시고는 분규업체를 직접 방문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참으로 진정한 용기를 보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하나 둘 이체는 노신사의 대열에 들어서신 소장님께서 각목이 난 무하는 분규 사업체의 정문을 당당히 방문하셔서 그들의 분노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어렵게 담당자를 만나서 조사 만기시간 전까지 자료를 보고해 주겠다는 담당자의 확답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6개업체를 모두 돌고 나서 만족한 성과를 올린 우리는 “아빠

꼭 승리하고 돌아오세요.”라고 페인트로 쓰인 사업체의 담을 지나 나오며 참으로 수고한 자만이 웃을수 있는 웃음을 웃을 수 있었고 때늦은 점심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 이 무더운 여름날의 땀이 한국 통계지수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한 이 나라 경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그것은 봄이오는 소리 처럼 은은한 기쁨이었으며 방황하던 저에게 직업의 사명감을 갖게 하여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서 이나라 경제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초석이 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사 명 감

서울 남부출장소 김진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계조사의 현장에서 일하게된지 겨우 5개월 정도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사례를 발표한다는 것이 쑥스러운 일인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례보다는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느낀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국에 여러해 근무하면서 피상적으로나마 조사업무가 어렵다는것은 알고있으나 막상 실전에 뛰어들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그럴수록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나오면 안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타이르며,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뛰어보는 것입니다.

조사는 우선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부터 시작되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자의 의도대로 응답자가 조사의 목적을 잘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인정이 메말라가고 의심만 들어가면서 거의가 귀찮고, 바쁘고, 짜증내며, 자신의 화풀이까지 몰아서 퍼붓고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전에 문밖에서 몰아낼때, 들어서야할 문은 열리지도 않고 대꾸조차 하지않으려할때 우리들은 그래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못다이룬 일은 내일 그리고 모래, 계속하여 두드려보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때까지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생김이 각기 다르듯이 그들의 생각과 성격 또한 각양각색으

로 우리에게 부딪쳐올때 우리는 그들을 다양하게 대응하여 조사목적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답고 부드러운 어조로, 미소로서, 우선 상대방을 안심시키면서 설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며 우선 신뢰감을 갖도록 하면서 꾸준한 설득과 성의를 다하다보면 십중팔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상황속에서 조사원 각자가 홍보 역할도 겸해 조사목적, 방법, 내용등을 무리없이 전하면서 응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는 그런대로 인식이 잘되어 있고 협조가 되는 반면, 표본으로하는 도시가계, 경제, 사회조사등은 생소하고 안할려고 하는 거부감이 심합니다. 매 스킴을 통해 통계발표를 관심있게 들었거나 과거 통계조사에 응했던 사람은 처음 부딪쳐 보는 경우보다 협조가 좋은 경우를 보더라도 홍보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가 정확한 통계결과를 원할때 무엇보다 개개인의 정확한 통계조사 답변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사회전반적인 여건조성과 발전적인 통계조사 인식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만 줄입니다.

## 모나리자의 미소

경북 통계사무소 박 종 명

무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늦으나마 인사 드립니다.

저는 경북통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박 종명입니다.

먼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원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제가 느낀 보람을 여러분께 소개 하고자 합니다.

'78년 꿈 많던 단발머리 소녀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에 부딪혀 왔지만 이제는 지난날의 일들을 보람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흐뭇한 마음!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을것 같군요.

저는 '78년도 경북통계사무소에 발령 받아 사무실 내근을 4년쯤 하다가 지금의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통과 눈물이 뒤따른 날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경험들은 우리 조사요원이라면 누구나 겪어본 사실이기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준 묘한 인연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조사구가 대학가 주변이어서 하숙가구가 많았는데 그 학생들과 사무소 동료 직원들과의 극적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 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한 아가씨가 눈이 아파 못나가게 되어 동료직원의 성화에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제 앞 자리에 앉은 학생이 마주보는 사

람끼리 파트너를 정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앞에 앉은 학생의 얼굴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꼭 숙인채 차 한잔을 한후 헤어졌습니다.

그날의 인연을 계기로 그 파트너가 오늘의 평생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때 제가 아주 순박하고 수수한 모습이 그의 뇌리에 찍 인상 깊었다더군요.

저의 직장생활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지요?

이제 세월이 흘러 88년 올해에는 저도 어엿한 학부형이 된답니다. 또한 87년도 인구동태 특별조사 조사원 채용시 조사구의 아주머니를 추천해 주었더니 직접 조사를 하여 보고는 추천해준 저의 체면을 봐서 잘못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씌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홍보활동까지 겸하여 경상 조사업무에 보탬이 되게 하였습니다.

조사업무중에 유산경력까지 질문하여 불용가구가 몇가구 있었는데 같이 그 가구에 가서 설득에 협조를 해주어 저로 하여금 주민들과의 담을 허물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사원 생활이 전부 힘든 일만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조사가 추가되면서 칠성동에 있는 새동네 아파트 조사구를 처음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아파트의 특성은 시장부근이라 상업하는 가구가 많아 가구원 부재중인 가구가 대다수여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은 개인 사생활이 침해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외관원들의 성화에 시달려 온터라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소극적이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모든일이 자기 뜻한바대로 되는것이 아니듯이 자신만만하고 잘 할

수 있다는 굳은 마음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현관문을 채 열지도 않은 채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지만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설득을 하다보니 거의 조사가 가능케 되었는데 특히 심하게 불응하는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수차 벨을 누르고 기다려도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계속 벨을 눌렀더니 안에서 “누구세요”하였습니다.

“저 경제기획원에서 왔습니다.”하니

“지금 바빠요 바빠.”하더군요.

저는 “아주머니 잠깐이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벨을 한번 더 눌렀더니 조금전에 들려오던 목소리의 주인공 아주머니가 나오더군요.

“이제 됐구나.”하는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갑자기 떡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떡살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호흡을 가다듬고 그사람의 손을 떼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례품으로 양말이 나와 “아줌마, 양말 전해드릴려고요.”하면서 양말을 내밀었더니 “필요 없어요.”하고는 “바쁜데 별개 다와서 야단이야.”하더군요.

여러분 만약 이 일이 업무중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라면 전 그자리에서 한마디의 말로 쏘아부치고 그자리를 돌아서 나와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어디 저 개인의 일입니까? 조사원의 일이요 나아가 국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한것과 같이 조사원의 자신감, 보람, 그것들이 언젠가 저를 찾아 지금의 어려운 댓가가 분명 나에게 오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것을 참을수가 있었습니다.

사례품을 받느니 안받느니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아랫층 윗층에서 아주머니들께서 나오시더군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니 부끄럽고 비참하여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군요.

아랫층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 차한잔을 끓여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와는 다른 따뜻한 인정에 눈물을 거둘수 있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시며 섭섭하고 분한마음을 달래고 조사표 가방을 메고 나오면서 “짹하고 해뜰날 돌아오겠지”하는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며 그가구의 구성원을 보니까 할머니 되시는분이 박 차규 씨였습니다.

관할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할머니의 호적을 보니까 본관이 저와 같았습니다. “아! 되었구나!!” 생각을 하며 그 불응가구를 재방문 하였습니다.

마침 할머니께서 대문을 열어주셔서 할머니와 몇마디 이야기 끝에 할머니의 본관이 어디냐고 여쭙었더니 순천 박가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본관이 같군요 하니 할머니께서 “아이구 일가이구나.”하시면서 제가 하는 조사업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심한 불응은 친척으로써 완전히 해결되어 아주머니와도 친해져 하루는 가니 좋은 영양제라며 꿀과 인삼, 화분을 한통 주시면서 가져가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먹어서 좋은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친해짐과 동시에 나의 자신감과 보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88년도 표본교체라는 중요한 업무앞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적, 내적성장을 도모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사원이 하는일이 어려운 일인만큼 그 보람 또한 큰것이라 생각하기에 어떠한 어려움 앞에도 좌절일랑 하지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의 일들이 국가발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조사원의 고통은 어찌보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올때의 고통’과도 비유할 수 있는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책임있는 행동양식을 갖는데는 많은 진통과 고통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

일단 던진몸 흘러가는 세월은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이 길이 나의 길이라면 나를 이기는 길이 나의 발전이 되고 나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 된다는 것은 상기시키면서 나의 조국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는 굳은 신념으로 오늘도 이길을 보람으로 믿고 묵묵히 가렵니다.

항상 모나리자의 미소를 상기시키면서……

## 통계조사와 나의과거, 미래

충남 통계사무소 민 재 흥

88년 새봄을 맞이하는 삼월의 문턱에서 통계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 충남사무소에서 근무한지도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통계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시작된 사회생활의 시초가 통계였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통계조사에 임해왔지만 4년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지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통계조사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조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생각하며 지난 시간의 통계조사에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계조사 담당자 자신이 통계에 대한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처에서 새로운 소재가 다양하게 개발되는 시대이므로 조사대상처에서 응답한 자료가 통계조사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요구될때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자료가 주어진다해도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계조사가 국가의 경제정책에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국민이나 사업체에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통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사업체에서 통계에 대한 자료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계의 역할이 대단한 한 몫

을 차지하면서 사업체나 국민에게 어떻게 통계가 작성되고 어떻게 이용되어지는가를 홍보하고, 통계는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국가 및 국민 또한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의 통계라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셋째, 통계조사원은 통계조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과 달리 왜곡되지 않았을까? 하는 국민 또는 다수의 사업체들로부터 통계가 불신받는것을 느끼면 조사원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통계가 왜 불신받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과 함께 그동안 열심히 뛰어온 지난 시간들이 후회스럽기도, 통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사한 통계가 국민 또는 다수의 사업체들로부터 불신받는 통계가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과 통계조사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국민 또는 다수의 사업체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통계, 신뢰받는 통계가 되리라 믿읍니다.

지금 현재의 이시간에서 지난날 저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통계조사를위해 성실하게 노력 했었는가? 통계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성을 발휘하였는가? 지난 4년동안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였던가? 지금 이시간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일이 없읍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통계조사를 위해 내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만 국민과, 사업체로 부터 믿을 수 있는 통계, 신뢰받는 통계

가 될 것인가를 반성과 다짐하면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가 있는 날이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각 가구를 방문하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 방문가구는 조사지역에서 외딴곳에 떨어진 가구였고 가구주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방문했던 그날도 음주를 하셨습니다. 전에도 제시했던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안녕하세요? 경제기획원에서 매월 인구조사하는 사람입니다.”하고 말씀드렸더니 “경제기획원요? 왜 우리집만 인구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 전체에 대하여 인구조사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누구기에 여기까지 와서 조사 합니까?” 하셨습니다. 저는 조사하는 가구의 가구주 성함을 말씀드리고 인구조사는 표본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경인요도를 펴보이면서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계시던 아저씨는 “당신 아무래도 수상한 사람이니 파출소로 갑시다.”하시면서 제 팔을잡고 파출소로 가자는 것입니다. 통계조사를 하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불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저씨, 인구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수상한 사람이냐구요? 매월 몇 차례씩 방문하면서 인구조사하는 사람에게 수상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하면서 팔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저씨는 막무가내로 “쓸데없는 말은 하지말고 일단 파출소로 갑시다”하시면서 팔을 잡고 파출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제자신이 생각해보아도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아저씨와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제 신분을 확인시켜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파출소에서 신분증을 내 보이고 제가 조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야 경찰관 아저씨의 덕분으로 제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를 이해시킨 뒤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사를 마치고

옵니다만, 그래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제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지않았나 생각하면서, 도시 보다는 농촌 지역에 통계조사의 중요성과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것을 다짐하면서 발걸음을 들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으로 볼때 더많은 홍보활동과 조사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통계조사에 있어서 저뿐만이 아닌 여러분께서도 저보다도 더한 큰 경험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미래에는 통계조사에 성실한 마음으로 사회와 국민을 위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국민의 마음으로 알고 통계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의 기쁨

강원 통계사무소 현 경 옥

남(南)으로부터 개나리 봄소식이 전해오는 새봄의 문턱에서 잠시 뒤 돌아보는 금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포근하고 청명한 날들이 많아 가구를 방문하는 저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겨울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만 9년 동안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생활해온 강원 통계사무소의 현 경옥이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처음 입사할 당시 내성적이고 활달하지 못한 성격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대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이르면 내 성격상 지탱할 수 있을 것이며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에 쌓였고 생활영역에 부딪치는 환경의 변화란 죽을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 이것을 타개하는데는 뼈를 깎는 인내의 자기싸움 또한 타인과의 접촉보다 백배 천배 감내하기가 어려웠으며 오랫동안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제 자신을 바라볼 때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변신한 제 모습은 아마도 시간의 징이 다듬은 보람된 제 자신의 자랑스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배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와 있고 실지조사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 모두는 누구보다도 통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국민의 통계에 대한 인식은 정부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와 별반 달라짐이 없음을 느낄때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복잡 다원해지고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희가 조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인간관계를 요구할 뿐만아니라 또한 단순한 사고력 만으로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통계업무 인지라 이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가구를 방문했을때나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대상가구의 특성과 응답 가구원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일 처리능력의 지혜가 극도로 필요한, 그야말로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을 재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면 또다른 면에서는 이 자리가 최소한의 국가를 위한 유익하고 필요한 밑거름의 일부이나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통계인의 길을 걷게된 제 자신에게도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때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간이 짧은 길든 직급이 높은 낮은 우리 누구나가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을 체험 하였을 것입니다.

통계국에 근무 하기전에는 저도 사실 경제기획원이 주관이되어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한다는 것도 전혀 잘 몰랐었으며 사실 지금 이 시각에도 경제기획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통계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때마다 조사를 하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옛말에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통계를 이해하려는 국민들 마음가지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될때 통계에 대한 적극적인 흥

보의 부족함과 아울러 통계에대한 국민적 계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통계자료수집에 열심히 일해온 저희들로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낄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반성도 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집해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통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무장도 탄탄히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9년동안 실사현장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사례 한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동태 변동조사를 위해 구멍가게와 하숙을 함께 하는 가구를 방문했을때의 일입니다. 인구동태조사의 취지와 용도등을 소상히 설명한후 본조사에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입해온 하숙생의 인적사항을 차근차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숙집 아주머니께서는 대담대신 “왜 자꾸 다니며 귀찮게 구느냐? 한번 해 주었으면 됐지 남의 식구 비밀과 가정사정을 물어 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꾸 이런 조사를 하러 나오면 하숙하는 사람들이 하숙을 옮긴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리 본조사의 목적과 비밀유지에 대한 통계법을 설명하고 설득하여도 벽이 구별없이 문이었고 먹고사는 것이 너무나 벽차다는 이유로 자기와 조사용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핑계삼아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주머니가 너무 답답하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침 하숙생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질의 응답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젊었고 배운사람 같다는 느낌에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

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또다시 본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열심히 설명한 후 아주머니를 설득해 달라는 무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를 더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전엔 공무원이었는데 그런거 뭐가 그리 중요해서 대충 해가면 되지 무엇하러 싫다는데 좋은 소리 못들어 가며 고생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동정아닌 동정으로 그 사람은 일언지하에 말문을 막아 버렸고 안간힘을 썼던 저는 싸울래야 싸울힘이 없어졌고 닭 쫓던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꼭 하고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돌아서서는 않된다는 마음의 소리가 저 밑바닥에서 부터 솟구쳐, 아저씨! “공무원이셨던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주머니가 조사안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탓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세금으로 많은 인력을 쓰는 나라에서 대충 일 하라고 조사하는 우리를 두었겠느냐”고 말입니다. 사회란 복잡한 각양각색의 개성이 모인 집단이라 그러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선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오히려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것을 목도하고 보면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차원의 대책이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길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의 재방문은 정말로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또다른 가구에서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열심히 대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있다. 되돌아 오기도 하고 웃으며 “또 왔어요”를 몇번씩 되풀이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퇴근길 이었습니다. 뜻밖의 아줌마는 “참 대단한 아가씨유 내가

졌수”하는것이 아닙니까. 무언가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환호의 소리가 컷가에 아득히 들려온 것입니다. 순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 귀절이 닫힌 가슴을 활짝 열리도록 마음을 쫓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일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든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개인의 영달과 이해에 얽힌 그런 조직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나라전체의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다면 얼마간 굴욕적인 언행과 인격적인 모독에도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대승적 견지로 생각한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하늘에 먹구름이 끼여도 그 뒤엔 무한히 빛을 발하는 태양이 있는것처럼 말입니다. 구름을 뚫고 새어나오는 한줄기 빛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와 우리가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료가 수집될때 그 얼마나 큰 우리의 기쁨이겠습니까? 기쁨과 보람이란 멀리있지 않는 자기가 많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그 근본뜻이 전달되어 굳게 닫혔던 이해의 벽도 허물어져 반사의 빛이 우리의 가슴으로 비칠때 삶의 보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더 큰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작 은 정 성

서울 북부출장소 김 기 현

매섭게 눈보라치던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컷가를 스치는 바람이 제법 싱그럽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정녕 봄은 멀지 않았나 생각되는군요.

일년전 고도 부여에서 전국 통계가족을 만나본후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일년은 어느때 보다도 사회적인 변화가 심했던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학원소요, 호헌과 개헌의 공방, 6.29 선언, 노사분규, 대통령 직선, KAL기 폭파 등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밀어닥쳐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였읍니다만 사회가 혼란하더라도 한시라도 중단될 수 없는것이 우리의 일이라 전국의 통계인 여러분들이 어느때 보다도 어렵게 일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민주화된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속에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려면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체험한 사례 한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 지금까지 협조가 잘 이루어지던 S합섬을 방문하니 공장의 생산직 종업원만 일을 할뿐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사무직원은 어디 갔느냐고 물어도 무조건 모른다고만 대답할 뿐이어서 재방문을 하기로 하고 다음날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생산직마저 없이 텅비어 있었습니다. 인근에 물어 보아도 어디로 이사했는데 이사간 곳을 모른다는 대답만 듣고 동사무

소의 담당자에게 사장집 전화번호를 알아서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도 공장이 경기도 양주군으로 이사간 것은 알아도 주소나 전화번호는 사장  
님이 돌아와야만 안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사장님이 오시냐니까 언제 집에  
들릴지도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해 달라고 번호를 알려  
줬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 의정부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  
인해 보니 며칠전 날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엔 주  
소만 있을뿐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S  
합섬을 찾아 나섰습니다. 초행길이라 네시간을 헤맨 끝에 공장사무실을 찾아  
들어서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장도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올  
수도 없어서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니 한시간여 지나서 담당과의 부장이 들  
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힘들게 찾아왔으니 바로 조사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부장은 사장의 허락이 떨어  
지기 전에는 자료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하던 조사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냐고 물어도 좌우간 사장에게 모든것을 밀기만 하  
며 응답을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은 사무실 귀청시간 때문에 허탕을 치고 오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장결재가 나자마자 또 그회사로 직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사장은 부  
재중이었습니다. 행선지를 물으니 “서울에 가셨는데 저녁때나 돌아오신다”  
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째 방문에서 간신히 사장을 만날수 있었습니다. 사장  
은 다짜고짜로 왜 이 먼데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이나 힘들여 찾아온 사람에게 대하는게 꽤 씹힌 생각이 들어 나도 모  
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언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장은 남의 회사에 와서  
시끄럽게 굴지말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가면 이 회사는 앞

으로 무슨 조사를 해도 애를 먹일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가리라 마음먹고 감정을 가다듬고 대화를 유도 했습니다. 사장의 말을 들으니 회사의 사정상 사장의 감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서울의 공장이 공해업소로 철거명령을 받았는데 주변에 다른 업체는 봄까지 철거를 연장해 주면서 그 회사는 바로 철거를 하라고하여 서울근교를 다니며 공장을 어렵게 물색하여 관공서에 찾아가서 설립신고를 하려고하면 몇번이나 트집을 잡아서 설립인가를 미루는 바람에 이전이 늦어지고 물건납품에 지장을 많이 받아서 관공서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달라니 같은 관공서라고 직원들에게 응답을 못해주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차분하게 기획원자료의 작성과정과 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였더니 결국은 승락을 받았습니다. 승락을 하며 사장이 하는말이 경제기획원 사람들은 단정하고 매너가 깨끗하여 대답해주는거지 다른기관 같으면 앞으로도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조사상 가끔은 일어날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 높아가는 시민의 민주화 의식속에서 우리도 통계 자료를 수집하려면 우리의 의식수준도 관청에서 하는 일이니 무조건적인 의무감 때문에 조사표를 작성해준다는 방법보다는 회사 담당자와 우리의 관계가 보다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어 조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려면 우리도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대화기법도 세련된 언어구사에 힘써야 하며 통계의 기초지식 정도는 담당자에게 설명을 할줄 알아야 하며 작은일에서 부터 성심성의껏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 통계조사의 보람과 금지

경기 통계사무소 유 미 영

조사구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가구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응하는 가구의 유형을 보면 통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통계자료를 불신하며 사생활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응하는 가구에서 하는 질문은 ‘왜 이런 조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통계자료가 무슨 쓸모가 있으며 과연 이 통계수치가 맞느냐, 그리고 국가에서 나에게 뭘 해 주었느냐’는등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때면 저는 최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게 먼저 우리 통계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왜 응답자의 의견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며 응답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응답자의 현실 생활은 물론 우리 사회현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으며 통계조사 결과가 국민의 생활개선과 사회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케네디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 얼굴이 무색할 정도로 불응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통계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조사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입니다. 한 가구에서 “아가씨 여기는 우리 집이야, 대문 안에 발도 들여 놓지마. 차라리 거지라면 동전이나 쥐서 돌려 보냈으면 좋겠어”라는 말

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수치, 모욕감에 눈앞이 캄캄하고 걸을수도 없더군요. 거지라면 동전이나 주다니요. 수원 사람 ‘별거벗고 삼십리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독한 깡쟁이란 뜻입니다. 저도 수원에서 나서 자랐지만 이렇게 지독하고 몰상식한 사람 처음 보았습니다. 그 사람 너무 했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만 했으며, 나는 왜 그런 말을 들어야만 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 모욕, 수모, 수줍음 잘 타고 무지한 저에게 유능한 조사원이 되라는 채찍의 말이라 생각하며 지금도 조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석수동 도시가계조사 지역에 한 가구가 이사왔습니다. 그 가구는 아들과 어머니, 두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게부를 쓸 수 없었고 아들을 만나 가게부 기입을 부탁해야 하는데 제가 퇴근 후에 그 집을 방문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의 직장을 찾아가서 가게부 기입을 부탁 하던터니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가게부 놓고 가세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지더군요.

며칠후 잘 쓰고 있나 확인을 나갔더니 그의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게부를 직장에 가지고 가서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다음 달에 가게부 회수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 날 제가 받은 가게부는 빈 가게부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직장을 찾아가졌습니다. 몇 차례 찾아가지만 저를 피하고 만나주질 않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남자가 무슨 가게부를 써요. 미안해요.”하면서 번번이 끊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생활신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인데 이런다고 포기합니까?

이번에는 하는 수 없이 눈코뜰새 없이 바쁘신 우리 남자직원에게 남자 : 남자로 설득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효과가 나타나더군요. “남자분과 아가씨 끈기에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 집 가계부는 현금잔고까지 일치하는 정확한 가계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계부 받아 볼때면 정말 기분 뿌듯합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통계자료가 각계 각층에서 신뢰받고 널리 이용되며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때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끝으로 통계조사를 맡고 있는 우리 조사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소신껏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부산 통계사무소 김 봉 원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예향의 본고장 충청도하고도 속리산 기슭에 자리잡은 법주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통계 동지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전국 명성지 중에서도 국립공원 관광지로서 더욱 알려진 이곳에 종합교육을 유치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조사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 400 여 통계동지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고 어려웠던 한해를 조용히 보내고 용이 응비하듯 희망찬 대망의 무진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보통 사람들의 시대”인 제6공화국이 장엄하고 웅대하게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세계의 여론과 국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다가올 2000 년대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의 주도국으로서 발돋움할 기틀을 다지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써 출발 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우리의 정신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이번 교육이 무척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동지여러분!

작년 우리의 경제는 전세계의 여론과 정치·경제강대국들이 두려운 눈

으로 주시할만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수출 472억불, 경상수지흑자 98억불, 1인당 GNP 2,850\$, 경제성장을 12%등의 경이적인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꼭 광공업사업체의 생산근로자만의 힘, 탁월한 경영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발전지향적이고,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최일선 Field에서 각 통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정리한 우리동지 여러분의 노고도 또한 대단한 기여를 하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계동지 여러분!

Field에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한 두번씩 겪어보지 못한 분이 있겠습니까? 경력이나 능력면에서 장장하신 선배님들 앞에서 경험담이나 조사방법을 얘기 한다는게 쑥스럽습니다만 그간 소직이 조사현장에서 경험한 체험담 중의 한예를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바닷가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신규 사업체 H회사인데 관리직원 3~4명, 생산직원 40여명되는 중소기업체였습니다. 가공어패류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85년 부터 소급조사”실사였지요. 기존조사업체들도 소급조사라면 인상이 험악해지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처음 방문하여 사장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공문과 조사표를 내놓았습니다. 한 50세되어 보이는 사장님이신데 처음 대하는 순간 외적으로 풍기는 감정이 좀 짜졌구나, 조사를 하는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더욱더 자세를 가다듬고 본조사의 취지 목적과 그리고

경제·통계의 상식등을 한참 열심히 설명하고 나니 한마디로 잘라, 아니나 다를까

“이거 뭐할라꼬 하요 ”

“이거 해준다고 돈(용자)을 주요, 밥을 주요, 무슨 혜택이 있소”. “시간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요”.

“미끈하게 생긴 젊은이가 참 할일 없는가 보다” 등등 인간이하의 모욕에 재삼 기억조차도 싫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욕에 하도 분해서 마음속으로 울먹이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조용히 돌려 바로앞 푸른 파도가 말없이 넘실거리는 방파제에 올라 앉아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한참동안 파도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내가 세무서 직원으로서, 아니 시청 식품위생과 직원으로서 갔다면... 이런 모욕은.....

정말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못난 자식, 억울하고 분하면 출세해라. 아니야 현재 처해진 현실이다. 그래 좋다.

저 사장과 이 업무로 싸워서 이기면 통계밥을 먹고, 여기서 좌절하면 끝장이다하고 입술을 다시 깨물고 새로운 다짐을 하였지요.

그 다음날 통계밥을 들고 갔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그냥 외출을 가버리더군요. 직원께 말씀드렸더니 사장님만 알고있다고 하면서 마치 의논이나 한것같이 일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통계법이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이후로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갔지만 사장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여섯째 가던날 칠전팔

기라 오늘은 무슨 결판을 내자하고 퇴근 하자마자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모퉁이 구멍가게에서 맥주 2 병을 사가지고 갔지요. 최후의 카드였지요. 썩어가는 고기 비린내가 물씬거리고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처리장을 지나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갔더니 마침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사장님! 경제기획원 직원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잠시 시간좀 내어 주십시오. “또 통계요”, “예, 세무조사가 아니라 통계조사입니다”. “얘기할게 없소” 하시면서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또 자초지종 통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실득을 하였지요. “사장님! 인간적으로 제가 사장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어 보십시오” 잠시 있으니 사장님께서 “내가 없는 사이 몇번 왔다간 모양이더군.” “예! 시간이 없어서……”.

“젊은친구 정신자세가 좋소.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내가 통계를 모르는게 아니요.” 이때 사갔던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못된 공무원 때문에 회사가 타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니 세상에 믿을 사람없다는등 푸념을 털어놓으시더니 차분한 어조로 “현재 사무실에 ‘85년부터 자료가 없으니 내일 회계사무소에 직원을 보내 준비해 들테니 한번 더 들려주세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경리아가씨를 부르더니 “제품창고에 가서 제품포장 잘해서 김주사 줘요.” 아무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각종 통계조사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없고 강력한 구속력이 없음을 알고 어떤 못된 담당자 사업주께서는 이를 역이용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다는 사례도 지나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각계각층의 올바른 통계의 인식,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통계조사란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불어도 주어진 업무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전천후 사나이들이 바로 통계동지 여러분이 아닙니까?

어떤 선배 한분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 주더군요.

봐라 친구야!

자네나 나나 대재벌의 총수처럼 세상에 돈으로서 명성을 떨치기도 틀렸고 유명한 정치가나 저명인사처럼 선택된 인물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틀렸지 않느냐. 그럼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자꾸나.

존경하는 선배님, 동지여러분!

공무원으로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군으로서 오직 인내와 패기를 가지고 묵묵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빛이 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끝으로 통계동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 나의 체험

서울 동부출장소 장 정 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장 정란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이하 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험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앞으로의 저의 조사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도 역시 조사업무를 시작할지 올해로서 꼭 십년이 되었나봅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동안 우리의 처우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우리의 업무도 많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나름대로 몇번씩 체험하신 일들이지만 그중 저로서 가장 잊을수 없었던일 몇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조사원으로 발령 받은지 몇개월만인 78년초에 시작했던 국부통계조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담당했던 용산구 효창동은 부촌으로 불용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가운데 다이아반지 몇부짜리인가에서 부터 손가락이 몇개인가에 이르는 국부통계 조사는 조사하는 저와 응답자를 질리게 했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수차례에 걸친 재방문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 한가구는 아주 속을 썩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은 동사무소와 연락없이는 발을 붙일 수도 없는 곳이었고 다행히 동사무소의 통담당은 많은 경력과 오랜경험으로 매우 협조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는 아주 그분에게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날도 동사무소를 찾아 그분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한 후 그분이 약속해 놓은 시간에 다시 찾아간 시간은 오후 8시가 지

나서였고 어렵게 가정부의 안내로 거실에 안내된 저는 그 집안의 분위기에 놀려 앉지도 서지도 못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친구는 저와 조사원 동기생으로 어려운 조사에 서로 힘이 되어주었던 지금은 서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신 복임입니다. 한참을 기다려 나타난 마나님은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얼굴엔 콜드크림으로 번질번질하게 맞사지한 모습의 불상 사나운 모습이었으나 이렇게라도 조사에 응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으로 어렵게 어렵게 한참을 조사하고 있을 때 친구도 아마 그 집안의 분위기에 한껏 위축이 되어 있었는지 손가락이 몇개인가 묻는 나의 물음에 화가나서 갑자기 소리지르며 일어나는 마나님과 함께 같이 소리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십이 갖님은 어리고 여린 마음에 잔뜩 주눅까지 들어 있는데 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해 3 월은 겨울못지 않게 몸도 마음도 추웠습니다.

어서 3 월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다면 조사원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까. 그 집을 나서서 우리는 이미 갇갇해진 어둠속에서 하얀이를 드러내고 소리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지르며 키득거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조사원 생활 십여년이 지난 지금은 꼭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계부 하느라고 며칠 출장 못나가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쭈시고 근질 근질하지요? 적성에 잘 맞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요즈음은 강남구 역삼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3 층짜리 연립주택으로써 1 동이 열두가구로 6 구역 2 동이 또한 열두가구로 7 구역입니다. 그중 7 구역의 한가구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택은 처음 분양받은 가구로 그 연립주택의 터주대감이며 가구주 처는 반장일을 보고 있고 가구주

는 개인회사 회사원이며 딸과 아들을 두고 있는 사십대 후반의 중년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인구조사 조차도 불응합니다. 불응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유가 많은데 이 아주머니는 꼬치 꼬치 캐물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아무튼 벨을 눌러 제 목소리가 확인되면 문도 열어주지 않을뿐 아니라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그 가구에 오는 손님, 물론 손님은 친정 여동생이나 남동생 친정어머니 정도인데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혼란을 잘 시켜놓았는지 경제기획원에서 인구조사 왔습니다”라는 소리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느날 수위 아저씨 말썽이 반상회를 했다며 저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장 아주머니가 화가 몹시 났다는 거지요. 이유는 202호 아주머니네 이름이 적힌 종이를 제가 찢어서 계단에 뿌려 놓았다는 거지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역삼동에 취업시간표를 배부했었고 202호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깐 꼭 좀 써달라는 인사말과 함께 그집 우편함에 넣어 두었던 취업시간표를 동네아이들이 찢고 장난질을 친것입니다. 저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배부한 조사표를 제가 찢어서 계단에 뿌려놓았다며 반상회에서 반장으로써 저의 출입을 제제하는 그 가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걸음에 202호로 달려가서 벨을 눌러 경제기획원에서 인구조사 하는 저임을 밝혔으나 대답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조사는 그만두고 아주머니를 꼭좀 만나서 할 말이 있으며 아주머니도 제게 할 말이 있을게 아니냐고 문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제게 할 말이 있었던지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생각같아선 내가 취업시간표 찢어버린걸 봤느냐! 증거를 대라! 왜 알지도 못하고 반상회에서까지 헛소리를 하느냐! 도대체 당신 뭐하는 여자

나!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인구조사에 한번이라도 성의있는 대답은 커녕 문이라도 열어준 적 있느냐며 신경질을 부리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는데는 우리 조사원들은 이력이 나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응으로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한번보고 안볼 사람이라도 나중을 봐서 그러지 못하는 법인데 싫어도 내일 또 봐야할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두들겨도 꼭 잠겼던 현관이 활짝 열린김에 잘 하지 못하는 언변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한애기를 또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협조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배부중이던 온도계를 드렸습니다. 답례품 덕분인지 그 아주머니에게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겹연쩍어하며 도장을 건네주던 202호 반장 아주머니! 지금은 조사구의 쌀집에서 만나도 먼저 인사를 건네오고 가깝게 지내던 연립주택의 몇몇가구에서 하시는 말씀이 202호 반장 아주머니가 요즘은 제가 하는 통계조사에 협조를 부탁하기까지 한다고 하는걸 보면 마음도 활짝 열렸지만 답례품도 축진제의 역할을 단단히 한몫 한것이 아닐런지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해 제게도 정겨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만 불교신자인 어떤 아주머니는 집에오는 손님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며 꼭 무엇이든지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는가 하면 또 어떤 아주머니는 제가 둘째딸을 낳은 후 방문했더니 애기 낳은사람 그냥 보내면 지붕에서 까치가 운다며 한사코 사양하는 제게 고마운 대접을 베푸시곤 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몇개월 지나지 않아 조사구가 전면 교체되니 그동안 정들었던 분들과 헤어지게 되어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사구에서 보다 새롭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에 임할 때 마다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을 하지만 응답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불응 앞에서 우리의 결심은 산산조각이 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란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조사자와 응답자 사이에 두터운 신뢰로 거짓없는 응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라고 싶은것은 보다 좋은 통계를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진정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통계요원 모두 각자 맡은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더욱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통계 수집현장을 달리면서

경북 통계사무소 유 연 창

오늘 이자리에서 국장님을 위시하여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통계조사요원들이 1년에 한번이지만 이렇게 시설이 좋은 여건속에서 종합교육이라는 자리를 같이 하게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경험이라할까 소감을 발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973년 11월 1일자로 조사통계국과 인연을 맺어 경북 청송에서 조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임시직으로 일정한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근무하면서 1개월에 2회 정도 도청사무소에 조사표를 제출하면 업무가 끝났습니다만, 1979년 부터는 복무위탁이 되어 명실상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통계란 실상보다 허상이 많은게 사실이었던것 같습니다. 통계생산의 현장을 달리는 본인이나 행정당국 통계담당자들의 인식이 힘이 없는 자리, 잠시 머무는 자리, 과중된 업무에 비해 인기없는 자리가 통계업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통계를 계승발전 시키기는 커녕 그 자리를 떠나려는 심정들뿐인 과중에서 어떠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시지역은 남자직원들께서 경제활동 인구 동태조사를 많이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주재지역 군부에 계시는 동료들께서는 거의다 경제활동, 인구동태조사를 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경제활동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표본이 경북 북부지역의  $\frac{1}{3}$ 에 해당하는 많은 가구가 선정이 되어 출생, 사망, 전출입, 가임여성포착등 변동상태를 파악하

기란 말할 수 없는 고충이 따랐지만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구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었고 진실과 성실로 열의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고 어떤때에는 상담자가 되어주고 생활의 설계자도 되어 대화를 하면 우리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광공업동태조사도 지방에는 광산들이 첩첩산골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편은 1일 1회 밖에 운행하지 않고 심지어는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 대상처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언젠가 예비실사 대상사업체가 청송군 부남면 이현동에 위치한 고령토광산으로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체가 위치한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부남면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부남면에서 16 km되는데, 교통편이 불편하여 하루한번 운행하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일찍 차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각오를 하고 걸어서 현장을 답사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남면에 버스로 도착하여 따가운 가을빛을 받으며 초행인 오솔길을 따라 걷기를 5시간, 오후 2시경 작업현장에 다달았습니다. 그곳은 비탈진 산계곡 암벽이 튀어나온 깊은 골짜기 였습니다. 거기에는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현장책임자 1명과 인부 3사람이 작업에 임하고 있었는데 나의 시야에 들어온 그 작업은 진실된 삶의 모습들로 가득찬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발파작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바위에 구멍을 뚫는데 정을 권 현장책임자의 얼굴에는 햄머로 내려쳐지는 충격으로 인한 돌파편으로 뿔방울로 얼룩져 있었고 정을 쥐고있는 찢어진 장갑속의 손아귀는 뼈알간 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그토록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광맥을 꼭 찾고야 말겠다는 한 인간의

굳은 의지가 이제까지 안일한 삶으로만 져어있던 저의 뇌리에 영원히 잊혀질래야 잊을 수 없는 숭고한 생의 현장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길을 어떻게 걸어서 오셨느냐는 인사와 함께 사양하는 저를 앞세워 임시로 마련한 움집에서의 인정어린 국수 한 사발은 이제까지의 피로와 시장끼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진리와 보람을 찾기위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신념어린 현장책임자의 눈빛속에 참된 삶이란 정녕 쉽게만 이루어질수 없다는 강한 철학을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적을 설명하고 쾌히 응답해준 그 책임자의 배웅을 뒤로하고 산길을 내려오던 그날의 늦은 오후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조사에 어려움이 따를때마다 꼭 성취하고자 말겠다는 집념에 가득찬 현장책임자의 강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1980년 9월 1일 경북 포항시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한국 굴지의 철강산업이 주종을 이루고있는 이곳에서 철강이란 철자도 모르던 제가 부딪친 일은 생면부지의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통계조사원 팔년째 다시 신입직원과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부, 군부의 업무는 편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당시 맡은 업무는 광공업동태조사, 재고, 물가조사, 생산능력, 거의 생소한 것 뿐이었습니다. 동료직원들의 협조도 많았고 스스로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 모든일이 그렇듯이 열성과 성실로 이를 극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조사하고 있는 포항종합제철은 우리나라가 제철업국의 숙원이었던 것이며 현재 한울타리안에 36개 공장 38개 설비, 조강년 생산능력이 910만톤 원료 사용량 년 2464만톤 제품생산량이 년 789만톤의 막강한 강제를 생산공급 하여 국민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철강산업의 지표가 이 한 업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막

중한 임무를 수행함을 가슴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복무위탁이지만, 저희가 근무하는 사무실 또한 직원 6명에 최첨단을 달리는 온라인 시스템컴퓨터의 전산처리기능과 팩시밀러의 설치가 완비된 사무실로서 타기관의 부러움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통계의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에 대한 창조성을 발휘하고, 배전노력하는 자주성을 살려 운영을 하고 맡은바 역할을 다하여 자기개발과 상호개발에 의하여 능력을 신장하고, 이로써 활력있고 명량한 직장을 창조하여 충실한 인생을 꾸미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요원도 좀더 많은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고 상도 확대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보다 내실있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직장이라고 잡은것이 삶에 얽매이고 직장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일한 만큼 댓가를 바라는것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인 동시에 바램입니다. 사명감과 긍지로 이를 승화시키기엔 너무나 벽찬 일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계속 흐르듯이 이 교육이 끝나면 저마다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계수집생산 현장으로 갈것입니다. 많은 업무의 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광공업, 물가, 도소매, 가구표, 언제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신경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이래서 생산현장은 활기가 돌고 그리고 또 흐르는 물이 언젠가는 바다에 와닿듯이 우리 또한, 보람의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다함께 매진합니다.

## 용 해

전남 통계사무소 신 옥 례

제가 공직에 몸담은지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모가 난 부분이 닳고 닳아서 이제는 어지간히 큰 충격이 아니고서야 그것쯤이야 하는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인지 경험담을 원고로 작성해 불려고 하니 감격적이고 극적인 감정의 순간들이 아득하여 원고작성이 압담하였습니다. 우리 업무의 외적인 여건만 보여지는 타 부처에서는 자유롭고 편안한 직장이라고 보기도 한 모양입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언제 어떻게 부딪칠지 모르는 천태만상의 가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재료에 따라 요리방법이 다르듯이 상태에 따라 그 맥의 주어진 모든 여건에 따라 대화 방법이 달라야만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요원이 아닌 타 부처에서 한가지 일에 10여년을 종사했다면 우리는 전문인으로서 지금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전문인으로 인정받기 보다는 통계 전문요원이 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외적인 요인에서도 데모때문에 우리는 최루탄 가스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며 남자 직원은 사업체의 노사분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통계를 천직으로 알고 밤낮을 가리지않고 뛰었습니다. 그뒤에 국에서 질책이 아닌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에 그 고생도 살얼음 녹듯 하였던 일이 기억납니다. 천직은 처음부터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된게 아니라 몸담고 큰

무하다 보면 신념과 긍지가 생기게 되고 아! 이직업이 나에게 천직이려니 하고 느껴지더군요. 저 역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상가구 중에서 꽤나 괜찮은 층에 속하는 젊은 부부 중심 가구로서 남편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박사 코스를 밟는 중이었고 부인은 국민학교 교사로 가구표를 작성할때는 제 앞에서 남편이 우쭐대는 기분으로 대답해주시더니 가계부 얘기를 하려고 하니 부인에게 얘기하라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젊은사람답지 않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않고 불일이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역시 밖에 나가 어느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 다닐수도 없고 자기집에서도 모른체 하는데 낮 모르는 집에까지 따라다니며 설득시킨다는것도 어불성설이고 하여튼 화가 치밀더군요.

얘기를 해봐야만 요리를 해보겠는데 막무가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그날도 허탈감에 젖어 돌아왔습니다. 그뒤 토요일 오후 퇴근길에 다시 들렀더니 그 부인의 동생이라는 분이 와있었습니다. 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조사구에서 가까운 병원인지라 그길로 바로 위로의 병문안을 가보았습니다. 부인은 저를 보는순간 의외라는 듯이 아주 놀랜 표정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몸이 어떠냐는등의 얼른 위로의 말을 꺼내면서 이런 저런 주위의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맛벌이 부부의 애로점등을 얘기하는도중 하소연도 들어주고 맛장구도 쳐주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보니 밖은 벌써 어둑해졌습니다. 그날 그 부인을 뒤로하고 병원의 문을 나오면서 내 마음은 한 마리의 새로 날고픈 심정이었습니다. 그후 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계시니 방문 할때마다 만날수 있고 가계부도 지금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듯이 그 부인 역시 제

가 친언니라도 된듯이 반가워하며 차도 마시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간접 정보제공도 받아 일거양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층의 상대방을 만나든지 신뢰받을 수 있는 자세로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또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을때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것을 모두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분명한것은 통계조사에 협조를 잘해주지 않은 분들이 통계를 불신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뻔들거리는 젊은층을 대할때마다 “통계는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낼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상대방에게 주시키고 설득을 하면 십중팔구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세일즈맨(외판)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설득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까지는 무척이나 힘이든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는 물건을 돈을내고 사라는것도 아니요 신분상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원만 만날수 있다면 부딪쳐서 못할게 없다는 신념을 갖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때 통계의 생명인 신속,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 여건하에서 불평 불만 보다는 모든것을 수용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앞장설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식과 교양의 폭을 넓혀 자신감이 넘치는 통계 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현 시점에서

경남 출장소 진 영 철

숫자라고 한다면 1 2 3 4 라고 말할 것이나, 숫자라는 말을 차원 높게 보면 이 우주만상 만물이 숫자로 형성 되었고 숫자로 살아가고 숫자로 주고 받으며 끝없는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속적인 변화속에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유형과 무형의 진리를 탐구하고 다듬고 가꾸며 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이용도에 따라 숫자를 다스려 모은 것이 통계라고 본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의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마음의 자세는 이러한 사실등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문제는 통계조사에 임하는 우리들이 먼저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성인의 말에 숫자는 살아있는 철학이요 진리라는 말이 생각난다. 진정 인간과 떠날수 없는 숫자는 진리요 철학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도 숫자 부터요, 하나의 돌과 한날의 흙으로 부터 뭉쳐진 것이 태산이다. 이렇게 볼때 진정 숫자 아니고서는 성립되는게 없다.

이 모든 유형적인 좋은 결과치의 숫자는 그냥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해 지적 물적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무형적 숫자를 정립해야 된다. 가령 내가 “무엇을 해 보겠다”고 했을때 이것은 무형의 숫자를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정확도가 있는나가 문제다. 계산없는 환상과 상징적 목적을 위해 노력했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마음과 지혜에 있다고 보겠는데 이곳이 가장 중요한 숫자를 캐내고 생산하

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혼탁해 있을때는 무서운 결과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인데 가을이 온다고 계산했다면 모든일이 수포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통계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한가지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았을때 우리가 다루는 숫자상을 잘못 다스리면 아주 불행을 초래하고 잘만 다스리면 인간의 삶이 한층 편리하고 행복해질수 있다라고 보았을때 우리들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가를 가히 알 수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었던 한토막의 얘기를 소개 하고저 한다.

어느날 두형제가 집에 있던 말을 시장에 내다 팔고 노새를 한마리 구입했다. 그런데 이 노새가 말이 있던 마굿간에 들어가질 않을 양으로 앞발을 딱 버티고 아무리 당기고 밀어도 들어가질 않는다. 코를 벌름거리며 힘을 과시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식모가 왜 저 노새가 마굿간에 들어가질 않을까 하고 계산해 보았다. 그 노새는 필시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겠지 하고는 싱싱한 풀을 베어서 입 앞에 놓았다.

그랬더니 이 노새는 풀을 먹으려는 눈치이다. 이 순간 풀을 마굿간으로 가져가 노새로 하여금 스스로 걸어들어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것은 두 형제는 무작정 완력으로 그 노새를 마굿간으로 들여보내려 하고 그 집의 식모는 지혜로 그 노새로 하여금 스스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모든 사물에 순리성을 계산하면서 남의 소원도 풀어주고 나의 소원도 이루는 이 노새의 이야기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모두 맑은 지혜 밝은 지각으로 가정이나 직장 사회의 어디서나 뜻을 쓰기를 흐르는

물과 같이 하여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는 철학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어 우  
리가 처한 현 시점에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즉각 대처해 나가는 값진 숫자를 써 나갑시다.

## 후퇴 없는 전진

부산 통계사무소 이 정 숙

진주 조개가 수 많은 눈물의 결정체로 한알의 영롱한 진주알을 만들어 내듯이 “세계는 서울로, 한국은 세계로”라는 기적을 창조하는데 초석이 되는 국가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를, 사연 많은 조사 현장에서 수 많은 인고와 노력으로 산출하며 제공해 오신 우리 통계가족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무척 가슴 뿌듯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장님과 조사관리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성공한 미국 실업가가 사람만나는 일 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아마 우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껴왔을 겁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사구중에 한 조사 지역을 보면 처음 제가 이 조사구를 담당할 당시에는 조그마한 언덕들을 사이 사이에 두고 20여 가구 밖에 되지 않았고 비록 넉넉하지 못한 가게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한 잔의 보리차로 훈훈한 인정을 나누며 통계조사 업무에 적극 호응하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논과 밭이었던 자리에 판자집 대신 신축 양옥집들이 들어서면서 부터 가구수가 50여 가구로 늘어 났습니다.

신축 전입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게부 회수율은 저조해 가고 이런식으로 나가다간 큰일이다 싶더군요. 사무실 퇴근후 조사구 출근이 시작되는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통계조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진실한 대화 협조 아래에서 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판자집의 훈훈한 인간미 대신 싸늘한 양옥집 인심이 많아짐에 따라 조사하기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그 중 한 가구는 몇번을 방문 하였으나 싸늘한 인터폰을 타고 흘러 나오는 도도한 음성에 흔히 말하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곤 하였읍니다. 하는 수 없이 저녁 퇴근후 조사구내 통장 아저씨를 모시고 그집을 다시 방문 하였을때 굳게 잠겼던 대문은 열려졌고 마침 퇴근하여 집에 계신 가구주께 저의 신분을 밝히고 앞으로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렸더니 그분 역시 국가 모기관 고위 간부이시고 자신의 말단 시절을 얘기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고 부인에게도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당부 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부인 역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임을 알았답니다. 이렇게 하여 차츰 무겁게 닫혔던 대문이 열려지고 돌아서는 저의 마음은 가진자 일수록,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조사 업무에도 거부 반응이 심하다는 상식적인 사실에 기쁨 보다 서글픔이 앞서더군요. 그러기를 몇달 지난 지금은 가계부 회수율도 상당히 좋아졌고 거부 불응하던 가구들도 이제는 차가운 겨울 날씨에 방문을 하면 따뜻한 커피 한잔을 권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통계자료가 현대 사회의 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날로 더해가면 갈수록 통계 담당하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의 고충은 더욱 늘어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통계 업무는 저희 조사원들의 인사성 밝고 훈훈한 대화로서만이 아니라 통계 및 경제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할 정도로 여러 다방면에서도 두루 실력을 갖춘 조사원이 되어야 갈수록 고학력자가 많아지고 사회의 이기적인 냉담도 통계의 필요성과 함께 비례해가는 현상이고 보면 각박한 현실속에서 메말라가는 국민들의 마음으로 부터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고 또한 정확하고 성의 있는 정보를 발표할 수 있

는 몇몇한 경제기획원의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물론 이거니와 국민들의 의무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때 일선에서 뛰는 저희 조사요원들의 밝은 미소와 함께 더욱 성의있는 자료를 제공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족한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통계인, 계속 발전하는 통계국이 되길 빌며 이만 끝맺고자 합니다.

## 마라톤의 출발선에서

경기 통계사무소 최 승 일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건방지고 엉뚱해서 몇 번을 망설이고 다시 쓰고 하다보니 구겨놓은 종이만 쓰레기통에 가득한데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우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해야 하는가 만을 거듭 생각하다가 결국은 ‘길가에 버려진 못생긴 돌맹이에도 뜻이 있다’ 했거늘 조사요원 생활 365일은 누가 그냥 덤으로 준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정리 못한 한해를 여기를 빌어 정리할까 합니다.

넘치는 의욕과 자신감으로, 뛰는 가슴을 다독거리며 많은 선수들과 함께 출발선을 박차며 뛰어나가던, 학창시절의 마라톤 경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반환점을 돌면서 더위와 갈증이 문제가 아닌, 시원한 그늘에 길게 눕고만 싶은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며 이를 악물고 풀려버린 다리를 한발한발 옮기면서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몽롱한 상태로 허우적거릴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아닌 끝까지 가야 한다는 오기와 투지만이 참뜻의 승리였음을 경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얼마가 지난 사회 생활 속에서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나는 완주했다는 자부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겐 비록 까마득히 등수밖의 경기였지만 자신에 대한 승리의 소산으로써 큰 교훈이 되어 생활의 밑거름이 되는것도 이즈음 느끼는 또 다른 새로운 승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뛰며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자신의 흔들리는 나약

함에서 벗어나고자 더 극성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은 결눈질 할 만큼도 못되는 이제 막 첫 뉘백이 신참이라서 그렇게 열심이라고 하시겠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제가 가야하는 머나먼 길에 첫 걸음이 된 큰 의미의 일보가 노력하는 한 해였다면 출발선의 선수의 마음가짐으로서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많은 선배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신참 시절에는 저보다 더 새로운 각오와 투지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셨고 또 오늘을 인내와 자부심으로 생활하심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때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야만했던 통계조사요원들의 울고 웃던 흔적들을 제가 또 느끼면서 오늘의 제가 되기까지도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한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것은 저는 이미 출발선을 밀쳐냈고 이왕에 뛰어든 이상 남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어렵게 뛰고싶지는 않습니다. 신참이고 처음이고를 떠나서 정말 타성에 젖기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사업체 담당자의 비양거린 말처럼 “공무원들은 창의성이 없고 매사가 두리몽실 일변도”라는 말에 ‘개 눈에는 무엇이 제일 잘 보이더냐’고 일축하기도 했지만 혹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하여 늘 마음을 씁니다.

물론 선배님들 말씀이 아니시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계라는 업무 자체의 인식부족과 서로의 견해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으로 본연의 위치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에는 현장 조사요원들이라면 더욱 더 뼈아프게 느껴야하는 우리들의 서글프고 속터지는 현실임을 생각할때 무엇이 궁지이고 무엇이 사명감을 잊은 채 허탈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릴때도 몇번인가를 보아야했

고 또 느껴야 했습니다. 한달이면 여러날을 12시가 다되어야 풀린 솜처럼 너털대며 집을 찾아야 했고 온 종일 화난모습을 감추어 두느라고 생긴 울화를 풀곳이 없어 마실 줄도 모르는 소주에 자주 발길이 갑니다.

가을이 한창일 때 인가요. 종업원이 20여 명되는 가구공장이 광공업 조사 대상 사업체로 선정이되어 서너 차례 방문을 했는데도 사장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소급조사 마감일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속타는게 이런거구나 싶은게 퇴근을 해도 도무지 편치가 않았습니다. 사업장까지 교통편이 하루 세 번 뿐이라서 전 날도 결국 일당을 고스란히 택시에 주고도 조사는 한줄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예 피하고 만나주질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사표 제출 마감일이 임박해서 이번에도 안 되면 아예 사장님집에라도 가서 자고 올 마음을 먹고 다른곳을 다돌고 해거름에 도착해보니 사장은 광주에 내려갔고 3일 후에나 온다고 나가달라는 겁니다. 어찌면 사무실안에 대여섯명 가운데 사장님이 있을 것 같기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막무가내 사장님욕을 했습니다. 저도 욕먹다가 화가나면 무슨 말이 있겠지하고요. 급기야는 공장직원하고 대판 샷대질을 하다보니 해는 완전히 졌고 산속의 어두움은 순식간 이었습니다. 재워달라고 할 마음도 없고해서 '내일아침에 다시오겠다'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는데 후두둑하더니 점점 세찬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인적도 없고 양 옆에는 공원묘지인데 어디 쉴 만한곳은 없고 산세가 험한 비포장길이니 달릴 수도 없고, 옛날에는 산돼지가 많이 출몰했었다는 돼지고개를 40여 분 걸려 넘어오니 저 만큼 보이는 시내 불빛이 왜 그렇게 반가운지요. 춥고 배고픈 몸으로 내쳐 수원까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별도 안되는 뿌연 시야로 집에 돌아와보니 이건 흙탕물에 만신창이가 되어 사람꼴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불

어서 타올 없어도 때가 술술 벗겨지는걸 보면서 계속 투덜댔습니다. “통계법 만든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어쩌면 쓸개가 반 쪽 뿐인지도 몰라. 하여간 내일부터 출근하면 사람도 아니다. “결국 내일은 어김없이 화창하게 밝아 찾아왔고 저는 사람도 아닌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여느때와 같이 출근을 하는 저 자신을 보고 그만 실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닌가 봅니다. 우리 업무를 하다보면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할 때가 더러는 많은가 봅니다. 수준 이하의 대접을 초연하게 대처해야 할 줄도 알아야하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극배우들보다 더 능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란 말인가요? 그것이 바로 제가 보고 듣고 느껴온 통계인이란 것을 겨우 365일 조사표를 들고 뛰어온 오늘에 아주 조금쯤은 느낄 수 있는 통계인의 초연한 모습이요 정말 사명과 신념과 의지 없이는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루에 세 번 만 크게 웃을수 있는 생활이라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도 합니다. 웃겠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 등에 발표되는 저의 분신의 자랑스런 모습을 대견히 보고 웃을 일이며 내 조국의 영광된 내일의 초석이 되어 든든하게 느껴지는 마음으로 또 웃을 일입니다.

이즈음에는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봉급을 타면 절반이상은 출장비에 쓰다보니 집에서 가끔 오해도 많았습니다. 두집 살림을 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걸 봐서는 과중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쇠는 달구어 두두려야 좋은 쇠가 되고 선수는 피나는 훈련으로써 훌륭한 선수가 된다” 고요

하기는 어느 정도가 많은 업무량인지는 몰라도 웬만하면 그대로 하다가도 정말 힘들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겠습니다. 꽃게가 껍질을 벗는 아픔도 성장의 댓가로 치루듯이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통계 발전에 저의 끊임없는 노력이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함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집에서는 첫 뚝이 되면 수수팔단지에 흐드러지게 뚝상을 받는 우리네 풍습은 차치 하고라도 어제는 제 뚝 상위에 광공업 착오내용 한 건이 올라앉아 한바탕 식은땀을 흘린 날이었습니다. 식은땀에 욱 버무린 광공업 사건을 뚝 떡으로 알고 ‘이것이 내 천직이다’ 믿으며 추후도 후회됨이 없는 제 인생으로 만들까 합니다.

먼 들 녘엔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데 봄은 멀었는가? 좀 더 실질적인 조사 환경개선에 감히 운을 떼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통계인 가족 모든 분에게 행복과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오며 내내 건강 하시기를 빕니다.

## 자신과의 싸움

서울 서부출장소 감 성 숙

아직은 조금 이른 아침이다. 그러나 오늘은 일찌기 출장에 나서야겠다. 아침 시간에 늦장을 부리다보면 조사구에서 조사 조차도 채 끝나지 못한채 출장 시간에 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때이면 으례히 보완해야 할 몇군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출장명령부 기입을 끝내고 책상을 정리한후 요란한 소음을 헤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나는 습관적으로 조사구 가가호호의 특성을 살피곤한다. 변화하는 사회속에서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직업의 변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른 주부들의 부재 현상이 왕왕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는 가구까지 생각하면 순간 착잡함이 일기는 하나 제외하더라도 벌써 조사원 6개월의 생활에 다져진 조그마한 기반은 스스로에게 위로를 준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변화된 6개월의 시간들, 그동안 본부의 오랜 생활속에서도 조사원에 대해서는 그리 달가와 하지 않았던 내가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려니 쉬운일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87년 12월에 있었던 88년 사전 표본교체 작업은 가구명부와 요도작성등 과중한 업무증가와 함께 경상조사까지 겹쳐 그야말로 하루의 일과는 “힘든일” 그 자체였다.

12월의 날씨는 냉랭하고 대통령 선거일까지 겹쳐 조사기간 동안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나는 이런 어려움속에서 스스로의 인내와 지혜를 찾아야만 했으며 겪어온 몇개월간의 생활에서 얻은 마음의 자세를 올곧게 세워야만 했다. 어느덧 버스는 도회의 인파와 차량 홍수속을 질주하며 나를

조사구에 하차시켰고, 여늬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벨소리와 함께 상냥한 말씨와 미소로써 경찰 취업시간표를 배부하였다. 끝난뒤 가게지역을 둘러가게부 설득과 기입 방법을 지도하고 또 다른 조사구 1가구를 방문하기 위해 바삐 서둘러야 했다. 전날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이 덕만은 자신이 꼭 전해주는 습관이 있다. 조사를 위해서, 신표본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만나뵙고 자유스런 대화를 통해 정확한 파악을 하기위한 나의 조그만 잔꾀이며 요령이었다. 이 가구는 유난히도 피라미 조사원인 나에게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조사구를 처음으로 인수인계 받던 날이었다. 나는 동료직원과 함께 문제의 이 가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 가구는 전월 경찰조사가 끝난 다음 전입해온 가구이어서 동료직원도 처음으로 대하는 터이었다. 이곳 조사구의 형편은 보통 하위권층으로써 계절 실업자는 물론 주부들의 힘겨운 부업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생활 자체의 불안정은 물론 여타한 사람들이 개인생활에 침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은 생활자체에 크나큰 환멸과 고통을 수반하기에 통계조사라는 개념조차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우리는 문제가구의 대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인기척은 없고 사납게 짓어대는 개소리만이 요란하였다.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며 “실례합니다 안에 아무도 안계세요?” 잠깐 침묵이 흐른뒤에 길가로 난 먼지끼인 조그만 창을 획 열어재키는 소리가 났다. “누구쇼” 발악적인 거친음성이다. “실례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경제기획원에서 왔는데요” “뭐라구요? 경제기획원이구 뭐구 난 그런 거 모르니 다른집에나 가보시오 귀찮게 하지말란 말이오!” 우리는 조용히 잠자는 사자의 옷털을 건드린 셈이었다.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덮칠 기세로, 문전 걸식으로 떨고 있는듯 하는 우리를 아연질색케 하여 골

목쪽으로 몇걸음 뒷걸음질치게 하였다. 한동안 멍하였던 우리는 다시 그 집앞으로 갔다. 다시 문을 두드리며 “아저씨, 다름이 아니오라 잠깐만 저와 말씀좀 나누었으면 고맙겠는데요, 잠깐이면 되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웬 잔소리가 이리도 많단말이오, 나는 그런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기도 귀찮아 싫다는데 왜 그리 시끄럽게 야단이란 말이오” 금방이라도 무슨 벼락이 떨어질것 같다. 집안에서의 사나운 개까지 계속 함세하여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당당한 기세다. 정말 큰일이였다. 조사원 생활에 처음 겪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정말 도리가 없었다. 막연히 다음에 다시 방문할 생각을하니 그저 아찔할 뿐이다. 하는수 없이 들이는 터벅터벅 날개쪽지 빠진 장닭처럼 힘없이 연탄냄새와 가죽붙이기를 하는 부인의 부업으로 인하여 온통 집안이 악취로 베어있는 다음 가구를 방문하였다. 자신의 생활을 소신껏 키워나가며 밝은 마음을 소유한 그런 아주머니였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안절부절이다. 어떻게 하든 그들속에 잠재되어 있는 경직된 마음의 족쇄를 끊어 버려야했다. 그리하여 그들로 부터 강요보다는 스스로의 답변을 얻어내어 정확한 통계에 좀더 오차를 줄이고 싶은 착잡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무실로 돌아와야만 했다. 동행하였던 동료는 “미쓰강 너무 상심하지마, 조사원 생활이란 것이 다이런거야,때로는 개에도 물리고 gas 폭발에 심한 부상자도 있었어” 나에게 위로를 준다. 나는 아무것도 들리질 않는다. 다만 촛점없는 시선으로 그저 묵묵하기만 하다. 어떠한 경우 일지라도 자신의 조사구에서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산재해 있음을 실감한다. 시종일관 침체속에 나는 다시 일어나야했다. 그리고는 하루 걸른후 다음날 조사구를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되도록이면 마음을 편히 하기로 하였다.

다시 결심한 날이 되었고 조사구와 가까워지는 내마음은 또 방망이질이다. 용기를 내어야했다. 마침 문이 조금 열려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사나운 개는 여전히 쾅쾅거린다. 놀라서 문을 쿵 닫고 나왔다. 그리고는 다시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잠간후 “누구십니까”하며 밖으로 나오는 소리이다. 먼저와는 다른 목소리인걸 보니 아마 아들인 모양이었다. 의도적으로 상냥한 말씨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인사를 한후에, 조사지역 설정에 따른 내용과 목적을 간단히 이해 시킨뒤 아들로부터 가구표 작성을 하였다. 보완할 곳이 너무많아 걱정이었다. 그러나 아저씨가 마침 나오시어 인사를 드렸다. 필요하면 하루에 몇백번이라도 인사를 해야할 우리의 의무이다. 역시 귀찮은 표정과 화를내며 또 언성이 높아진다. “그런 조사가 우리에게 밥을 준답디까, 집을 준답디까? 무엇때문에 귀찮게 나왔단 말이요? 분명히 전번의 강한 저기압권 보다는 조금 벗어나는 듯 싶다. 그러나 나는 다시 “아저씨 제가 아저씨께 약속을 드리죠 지금부터 2분간만 아저씨께 여쭙고 시간이 지나면 조사가 다 못되어도 돌아갈게요 정말 약속해요” “도대체 뭔데 그러시오?” 재빨리 표정을 슬슬 훑치면서 체크된 몇가지를 지루하지 않도록 질문을 드렸다. 무뚝뚝 하지만 시원스런 답변은 나에게 작은 아부를 불러 일으켜 아저씨의 기분을 조금은 전환할수 있을것 같았으며 약속한 2분은 거의 5분이 지난듯 싶었다. 마치 현대판 “천일의 앤”을 연출하는것 같은 느낌이다. 내심 쾌재를 부르며 아저씨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아직은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아저씨 표정이 그리쉽게 누그러뜨릴 기세는 아니다. 갑자기 강한 저기압권으로 바뀔수는 얼마든지 있다. 대문을 나서며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인사를 드린후 취업시간표를 전했다. 아무런 대

답이 없다. 그러나 대문닫는 소리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정말 이러다가는 심리학 박사라도 될 것 같다. 긴 골목을 단숨에 빠져나왔다. 콧노래도 동승한다. 그렇다 이렇게 서서히 일을 꾸려야 했다. 더구나 이 아저씨덕은 실업자, 취업자가 함께 있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친숙해야만 했다. 그 다음주 경찰실사일이 되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일찌기 출발했다. 아직 훌가분한 마음은 아니지만 뭔가 이뤄낼 수 있을것 같은 기분으로 조사구에 다르니 골목 반대쪽에서 아저씨가 긴 장화를 신고 오신다 너무 반가워서 “어머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고 오시나봐요. 모래 많이 팔으셨어요? 아저씨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사시는군요.” 무척 어색해 하며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신다. 그리고는 저번주에 나눠드린 취업시간표를 가져다 주신다.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이어서 현지에서의 조사표작성은 불가능하여 취업시간표를 정확히 확인한 뒤, 아저씨께 한 말씀드렸다. “아저씨 저하고 종씨이신데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저씨께서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 무서운 사자같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웠소? 피곤해서 낮잠자는데 깨우니 그렇지.”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는 아저씨의 말씀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독듯이 녹아버린다. 정오가 가까와 오면서 제법 시장기가 든다. 안도의 한숨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겪어야 할 많은 시련들이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안으로 서서히 용해되고 있음을 느낀다.

## 오늘도 힘차게

강원 통계사무소 정 해 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산 치악산 기슭에 자리잡은 중부 내륙의 교통중심지인 원주에 근무하는 정해권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1년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빌어 사례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가 현장조사를 통해 겪었던 어려움이야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통계가족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폭풍이 몰아치든 바다가 한없이 고요하든 비슷한 위기감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주어진 길을 향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국에 신규발령을 받은 지도 어언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엇그제 같은 일이지만 경제기획원이란 타이틀의 매력과 경제의 운용방향을 계획, 통합, 조정한다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발을 들여 놓고 외부의 부러움도 많이 받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생활하다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듯이, 통계가족의 구성원이 되면서 저에게 전개된 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교육을 받고 현지에 나가 실사를 해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이 말해주듯이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계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잃지 않고 대처해 나가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드릴 예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빈도 높은 일 중의 하나이겠습니까라는 이런 경험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질 높은 통계수집, 더 나아가 명랑한 사회생활의 선도에도 일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전의 일이었습니다. 조미료 도매업체인 M회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협조를 잘해주던 업체였는데 지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사를 방문했을때 담당직원이 지점장에게 인사를 시키길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도소매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하는 말이 10년 동안 지점생활을 했지만 이러한 조사에 응답해 준 바가 없으며 이런 조사는 나하고 관련이 없으니 본사에서 직접 파악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짜증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담당직원이 “전에도 계속 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 자네가 우리 지점 매출액이 타업체(경쟁업체)에 들어가면 책임질거야?”하며 담당직원에게 역정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조사를 꼭 하려면 공문을 보내서 본사의 결재를 받아야 응답을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점장에게 협조공문은 이미 처음 방문했을 때 보내드렸으며 타사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책임을 지고 비밀이 절대보장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으니 꼭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지점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뜰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점장에게 저도 공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의 공문을 본부

에 연락해서 갖다 드려야 하니 어차피 귀사의 조사표는 늦어질 것이니 지점장님께서 회사사정과 지연사유를 비고란에 써 주시고 싸인을 직접 부탁한다고 했더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날 본사에 연락을 해서 응답해 줄 테니 조사표를 놔 두고 4일후에 다시 오라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할 수 없이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방문해도 괜찮겠느냐?”고 했더니 오늘은 판촉사원의 교육이 있다길래 밖으로 불러잡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현지점장님은 성격이 꼬쟁이같다느니, 조그만 일도 참견하는 잔소리꾼이라며 저에게 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업무는 빈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저에게 정 바쁘시면 내일 오전에 짐계를 내서 세무서 가는 길에 알려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당직원의 말 한마디는 정말로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는 통계법이 있는데 대상처의 대표자가 모르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한두달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방문해야 하므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지점장을 설득해 떳떳하게 조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란 타고난 환경과 자라온 여건, 사회 각 분야의 활동영역에 따라 인격형성과 사물을 보는 가치판단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경험해 본 바입니다만, 우리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담한 반응형,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불신형,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비판형등 다양각색의 형태에 대하여 우리는 나름대로의 복안을 짜내어 통계자료수집에 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장에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

가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궁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대표자에게 정부가 주관하는 통계에 협조를 구하여 자기직원으로 하여금 꾸중과 충고를 받아내어 조사에 임하게 하는 방법.

둘째, 내 능력이 부족함을 상관에게 말씀드려 협력을 구하게 하는 방법.

셋째, 짧은 기분을 이용한 한판 힘의 승부를 걸어 뉘우치게 하는 방법.

넷째, 자존심은 상하지만 여러번 방문해서 성가시게 하여 역으로 나보기가 싫으니 밑의 직원에게 빨리 협조케 하는 방법.

다섯째, 지점장이 객지생활에 느끼는 외로움과 고적감을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게끔 하는, 자기집 근처의 처량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공감을 불러 일으켜 같은 생각으로 동화시키는 감정적인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섯번째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지점장의 숙소와 퇴근시간등을 파악한 후 지점장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약 30분정도 기다리다 보니 지점장이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서류봉투를 옆에 낀 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니, 지점장님 아니신가요? 안녕하십니까?” 하며 다가섰습니다. 지점장은 난색을 하며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일이십니까?” “예, 대상사업체가 이 근처에 있어 조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점장님은 어떤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집이 이 근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점장에게 바쁘시지 않으면 차나 한잔 하자고 했더니 의외의 응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을 추켜 세우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지점장이 먼저 어제 사무실에서 있었던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경제기획원에서 어렵게 조사를 하는 줄은 몰랐다면 내일 출근해서 본사에 전화연락을 하고 조사표를 작성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

말 기뻐합니다. 저는 신바람이 나서 “지점장님께서도 가족과 헤어져 생활 하시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며 위로했더니 그때부터 지점장은 자기 사정에 관한 얘기를 부담없이 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종종 만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느 다른 사업체보다도 협조를 충실히 잘 해주거의 방문을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료가 우리 국가발전에 기본자료가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요원들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생산해 내야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로서 어떠한 어려운 일에 봉착하더라도 슬기와 지혜로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혹 조사표에 조그만 착오나 잘못이 생기면 “책상조사가 아니냐?” 또는 “매월 사업체를 방문하느냐?”하는 등의 말씀들은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입니다. 조그만 잘못을 두고 벌칙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저희 통계요원들은 좀더 의욕을 갖고 활기찬 마음으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통계가족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해 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요원, 국가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통계요원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발과 노력이 있어야만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라는 자산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국가경제발전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생산해 나간다는 자부심과 보람으로서 오늘도 힘차게, 힘차게 매진해갈 것입니다.

## 일을 사랑하는 마음

서울 북부출장소 권 정 인

우리는 하루 하루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삽니다. 일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과 가사일, 무보수로 남을 즐겁게 하는 일 등 여러가지 예를 들자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전에 저는 텔레비전 프로를 잠깐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하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무감에서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더러 하는 일이 지루하고 짐스러우며 피로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지난해 가게 조사 신표본 교체로 마음 한구석 걱정거리가 있었지요. 쉬는날!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저의 성격탓인지는 몰라도 별로 편한 마음으로 쉬는날이 드물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이나 후배들도 한번쯤은 비슷하게 경험이 있을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쉬운일 같지만 애로사항이 여간 많은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연 사연은 지난번 사례집 발표에서 익히 알고 계시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게조사의 회수율과 질적인 면에서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듯이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해서 방법을 구상하여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어떻게 일단 출장기간은 물론이고 그

외 기간이라 하더라도 가족한테는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당분간 양해를 구하고 퇴근후 조사지역에 출근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흥분하여 지더군요.

가계조사는 저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적격가구에서 주부, 가구주는 물론이고 기타 가구원등 온가족이 합심해서 협조하여 기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인내심과 설득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격가구 한집 한집 다니며 그 날의 수입과 지출을 기입하며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가구등을 성의있고 진지한 마음으로 설명하였더니 웬만한 주부들은 반드시 협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체불능 가구도 몇 가구씩 발생하지만 정상적인 가구는 협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사에 임할때 우리는 보다 보람있고 몇몇한 통계조사 요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표본교체나 전입가구가 해당될 경우 무조건 1일부터 10일 가까이 대상가구가 스스로 협조해 줄때까지 계속 조사지역에 출근 하였습니다. 그 덕에 새로운 점을 발견하였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사표 회수율이 첫달부터 높았습니다. 꾸준한 노력끝에 4개월째 되는달에는 2개 조사구역에서 회수율 100%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마 다른 직원보다 유리한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젠 우리도 가계조사에 있어서 양보다 질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봐서 양은 기본이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자기발전을 위해서죠. 우리가 조사표를 회수할때 다행히 주부가 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부재중일때는 조사표가 분실될까봐 일단 회수하고 다시 재방문하여 미비사항이나 의문점을

보완하죠. 저나 여러분께서도 조사표를 회수하여 검토하다 보면 정말 어느 가구는 정성을 나하여 기입해 주지요. 공중전화료 20 원도 기입할 정도이니깐요. 이러한 가구는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저의 경우 한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종로구 가회동 어느 가구의 이야기 입니다. 가구주는 가족 의사이며 나이는 53 세이고 주부는 직업이 없이 주로 집에만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계획을 하신것 같은데 4 남매를 두었습니다. 대학생 2 명, 고교생 1 명, 중학생 1 명등 다양했어요. 생활정도가 괜찮은지라 한 달 용돈을 월말이 되면 자녀들한테 하루 날짜를 정해 놓고 용돈을 줍니다.

막연히 지출관에 품목은 용돈이라고 기입하고 7 만원 6 만원 4 만원 3 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기입합니다. 제가 상세히 기입해 달라고 협조를 요했으나 자녀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할 수 없다고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묘안을 생각했지요. 첫달부터는 어렵고 일단 친숙해진 다음에 실행해야 되므로 학생들의 태도, 성격등 여러모로 관심있게 살펴 보았습니다. 유별나게 모나지 않는 학생들 같아서 통계조사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설득했지요. 각각 메모지나 현 노트에 지출품목 하나 하나 기입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고맷게 협조해서 저는 다시 학생들이 자세히 기입해준 내용을 가계부에 이기 하였습니다. 학생들도 워낙 하루 일과가 바쁘지라 어려웠었지요. 저도 바빴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퇴근후 조사지역을 다녀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계조사의 질적인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생각되기에 미숙하나마 예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은 언제부터인가 퇴근후 조사지역에 출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조사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가구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저녁에 적합한 응답자를 만나기 위해 늦게까지 조사에 임해야 됨이 몹시 불편하지만 먼 훗날 저희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관계되시는 모든분께서 인정해 주실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저희 모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맡은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것을 볼때에 우리의 통계발전은 더욱 빛날것으로 생각합니다.

## 통계 조사의 현장에서

---

---

1988년 5월 28일 인쇄

1988년 5월 30일 발행

---

발행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편집 : 조사관리과

인쇄 : 삼익인쇄

---

---